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5년 4월 7일 화요일 제1124호

한국투자증권
함께 가는 금융 친구
I'M YOU



'창사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 현대차의 자기진단

MK "내수 마지노선 41% 사수하라"

〈정몽구 회장〉

내부문건 단독 입수… 1분기 점유율 37.7% 비상 "피아트 전철 안된다"

정몽구〈사진〉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현대차의 내수 점유율 마지노선을 41%로 정했다. 현대차는 내수 점유율 40%대가 무너지면 이탈리아 자동차업체 '피아트'처럼 쇠락의 길을 걸을 것으로 자체 분석, 경각심을 더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7일 본지가 확보한 현대차의 국내 시장 분석 문건에는 올해를 '창사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했다. 위기의 배경으로는 수입차의 폭발적 성장, 국내 경쟁사의 성장세 전환, 현대차의 판매역량 부족을 꼽았다.

이 문건은 현대차의 올해 내수 점유율이 41%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건에 따르면 현대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07년 48.4%를 차지했지만 2010년 41.5%, 2014년 40.4%를 기록했다. 지난 8년간 8.0%포인트가 하락한 것. 여기에 올 1분기에는 40%대마저 무너졌다. 현대차의 1~3월 내수 점유율은 37.7%다.

현대차는 내수 점유율 40%를 사수해야 하는 이유로 피아트의 사례를 들었다. 피아트는 1999년 심리적 방어선인 40%가 무너진 뒤 급격한 내수 판매 감소를 겪었다. 안정적 성장 기반을 잃자 위기는 전 세계 시장으로 확대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미국 자동차업체 크라이슬러와 합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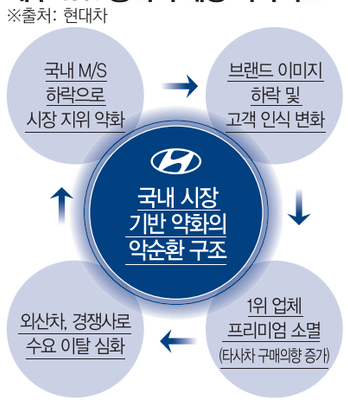
현대차도 국내 시장 1위의 지위가 흔들리면 '브랜드 이미지 하락→1위 업체 프리미엄 소멸→수요 이탈'의 악순환을 겪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차는 올해 내수 시장 사수를 위해 고객관계관리(CRM) 캠페인, 영업사원에게 고객으로 등록하면 차량 가격을 할인해 주는 '200만 굿 프렌드' 등을 적극 활용, 고객 이탈 방지에 나선다. 더불어 제품 측면에서는 '올 뉴 투싼' 'LF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같은 신차 판촉 강화로 판세 전환을 꾀한다. 수입차 공세 방어를 위해서는 '제네시스'와 '아슬란'의 판매를 강화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해당 문건과 관련해 "현대차는 상시적으로 국내시장을 분석하고 있다"며 "피아트의 사례를 넣은 것은 그만큼 내수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입차는 지난달 국내에서 2만2280대가 판매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차의 월간 판매가 2만대를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현대차가 분석한 내수 40% 붕괴시 예상 시나리오
※출처: 현대차



삼성전자 실적 바닥지났다

1분기 영업이익 5조9000억

전분기보다 11.53% 증가
매출 47조로 10.87% 줄어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이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관련기사 8면

삼성전자는 7일 올 1분기 영업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연결기준 매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4%, 30.5% 하락한 47조원, 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잠정 영업실적은 직전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10.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1.5% 증가했다. 이는 IM(IT·모바일)부문이 '갤럭시노트4'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에 따라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라가고, 유통 재고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축소돼 실적 개선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의 예상치 평균(5조4300억원)을 웃돈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영업실적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3분기 이후 3년 만에 바닥을 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스마트폰 사업 부진으로 매출,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각각 9.3%, 43.5% 하락한 47조4500억원, 4조6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작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52조7300억원, 5조2900억원으로 각각 11.1%, 30.2% 증가했다. 3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던 영업이익률도 다시 두 자릿수(10.0%)를 회복하는 등 상승세를 탔다.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영업실적은 TV부문의 성적이 나쁘지 않고, 반도체 사업의 탄탄한 성장과 스마트폰 사업의 본격적 부활 효과가 반영됐다.

반도체부문은 2조원 후반대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부품사업은 서버·모바일부문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졌고, 비메모리인 시스템 LSI의 14나노 제품 양산 본격화로 거래처에 신제품 공급 효과 등이 더해졌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1조7500억원, 1조9600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축소된 IM부문의 실적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 1분기에는 '갤럭시S5' 재고 소진에 따른 비용 절감 등으로 약 2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3분기 만에 2조원대를 회복한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 2분기부터 새 전략 스마트폰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이 점차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삼성전자 분기별 영업 실적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14년				201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잠정)
매출	53.68	52.35	47.45	52.73	47.00
영업이익	8.49	7.19	4.06	5.29	5.90

4월 대관령에 핀 '눈꽃'



7일 강원 산간에 봄을 시샘하는 눈이 내렸다.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이 봄과 겨울의 풍경을 동시에 연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SPP조선, 이르면 오늘 4000억 수혈

채권단, 지원안 가결… 성동조선 자금지원도 탄력

SPP조선에 대한 4850억원의 신규 자금 집행이 이르면 7일 이뤄진다. 이와 함께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안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SPP조선 채권단은 4850억원의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한 동의 여부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6일까지 통보, 사실상 가결됐다.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SGI서울보증보험 등 3개 기관은 신규 지원안에 '동의'의사를 나타냈고, 무역보험공사는 아직 주채권은행에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동의'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다.

앞선 채권단 회의에서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신한은행은 이번 지원안에서도 '부동의'의사를 나타냈지만, 신규 자금 집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책기관 4곳의 채권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해 가결요건인 75%를 이미 충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의'의사를 밝힌 채권단의 지원금 부담은 한층 높아졌다. 이번에 재부의된 SPP조선 추가 자금 지원안은 반대 채권자가 있을 경우 찬성 채권자가 지원금을 추가 분담하기로 해 신한이 빠진 만큼 나머지 4개 기관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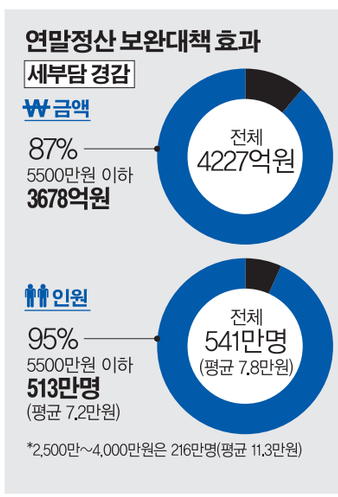
여기에 서울보증과 무보가 보증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사실상 수은과 우리은행이 신규 자금 4850억원 전액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은과 우리은행은 채권비율에 따라 각각 2967억원, 1883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자금 집행은 늦어도 8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주관은행이 필요 금액을 산정해 단계를 나눠 지원하는 구조다. 4850억원 전액을 한꺼번에 집행하지 않고, 3500억~4000억원을 우선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PP조선의 추가 자금 지원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동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수은은 4200억원의 신규 자금 지원안을 채권단에 부의한 상태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부 채권은행이 긍정적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SPP조선 자금 집행으로 성동조선 자금 지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연말정산 보완대책 효과



541만명 평균 8만원씩 돌려받는다

정부 '연말정산 보완책' 발표

자녀·연금 세액공제 등 확대

'13월의 세금'으로 불리며 논란이 확산됐던 연말정산에 대해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놓으면서 1인당 평균 7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2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1619만명의 근로자에 대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 분석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6일 발표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보완 대책은 5500만원 이하 급여 근로자의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자녀세액공제 확대(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자녀 이상 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 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1명당 30만원) 신설 △연금세액공제 확대(급여 5500만원 이하자에 한해 12%→15%) △표준세액공제 1만원 인상(12만원→13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높은 공제율 적용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130만원 이하로 확대, 공제한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등이다.

정부는 이번 보완 대책으로 총 541만명, 4227억원의 세금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근로자 1인당 평균 8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김희준 기자 h9913@

데이터 뉴스 Data News

잘나가는 ETN, 거래대금 사상최고

개설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상장지수채권(ETN) 시장의 거래대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ETN 시장의 거래대금은 지난해 11월 개설된 이후 최고치인 27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도 지난해 11월 1억1000만원에서 4월(1~6일 기준) 13억원으로 약 12배 늘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시장에서는 단일 종목 거래대금도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코스피 수익률 중위권, 아직 저평가

코스피 수익률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코스피는 올 들어 이달 3일(2045.42P)까지 6.78% 상승했다. 반면 주요 46개국 증시 가운데 수익률은 2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증시가 29.67%를 기록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이어 아르헨티나(29.06%)와 포르투갈(25.76%), 이탈리아(22.60%), 독일(22.05%), 헝가리(20.05%) 등이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하루 한 생각 董狐直筆
(동호직필)
죽음을 두려워 말고 사실대로 써라
▶ 14면


김승희 처장 ▶13


황영기 회장 ▶22


마켓&마켓 ▶16~19
증시 1분기 결산

지배구조 대해부 ▶20
이지바이오그룹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셋째자녀·싱글족 등 공제 확대… 202만명 稅 증가분 해소

연말정산 보완책 발표

#. 의료비, 교육비, 연금 등 공제지출이 전혀 없는 싱글 A씨(총 급여 3000만원)는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액공제 전환으로 15만7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 보완 대책을 적용할 경우 4만3000원을 돌려받게 돼 총 20만원의 세 부담이 줄었다.

#. 6세 이하 자녀 두 명을 둔 직장인 B씨(급여 5000만원)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10만2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했지만 자녀세액공제 확대 보완책을 적용할 경우 4만8000원을 환급받게 돼 총 15만원의 세 부담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 협의에 참석해 2015년 연말정산 분석 결과와 보완 대책을 보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책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자녀세액공제 수준이 셋째 자녀부터 기존 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30만원으로 확대됐다.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첫째는 기존과 같이 공제 혜택이 없지만 둘째부터 15만원의 공제가 추가된다.

출산·입양에 대한 세액공제(1인당 30만원)도 신설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기존 12%에서 15%로 확대돼 총 63만명이 408억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

근로소득세액 공제율과 한도가 확대돼 급여 2500만~4000만원의 1인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공제한도의 경우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이 인상된다.

'싱글세' 논란이 일었던 독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13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 수준을 15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만으로도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 1인 가구의 세 부담 증가가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해 1만원 인상으로 정했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 대상은 대부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보완책으로 환급받는 541만명 근로자 중에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가 513만명(3678억원)으로 95%에 달한다.

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다자녀, 출산 시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28만명(5.2%, 549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 세 부담 증가자 205만명 중 202만명(98.5%)은 세 부담 증가분이 전액 해소돼 사실상 5500만원 이하 세 부담 증가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평했다.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책을 내놓은 배경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반영된 2월 월급을 받은 직장인들의 불만이 폭주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에서 평균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던 연봉 5500만원 이하에서도 세 부담 증가 사례가 나타나면서 "직장인만 봉이냐"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셋째자녀부터 20만원→30만원
연금저축 공제율도 3%P 인상
'싱글세 논란' 독신 근로자 대상
표준공제 1만원↑13만원으로
근로소득세 공제율 확대 혜택도
정부, 개정안 4월 임시국회 제출
소급적용시 5월부터 환급 전망

실제 정부가 지난해 1619만명의 소득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중에서도 공제 대상 지출이 적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중 자녀 관련 공제를 배우자가 받아 본인공제만 적용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통합 등의 영향을 받은 3자녀 이상·출산 가구, 배우자만 있거나 6세 이하 자녀가 1명 이하 있는 경우 등 약 205만명(15%, 1639억원)에서 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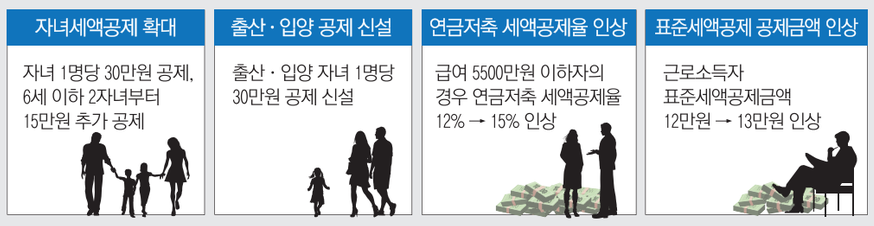
박근혜 대통령은 연말정산 논란이 일자 "원래 취지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세법 개정을 통해 약 9300억원의 소득세 세수 증대 효과를 예측했다. 늘어난 재원은 근로장려금 확대와 자녀장려금 신설 등 저소득층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보완 대책을 소급 적용할 경우 세수는 7200억원 증가에 그친다.

기재부는 "이번 연말정산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연말정산 보완대책 주요 내용



연말정산 보완 방안에 따른 2013년 대비 세부담 증감 분포

(단위: 만명, 만원)

구분		5500만원 이하		5500만~7000만원		7000만원 초과		합계	
		세액공제 전환	보완	세액공제 전환	보완	세액공제 전환	보완	세액공제 전환	보완
감소인원	계	771.7	974.3	48.8	50.5	6.4	7	826.8	1031.8
	10만원 이하	580.6	734	17.6	17	5.8	6.4	604	757.4
	10만 ~ 30만원	177.4	218.8	28.2	30.5	0.3	0.3	205.9	249.6
	30만원 초과	13.6	21.4	2.9	3.1	0.3	0.3	16.9	24.8
증가인원	계	205.5	2.9	65.2	63.4	136.3	135.7	407	202
	10만원이하	130.4	2.9	38.2	44.2	5	4.8	173.5	51.8
	10만 ~ 30만원	73.2	0	22.9	18.6	21.9	23.7	118.1	42.3
	30만원 초과	1.9	0	4.2	0.6	109.4	107.3	115.5	107.9



2014 연말정산 결과 살펴보니

환급인원 늘고 추가납부 줄었다

정부가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 부담이 감소하고 주로 7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 애초 추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7일 정부가 발표한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세 부담 결과에 따르면 전체 85%에 달하는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평균 3만1000원 감소하는 등 세 부담이 늘지 않았으며 전년보다 환급자는 늘고 추가 납부자는 감소해 애초 정부의 추계에 근접했다.

정부는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1619만명(미제출자 30만명 제외)의 지난해 소득자료를 전수 분석해 세액공제 전후로 나눠 효과를 비교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총 999만명 환급·4조5900억 걷혀
지난해보다 61만명·550억 증가해
316만명 추가납부…117만명 줄고
추가납부세액 2조…3252억 늘어
5500만원 이하 세부담 3.1만원 ↓
7000만원 초과는 109만원 더 납부



2013년 소득세법 개정효과 분석

→ 당초 정부 추계와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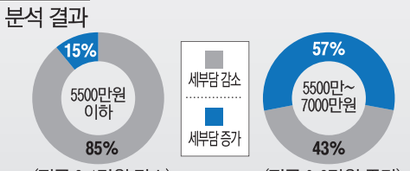
정부 추계 : 급여 구간별 세부담 증감



급여 5500만원 이하 (평균 세부담 증가 없음)

급여 5500~7000만원 (평균 2만~3만원 수준 증가)

분석 결과



(평균 3.1만원 감소)

(평균 0.3만원 증가)

구간별 분석

급여	세액		1인당 평균 세부담 증감액	
	정부추계	분석결과	정부추계	분석결과
5,500만원 이하	△4,590억원	△4,279억원	△3.4만원	△3.1만원
5,500만~7,000만원	260억원	29억원	2.7만원	0.3만원
7,000만원 초과	1.36조원	1.57조원	124만원	109만원

급여·공제지출 변화 효과를 배제하고 순수 세법 개정 효과만을 분석하고자 2014년 인별 자료를 세액공제 방식과 소득공제 방식에 각각 적용해 결정세액을 비교한 것이다.

정부의 연말정산 결과 분석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시 전년 대비 환급인원은 늘어나고 추가 납부 인원은 감소했다. 환급받은 사람은 총 999만명, 4조5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1만명, 550억원 증가했다.

추가 납부한 인원은 감소했지만 추가 납부세액은 증가했다. 추가 납부 인원은 총 316만명으로 전년(433만명)에 비해 117만명 줄었고, 추가 납부 세액은 2조원으로 전년 대비 3252억원 늘었다. 추가납부 세액의 증가는 주로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세액 증가에 기인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 당시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평균 세금이 종전보다 줄거나 비슷하고, 5500만~7000만원 직장인의 세 부담은 평균 2만~3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봉 5500만원 이하라도 연간 세금이 증가하는 직장인이 많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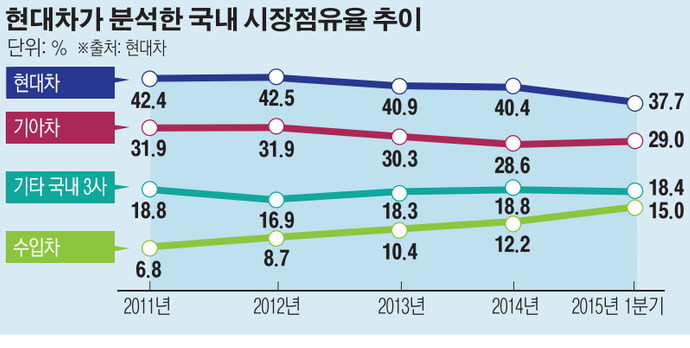
실제 분석해 보니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 부담이 3만원 감소하고 5500만~7000만원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증가해 애초 추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85%(1156만명)는 세 부담이 없거나 1인당 평균 8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중 자녀 관련 공제를 배우자가 받아 본인공제만 적용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통합 등의 영향을 받은 3자녀 이상·출산 가구, 배우자만 있거나 6세 이하 자녀가 1명 이하인 경우 등 약 15%(205만명, 1639억원)는 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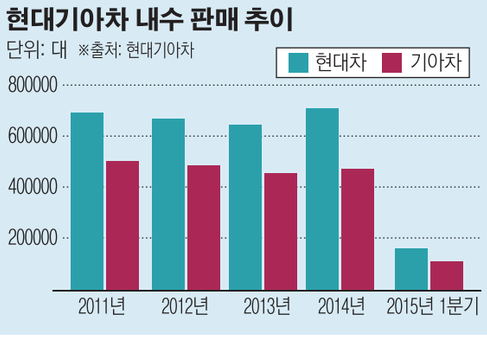
급여 구간별로 보면 5500만원 이하는 세법 개정 당시 4590억원(평균 3만4000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으나 4279억원(평균 3만1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500만~7000만원은 애초 260억원(평균 2만7000원)의 세 부담이 늘 것으로 추산됐으나 29억원(3000원) 늘어난 데 그쳤다. 7000만원 초과는 1조3630억원(124만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봤으나 1조5710억원(109만원)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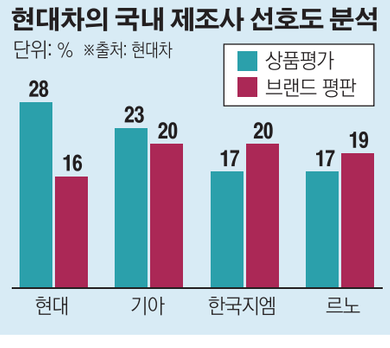
박엘리 기자 ellee@











내수시장 사수 위한 현대차의 2015년 중점 추진사항

1. 시장 사수를 위한 영업 기본역량 및 CS 강화
2. 고객 관리 활동으로 이탈 방지
3. 투싼, 승용 디젤, 쏘나타 HEV 총력 판촉으로 시장 판세 전환
4. 아반떼, 쏘나타, 싼타페 등 주력 차종 집중 판촉
5. 아슬란, 제네시스 등 고급차 판매 확대로 수입차 공략

인기 하락·경쟁사 도전·수입차 질주… '삼중고'에 빠진 현대차

국내 상품평가 1위 지켰지만
브랜드 평판은 16%로 최하위

국내차 업체 간 경쟁 치열해져
'동생' 기아차 성장도 큰 부담

수입차 월 판매 2만대 돌파
내수시장 점유율 20%대 위협

MK '내수 특명' 왜 나왔나

"올해 내수 시장 점유율을 지난해보다 늘리지 못하면 옷 벗을 각오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회사 분위기를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영업본부에게 판매 확대는 숙명이지만, 지금처럼 분위기가 엄혹한 것은 고(故) 정주영 회장이 '포니'의 성공을 다그친 이후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자체 조사서 브랜드 평판 최하위 '충격' = 현대차가 안방으로 여겼던 내수 시장에서 위기를 느낀 근간에는 브랜드 평판의 하락이 깔려 있다.

현대차는 자체 조사한 국내 제조사의 상품평가에서 선호도 28%로 1위를 차지했다. 기아자동차는 23%, 한국지엠 17%, 르노삼성자동차 17%를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상품 평가와 달리, 브랜드 평판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회사의 브랜드 평판 선호도는 16%에 그쳤다. 기아차와 한국지엠은 20%를 기록, 공동 1위에 올랐으며 르노삼성은 19%를 기록했다. 자동차 품질은 좋지만 브랜드는 인기가 없다는 이질적인 상황에 놓인 것이다.

현영석 한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시장에서 싼타페 등 몇 개 차종의 품질 문제가 거론된 것이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대차는 20~30대 젊은층의 이탈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에 따르면 국내 30세 고객의 현대차 선호도는 22%에 그쳤다. 반면, BMW는 55%, 폭스바겐은 40%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현대차와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

◇국내 제조사 간 경쟁… 기아차 '복병'으로 = 국내 완성차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현대차 위기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2000년대 후반 이후 국내 자동차 시장은 연간 160만대 전후로 정체돼 있다. 국내 완성차업체 고위 관계자는 "자동차 수요의 고도 성장이 끝나면서 이제는 누군가 성장하면 누군가는 시장점유율을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제조사의 성장은 현대차에게는 위협이다. 쌍용자동차는 올 초 '티볼리'를 출시한 뒤 국내 시장서 선전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QM3'에 이어 르노의 다른 모델을 수입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 가장 큰 위협은 기아차의 선전이다. 그룹 내 한지붕 가족이자, 최대 경쟁자라는 것. 기아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심으로 판매를 늘리자 현대차는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잃고 있다. 현대차는 국내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쏘렌토'와 '카니발'의 판매 호조세 지속 △봉고'의 생산 증량을 내수 시장에서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국내 시장의 70%가량을 차지하다 보니 다른 업체에게서 시장의 파이를 가져오는 것은 한계가 왔다"며 "결국 현대차와 기아차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폭발 성장 수입차, 국내 시장 20% 잠식 예고 = 수입차의 고속질주도 현대차가 풀어야 할 숙제다. 수입차는 지난달인 3월 2만2280대가 팔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41.6% 상승했다. 한국수입차협회는 지난해 말 2015년에는 저성장과 가계부채로 수입차의 성장이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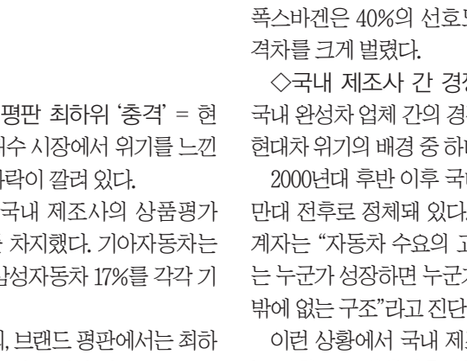
그러나 예상과 달리 수입차는 올 1분기 5만8969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7% 성장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수입차는 올해 25만대 이상 팔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수입차의 내수 시장 20% 점유도 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영석 교수는 "수입차가 성장하면서 국내 제조사 중 어딘가는 시장을 내줘야 한다"며 "현대차 등 국내 제조사의 시장 판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차도 '안간힘'

1Q 판매량 소폭 늘었지만 몇년째 극심한 부진 겪어
"내수 부진 계속되면 외국기업 생산기지 전락 우려"



내수시장의 위기감은 현대자동차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3~5위 업체들은 최근 내수 판매 호조로 한숨을 돌렸으나, 이들 역시 점유율 확보는 절박한 상황이다.

7일 한국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의 1분기 국내 판매량은 7만2289대로 전년(66041대) 같은 기간보다 9.5% 늘었다. 실제로 한국지엠(0.3% 하락)을 제외하고 르노삼성은 13.7%, 쌍용차는 25.7% 증가했다.

이들 업체의 내수 판매량은 표면적으로는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만큼 현재의 점유율이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게다가 수출 부진이 겹치면서 안방 시장인 내수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계인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은 내수시장이 부진할 경우 생산기지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자체적인 생존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내수 물량이 필요하다.

국내 3위 업체인 한국지엠은 지난해 내수 점유율 9.6%를 달성하며 목표였던 10% 달성에 실패했다. 지난해 수출량(45만6000여대) 역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사측은 지난해 말 크루즈 등을 생산하는 군산공장의 2교대 근무를 1교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사실상 군산 공장을 축소하겠단 뜻이다. 부평 1·2공장 통폐합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국내 근로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르노삼성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 회사는 소형 SUV인 'QM3'의 활약에 힘입어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내수와 수출 모두 견실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판매가 지나치게 QM3에 편중된 점은 위험요소다. QM3는 르노의 스페인공장에서 전량 생산돼 국내로 수입된다. 해외 공장에서 물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국내 판매량 하락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다.

쌍용차도 '티볼리'를 앞세워 내수시장에선 선방하고 있지만, 수출 시장에선 맥을 못추고 있다. 이 회사의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11.8%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40.6% 급감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루블화 폭락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력 시장의 물량이 감소하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러시아는 쌍용차 전체 수출 중 40%를 차지한다. 이 회사는 루블화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물량을 절반가량 줄이고 있다. 당분간 루블화 폭락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내수시장 확대는 절실하다.

김범근 기자 nova@

1분기 수출 6.6% 급감… 글로벌 시장도 '비상등'

올해 1분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량이 급감했다. 러시아 루블화 폭락과 신흥시장의 성장 둔화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 완성차업체의 수출 대수는 73만5635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했다. 수출량이 줄면서 1분기 수출금액도 114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9.0% 줄어들었다.

업체 별로는 현대자동차가 28만4622대를 수출해 지난해 1분기보다 8.6% 줄었고, 기아차도 8.4% 감소한 29만631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지엠의 수출량은 10만9864대로 14.3% 감소했다. 쌍용차의 수출량도 전년 동기 대비 40.7% 감소한 1만1658대에 그쳤다. 다만, 르노삼성은 위탁 생산을 하는 닛산 '로그' 덕분에 3만6814대를 수출해 전년보다 257.8% 급증했다.

김범근 기자 nova@



2016년 예산·기금운용 계획

'눈먼 돈' 국고 보조사업 줄인다…재정 다이어트 2R 돌입

부처별 사업수 10% 일괄 감축
성과 미흡 사업 과감하게 축소
폐지 땐 신규사업 추진방식 도입
지방교부세 산정방식도 단순화
절감 재원 경제활성화·복지 투자

정부가 복지기금 3조원 절감에 이어 부처 간 부실 보조사업 감축을 통한 재정 다이어트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은 정부는 각 중앙부처의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 수를 일괄적으로 10% 감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3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에 이어 올해도 낮은 물가상승률과 더딘 경기 회복으로 국가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라는 위기감에서 출발한다. 이는 특히 증세보다는 재정 지출구조 개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또한 한 번 시작된 사업이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국가 보조사업의 병폐를 뿌리 뽑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건 변화에 맞춰 모든 재정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과감하게 폐지·축소키로 했다.

특히 개별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선 예산 삭감·폐지를 의무화했다. 재정 투자의 효과가 낮은 사업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모든 보조사업은 운용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한다. 2017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던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도 한 해 앞당겨 완료한다.

보조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은 기존 사업을 폐지할 때만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재원 대책 없이는 세출 확대도 없다는 '페이고(Pay-Go) 원칙'과 300억원 이상 규모의 조세지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심층평가 의무화 등 기존의 재정 개혁 방안도 지속, 강화된다.

지방재정 지원도 재정비해 복잡한 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화할 방침이다. 학생 수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사회복지비 비중을 확대하는 등 배분 기준도 대폭 수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리는 한편 특별교부세에 지자체별 국가시책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부처별로 자체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뒤 민간위원이 참여해는 재정개혁위원회에서 실적을 평가해 우수 부처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렇게 절감한 재원을 △경제 활성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고령사회와 통일 등 변화하는 미래에의 대응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경제활성화 분야에선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 등 창조경제 확산,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복지 분야에선 세대·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충과 일자리 확대를 통해 자립 지원 강화 정책에 활용된다.

이 밖에 사회 안전망 확충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 구상과 관련한 선제적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희준 기자 h9913@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3대 전략 10대 과제

재원 배분 합리성 제고

△ 재정사업 원점서 전면 재검토
- 우선 순위 낮은 사업 예산 삭감 · 폐지 의무화
- 모든 보조사업 운용평가 실시 → 예산에 그 결과 반영

△ 재정투자 효과 극대화
-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재정투입 연계 강화

△ 사업 수 총량 관리제 도입
- 부처별 보조사업 수 10% 감축 요구
- 재정사업은 기존 사업 폐지시에만 새 사업 추진하는 '원 아웃 (One Out)-원 인(One In)' 방식 도입
- 2016년 예산 편성시 600개 유사 · 중복 사업 통폐합

△ 민간 투자와 창의 활용한 재정운용
- 민자사업 활성화, 민간 대행개발 등 SOC 사업방식 다각화
- 민간 투자자와 국유재산 공동 개발 추진

재정 지출 비효율 차단

△ 재원 연계 지출 원칙 정착
- 신규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 확대시 해당부처가 우선하여 지출절감 계획 마련(페이고 원칙)

△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 강화
- 신규 조세지출 규모 300억 이상시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 일몰도래 300억 이상 조세지출은 심층평가 거쳐 연장 여부 결정

△ 보조금 부적정 수급 근절
- 부정 수급 방지 인프라 확충
- 부정 수급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 부정수급 적발시 관련 예산 삭감 · 폐지

△ 지방재정 지원체계 정비
- 교부세 산정방식 단순화
- 인구구조 변화 등 반영해 배분 기준 개편
- 지자체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특별교부세 운영방식 개선 → 지자체별 국가시책사업 성과 반영

재정 운용 신뢰성 강화

△ 예산편성 과정 국민 참여 확대
- 재정운용 아이디어 상시 수렴

△ 부처별 재정개혁 추진 및 민관합동 평가
- 부처별로 자체 재정개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원 참여 재정개혁위 등에서 추진실적 평가 → 우수 부처에 인센티브

보조사업 구조조정 주요내용

국고보조 사업, 신규 요구사업 포함, 2015년 예산대비 사업수를 10% 감축
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 반영한 예산 요구
인센티브 지원-정액보조 방식 등 사업효율화 통한 세출 구조조정 강화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 대상 사업은 타 회계 지원 요구 금지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금 지원 등은 경영개선 및 자구노력 추진 전제로 지원 결정

나라 빚 93조 늘어 1211조
절반 이상이 연금충당 부채
작년 공무원연금 등 47조 ↑ 600조 넘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전년도보다 93조3000억원 늘어난 121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채와 차입금 등 중앙과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2013년도보다 46조원 늘어난 567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29조5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는 121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 재무제표는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회계처리하는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정부 자산과 부채 등을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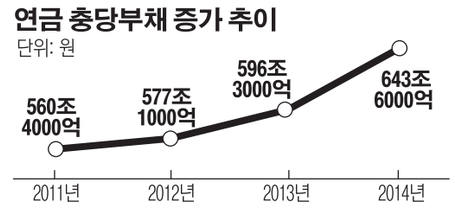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가채무를 끌어올린 데는 적극적 재정 운용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와 연금충당부채의 증가가 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의 증가액은 47조3000억원 늘었다. 이는 46조원 늘어난 국채·주택청약저축 등의 증가액을 웃도는 것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운용한 예산보다 공무원·군인 연금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예산의 증가폭이 더 큰 것이다.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한 것에 대해 "공무원·군인 재직자가 125만3000명에서 126만3000명으로 9000명 늘어나고 수급자 수도 45만명에서 48만2000명으로 3만명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공무원·군인 보수가 1.7%에서 3.8%로 인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연금충당부채가 앞으로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2011년 560조4000억원에서 2012년 577조1000억원, 2013년 596조3000억원, 지난해에는 643조6000억원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예산도 꾸준히 늘어 올해 2조9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7000억원, 2017년 4조3000억원, 2018년 5조원으로 계속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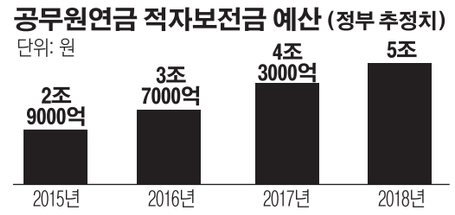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 공무원연금 개혁이 초미의 화두로 떠올랐다"면서 "정부도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연금 충당부채 증가 추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예산 (정부 추정치)



산업단지 맞춤형 인재양성 속도낸다

올해 산단·마이스터고 등 연계
지원센터 설립·전담인력 배치도

정부가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차원에서 오는 2017년까지 전국 41개 산업단지 내 기업과 인근 학교를 연계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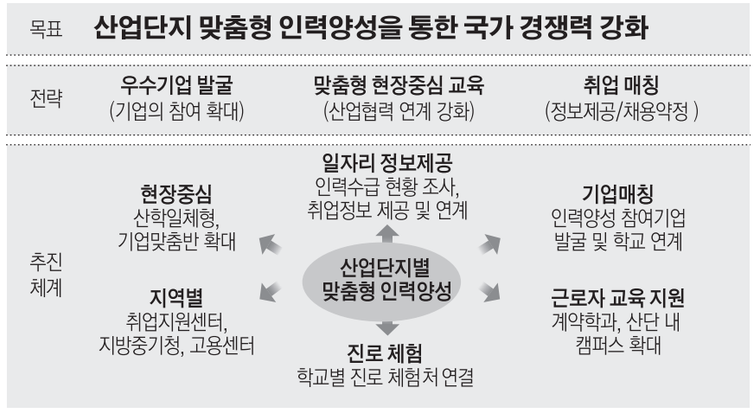
교육부는 체계적 인력양성 및 채용 확산을 위해 산업단지별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 계획을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계획의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중심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일자리 조사 분석 및 일자리 연계 △산학일체형 교육 등 현장중심 교육 강화 △산업단지 탐방 및 진로체험처 제공 △근로자 경력개발 활성화 등이다.

먼저 올해 고용 유발효과가 큰 10개 국가산업단지(서울, 남동, 반월시화, 구미, 대구, 창원, 녹산, 울산, 광주, 군산)부터 산업단지별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진행된다. 이어 2016년에는 21개 국가산업단지, 2017년에는 전국 41개 모든 국가산업단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우선 고교 단계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와 연계하고, 내년부터는 전문대학,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별 기업과 학교 간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산업단지별로 산업계, 교육계 주요 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인력양성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와 지역본부 내에 전담기구인 '인력양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도 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조사 분석을 통한 일자리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인력 수요 기반으로 학과·전공을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종, 직무분야, 직무수준 등으로 세분화해 산업단지 내 기업의 인력수요 조사를 추진한다.

김부미 기자 boomi@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 출경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오는 10일부터 지급되는 3월분의 임금을 인상된 기준에 맞춰 산정하라는 지침에 남북 간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7일 오전 경기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정기섭 개성공단협회장(오른쪽 두 번째)을 포함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출경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이르면 6월 인상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이르면 6월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최소 150원에서 최대 200원, 지하철 요금을 최소 200원에서 최대 3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뿐만 아니라 마을버스와 공항버스 요금도 인상할 방침이다. 광역버스 요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필요해 경기도, 인천시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교통카드 기준 1050원이다.

지하철 요금은 200원 오르면 1250원, 300원이 오르면 1350원이 돼 인상률이 각각 19%, 28.6%를 기록하게 된다.

시내버스 요금은 150원 인상되면 1200원, 200원 인상되면 1250원이 된다.

마을버스 요금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15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 시는 부정적 여론 때문에 인상 시기를 계속 저울질했다. 시는 심각한 대중교통 재정난으로 더 이상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하철 적자는 4200억원, 시내버스 적자는 2500억원에 이른다. 유혜은 기자 euna@

서울 대중교통요금

단위:원

	현재요금 (성인·교통카드 기준)	인상안
시내버스	1050	1200~1250
지하철	1050	1250~1350
마을버스	750	850~900

전월세 대출금리 인하…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27일부터 서민 주택대출금리 등 최대 0.5%P 내려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 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이달 27일부터 0.2~0.5%포인트 인하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 임차가구의 임차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버팀목 대출금리를 현행 1.7~3.3%에서 1.5~3.1%로 0.2%포인트 인하하고 신혼부부·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 요건을 부부 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가구주에 대한 지원 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늘린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저소득층 월세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월세대출은 저소득 가구가 주요 대출 대상인 점을 감안해 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720만원대 출시 2년 이후 이자부담액은 연 14만4000원에서 연 1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졸업 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의 부모 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로 완화했으며, 지원 대상에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을 추가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마다 은행을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1년으로 늘리고 은행 방문 없이도 확인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금리 역시 현행 2.6~3.4%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또한 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우대도 조정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이날 유일호 장관은 기자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전월세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기조로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이번 보완책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전문투자자에도 펀드위험 고지해야"

"설명의무 소홀" 대법 손배소서 원고 일부 승소… 지난달 KDB생보 판결과 엇갈려

투자자가 전문투자업체라고 하더라도, 펀드 판매자가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했다면 투자손실을 일부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산운용회사의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단지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정함에 있어 투자신탁재산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이나 전문성 등이 고려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취득 권유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관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투자자에게 실적배당 및 원본의 손실 가능성 등 간접투자의 특성과 투자위험에 관한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대신자산운용은 2007년 9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에 미국 콘도호텔 건립 개발사업 관련 펀드 투자를 권유했다. 당시 건설공제회는 50억원, 중소기업은행은 30억원을 투자했지만 개발사업 무산으로 큰 손실을 떠안게 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대신자산운용의 책임을 25%로 제한해 배상액을 건설근로자공제회 11억5000여만원, 중소기업은행 6억9000만원으로 정했고, 2심은 책임비율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30%, 중소기업은행은 20%로 제한해 각각 13억8600만원과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의무로 인해 펀드 판매자가 항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KDB생명보험이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자인 현대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좌영길 기자 jyg97@

성완종 前회장 구속 모레 결정… 광물공사로 수사 확대

경남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기와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검찰은 경남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공사 관계자들도 이번 주부터 잇달아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성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회사 재무·경영 상황을 조작해 자원개발 사업 지원 등 명목으로 한국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국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에서 총 800억여원의 정부융자금과 대출을 받아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원개발 공사진행률과 공사금액, 수익 등을 조작해 9500억원대의 분식회계(자본시장법 위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 대아건설 등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 수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번 주부터 광물자원공사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세계 최초·최대" 귀뚜라미 '새빨간 거짓말'

공정위 시정명령



'세계 최초', '국내에서 처음' 등 보일러 성능 등에 대해 과장 광고한 귀뚜라미 보일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012년 제품카탈로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를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보일러는 보일러에 적용된 기술과 생산규모에 대해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거짓 과장해 광고했다.

실제 귀뚜라미 보일러는 세계 최초 4번 타는 연소구조, 4번타는 펠릿 보일러(세계 최초 콘덴싱),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 최대 보일러 회사 등의 광고를 했다.

그러나 4번 타는 연소구조는 세계적으로 약 150여 년 전부터 사용됐고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해 사용했다. 연간 생산 규모도 2012년 기준, 약 43만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귀뚜라미 보일러는 '유럽형 순간 열교환 보일러에 비해 22.2% 이상 가스비 절약가능', '완전연소와 무소음을 실현시킨 신기술입니다' 등의 광고를 내보내면서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일러 제품 성능 등과 관련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서민전세대출 구멍… 허위서류로 160억 '꿀꺽'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서민전세자금 대출의 허술함을 악용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허위 재직증명서로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서모(51)씨와 부총책 최모(35)씨 등 12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인 한모(47)씨 등 1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허위 임차인 한모(32)씨 등 107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임차인·임대인 모집 브로커와 서류위조책 등과 함께 지난 2011~2013년까지 87회에 걸쳐 서민전세자금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 조직 등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서민전세자금을 편취한 규모는 모두 160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들 사기 조직은 돈이 급해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이나 노숙인을 허위 임차인으로 회유해 미리 만든 유령업체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꾸민 뒤 4대 보험 가입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이 주의 주요 재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내일 첫 공판기일

이번 주에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홍원식(65)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이 열린다. 또 인권 활동가들이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네번째 변론기일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404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560호 법정에서 오모씨 등 5명이 미국 구글 본사와 한국 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연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덕수궁 점심길



서울시가 직장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덕수궁길에서 점심시간(평일 11시30분~13시30분) 보행전용거리를 운영해 요일별로 다양한 행사를 연다. 6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중구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를 지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HK저축은행 매각 추진… 3000억 예상

대주주 MBK파트너스 오늘부터 인수의향서 접수 시작
재무구조 좋지만 규모 부담…SBI·다음카카오 "사실무근"

HK저축은행이 새 주인 찾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이날부터 HK저축은행 LOI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매각 건은 프라이빗 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매각주관사 골드만삭스는 2월 초 HK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투자안내(티저레터)를 국내외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보냈다. 매각 대상은 MBK가 보유한 HK저축은행 지분 99%로 MBK는 매각금액으로 3000억원 이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MBK는 HK저축은행과 씨앤엠 등이 포함된 1호 펀드가 오는 2016년 만기를 맞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매각해야 하는 입장이다.

MBK는 지난 2006년 HK저축은행을 1800억 원에 인수했다. MBK는 이후 투입한 자금까지 합쳐 HK저축은행에 총 25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부터 8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등 자산 건전성이 탄탄하다는 점을 매력으로 꼽고 있다.

HK저축은행 현황 (지난해 기준)

자산	1조9973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	24.60%
BIS비율	13.05%
개인 소매금융 비중	86%

HK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1조9973억원의 자산규모를 갖춘 업계 2위 회사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지난해 말 기준 24.6%로 업계 상위 5개사 평균 ROE를 2배 가량 웃돈다.

BIS비율도 13.05%로 높은 수준이며 전체 대출잔액에서 개인소매금융이 차지하는 개인신용대출 시스템도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자산규모가 2조원에 달하다 보니, 인수 능력을 갖춘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SBI저축은행과 다음카카오 등이 HK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불거졌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인수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에도 불구하고 8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등 자산 건전성이 탄탄해 인수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HK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 3000억 이상의 인수비용이 필요데 현실적으로 그 비용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정 기자 lmj@

보험사, 재무구조 나빠졌다

작년 12월 RBC비율 292%
저금리 여파 13.5%P 떨어져
금감원, 역마진 발생 우려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한 탓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비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재무 건전성 기준을 사전에 올린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한 제도이다. 보험업법에서는 RBC 비율이 최소 10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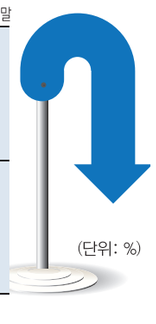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RBC)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이 292.3%로 직전 분기의 305.7%보다 13.5%포인트 하락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최저기준인 1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의 지급 여력 비율은 325.2%에서 310.4%로 14.8%포인트, 손해보험사는 268.5%에서 256.3%로 12.2%포인트 하락했다.

작년말 RBC비율 낮은 순위 보험사

업종	회사명	2014년 12월말
생보	현대라이프	151.9
	DGB	164
	알리안츠	199.5
	IBK	205.7
	동부	207.7
손보	현대하이카	93.2
	악사손해	105.2
	엠지손보	106.9
	카디프손해	127.6
	롯데손해	134.7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 역마진 현상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 미리 재무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뿐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은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생보사의 경우 카디프생명이 73.4% 올랐으며 한화생명(46.1%), ING생명(39.8%) 등이 올랐다. 반면 현대라이프가 151.9%, DGB가 164.0%로 가장 낮은 지급 여력비율을 기록했다. 손보사는 코리안리(29.1%), 스코리손해보험(26.3%) 등이 올랐고 카디프손해보험(189.7%), 페더럴손해보험(49.0%), 더케이손해보험(32.5%) 등이 내렸다. 현대하이카(93.2%)와 악사손해보험(105.2%)은 올해 증자를 실시해 100%를 넘겼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쇼핑할수록 高이율' 신한, 11번가 우대적금

10만원 이상 사용땐 최대 年11%

쇼핑액 따라 금리가 높아지는 적금이 나왔다.

신한은행은 고객에게 새로운 형태의 적금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상품인 '신한 11번가우대적금'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에스케이플래닛㈜)와 제휴 및 신한카드사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리워드)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11번가에서 신한카드를 이용한 실적에 따라 최대 연 8.5%의 리워드가 적금 만기일에 연결 계좌로 입금돼 적금 이자와 합산 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1번가 제휴기념 특별 우대로 상품가입 기간 중 신한카드로 11번가에서 10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연 1.0% 혜택이 제공돼 최대 연 11%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적금 상품 신청은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신한S뱅크(스마트폰)를 통해 가능하다.

가입 금액은 월 1000원 이상 3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6개월 만기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2.5%(6일 기준)까지 금리가 적용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 에스케이플래닛㈜과 '핀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한데 이어 11번가와 연계한 본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핀테크형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구귀 기자 kkk@

BC카드, 6개 홈쇼핑 어디서나 할인혜택



BC카드는 국내 최초로 6개 홈쇼핑업체에서 모두 할인받을 수 있는 '부자되세요, 홈쇼핑 카드'를 출시했다.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홈쇼핑 어디서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카드는 2002년 TV 광고에서 화제를 모은 '부자되세요'에서 모티브를 얻은 '부자되세요 카드' 시리즈 중 첫 번째다. 사진 왼쪽부터 광주은행 김태진 본부장, 수협은행 강신숙 부행장, 전북은행 오병진 본부장, 경남은행 김석규 부행장, 부산은행 박영봉 수석부행장, 대구은행 이성룡 부행장, IBK기업은행 서형근 부행장, NH농협카드 신응환 사장, 우리카드 유구현 사장, BC카드 서준희 사장, NS홈쇼핑 도상철 사장, 현대홈쇼핑 임대규 전무, CJ홈쇼핑 서장원 본부장, GS홈쇼핑 류경수 상무, 롯데홈쇼핑 하동수 부문장, 홈앤쇼핑 이성호 본부장. 사진제공 BC카드

금융위 '은행 달래기'…안심대출 MBS 매각제한 완화 검토

"1년 의무보유 최대 4000억 손실"
금융위, TF 구성 방안 논의 중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 판매에 따른 은행들의 주택저당증권(MBS) 보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매각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논의중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안심전환대출 판매에 따른 은행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서 은행장들은 임 위원장에게 MBS 의무보유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1년간 의무보유로 인해 금리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고 운용이 경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시장 혼란이 없는 선에서 은해들 부담이 덜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자산을 양도하는 대신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인수하는 구조다.

은행들은 연 3%대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대신 수수료가 2% 초반대인 MBS를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든다. 증권가에서는 은행권 최대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34조원에 달하는 물량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시장 충격없이 소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급격한 MBS 발행은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주금공의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MBS 발행이 장기화되면 기회비용이 발생해 주금공이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MBS가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각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연금으로·생활비로…종신보험의 진화

신한·교보·한화생명, 고령화 발맞춰 사망보험금 담보로 지급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보험사의 종신보험이 변화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한 뒤 유가족을 위한 보험금 지급이 대부분이었던 종신보험이 가족은 물론 보험가입자 자신의 노후 의료비와 생활비로 보험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제3 세대 보험으로 진화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지난 1일 업계 최초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신한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연금 수령 중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잔여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후 지난 6일에는 교보생명과 한화생명도 새로운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교보생명이 출시한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은 사망 보험금을 노후 의료비나 생활비로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가입 금액의 80% 한도에서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미리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이 선보인 '교육비 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은 부모가 사망할 시 자녀가 학업을 무사히 마치도록 교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자녀의 학업 기간인 7~22세 사이에 부모가 사망하면 가입 금액의 5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별도로 교육비를 준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새로운 종신보험 특징

교보	나를담은 가족사랑 New 종신보험	사망 보험금 앞당겨 노후 의료비 · 생활비 지급
한화	교육비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	부모 사망시 7~22세 자녀 교육비 지급
신한	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	사망보험금 담보 노후 의료비 · 생활비 지급



MOBIS

V6,

프로농구의 역사를

다시 쓰다

KBL 최초 3년 연속 챔피언
KBL 최다 챔피언 6회 달성



PHOEBUS MOBIS

모비스 피버스를 향한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비스 피버스는 매 시즌 새로운 기록 경신으로 농구 역사를 새로 써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팬 여러분의 힘임을 잊지 않고, 또 다른 승리의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승 기념 감사 이벤트

EVENT 1

피버스 우승기념 순정부품 20% 할인판매

- 판매처 : 현대/기아차 직영서비스센터 내 모비스 부품매장
- 대상 차종 : 현대/기아자동차 전 차종
- 대상 품목 : 오일필터, 에어크리너, 에어컨필터, 와이퍼
- 행사기간 : ~ 5월 15일까지

※ 단, 1인당 1차종분 한정 ※문의사항 : 현대모비스 고객센터(1588-7278)
※ 판매처 확인 : www.mobis.co.kr (국내판매망 – 직영부품 판매점)

EVENT 2

대형마트 모비스 골드워셔액 1+1 행사

- 홈플러스(4.9 ~ 5.6) 이마트 / 롯데마트 (4.16 ~ 5.6)

모비스존 구매고객 추첨 통한 경품 지급 (~5.6)

- 1등 : LDWS 차선이탈방지 시스템, 2등 : 시거소켓 USB 충전기

※ 자세한 내용은 모비스존 홈페이지(www.mobiszone.co.kr) 참조

HYUNDAI MOBIS

스마트폰 살아나자 'V자'로 날았다

삼성전자 1분기 잠정실적

스마트폰 8000만대 출하 추산
중저가 집중 비용절감 효과
휴대폰 판매 단가 소폭 상승
반도체 견조한 성장 이어가

삼성전자의 대표 사업부인 IM(IT·모바일)부문이 부활하자 삼성전자의 실적도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 IM부문의 실적 증가세와 반도체사업부의 꾸준한 선전에 힘입어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5조3000억~5조4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5조원 후반대로 안착했다.

지난해 4분기 DS(부품)부문과 CE(소비자가전)부문 실적 상승세로 영업이익 5조원대를 회복한 삼성전자는 이번 1분기 스마트폰 사업의 본격적인 부활로 견고한 실적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7일 발표된 삼성전자 2015년 1분기 잠정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전분기(52조7300억원) 대비 10.8% 하락한 47조원, 영업이익은 11.5% 늘어난 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출시한 중저가 스마트폰과 지난해 9월 판매를 시작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 등 신모델의 인기가 IM부문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확대됐고, 여기에 재고 소진에 따른 비용절감 및 마케팅 비용감소가 더해지면서 실적이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IM부문의 영업이익은 3분기 만에 2조원대를 회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1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80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분기 8900만대에 달했던 스마트폰 출하량은 '갤럭시S5'의 부진으로 같은 해 4분기 7500만대 수준으로 급감했다.

삼성전자는 성장 한계에 부딪힌 스마트폰 사업 부활을 위해 스마트폰 모델을 대폭 줄이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중저가 스마트폰을 집중적으로 내놨다. 불필요한 모델 축소를 통한 제품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시도한 것. 이에 따라 1분기 휴대폰(스마트폰+피처폰) 평균판매단가(ASP)는 전분기(205달러)보다 소폭 오른 214달러로 추산, 올해 연간 222달러의 ASP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며 IM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이달 10일 글로벌 출시되는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갤럭시S6 엣지'의 인기가 예상되고 있어 IM부문의 2~4분기 실적은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사업은 이번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삼성전자의 실적 상승을 뒷받침했다. 전통적인 비수기 시즌으로 영업이익은 다소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반도체사업 영업이익은 3분기 연속 IM부문의 영업이익을 앞지르며 삼성전자의 실적을 책임지는 핵심 사업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애플의 차기 스마트폰 '아이폰7(가칭)'에 탑재 예정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A9'을 공급, 특허소송으로 중단됐던 애플과의 거래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진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DS부문 내 디스플레이사업은 LCD 패널가격의 견조한 흐름과 OLED 부문 가동률 회복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소폭 오른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CE(소비자가전)부문은 수요 감소에 따른 TV사업 부진으로 1분기 적자전환한 것으로 점쳐진다. 연말 할인행사가 종료되고, 신제품이 출시되지 않은 연초 TV 시장은 비수기 시즌이다. 여기에 이종통화(루블화·유로화)의 약세가 실적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1분기 CE부문은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지영 기자 gutjy@

SAMSUNG 삼성전자 부문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2014년	2015년		
	4분기	1분기(추정치)	2분기(전망치)	3분기(전망치)
전사	5조2900	5조9000	6조1000	6조3000
CE부문	1800	400~500	1100	1900
IM부문	1조9600	2조5000~2조8000	2조6000	2조4000
DS부문	3조1000	3조 초반	3조3000	3조6000



재고 부담 턴 정유사 '봄바람'

유가 반등·정제마진 상승
SK이노베이션·GS칼텍스 등
1분기 흑자전환 전망

지난해 최악이었던 정유사들의 실적이 올해 1분기에는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바닥을 딛고 상승국면을 보이고 있는데다 정제마진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증권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GS칼텍스는 올해 1분기 모두 흑자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 2525억원, 에쓰오일 1527억원, GS칼텍스 83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4분기 추락했던 두바이유 가격은 올해 들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양새다. 1월 중순 배럴당 42.55달러로 최저점을 찍은 후 지난달 31일 배럴당 53.84달러로 마감했다. 최저가 대비 26.83% 상승했다.

지난해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재고평가 손실은 올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현물시장 기준 휘발유, 등유, 경유 가격은 1분기에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휘발유는 배럴당 61.99달러에서 69.59달러로 상승했고, 등유는 70.91달러에서 69.54달러, 경유는 71.33달러에서 71.93달러로 마감했다.

정유사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제마진도 올랐다. 지난해 4분기 배럴당 평균 7.6달러 수준이었던 정제마진은 올해 들어 배럴당 9.7달러 수준으로 개선됐다. NH투자증권 최지환 연구위원은 "석유수요 개선 등으로 정제마진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관측도 있다. 최근의 정제마진 회복은 국제유가 반등에 따른 일시적인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이다. 2분기에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늘고,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제재 완화로 이란산 원유의 생산량까지 늘어나면 유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겨울철이 끝나고 석유제품 수요가 감소하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해보다는 경영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국내외적인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는 한결 나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부에서도 1분기 실적을 상당히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유지만 기자 redpill@

이재용 부회장 갤S6 출시 앞두고 美 시장 점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 들어 세번째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달 2일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의 주요 거래선을 만나는 등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업계는 이 부회장의 이번 출장이 오는 10일 새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갤럭시S6 엣지'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대표적인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을 직접 챙기려는 행보로 풀이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S6, 갤럭시S6 엣지는 전작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AT&T, T모바일, 스프린트 등 주요 이동통신사를 통해 예약판매를 시작한 후 초기 주문량이 '갤럭시S5'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은 2월 말 반도체 부문 경영진들과 미국 새너제이로 출국한데 이어 지난달 초에는 현지 주요 카드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삼성 페이' 확대를 위해 논의했다.

장효진 기자 js62@

대우조선 사장 추천 정성립
최대 과제는 '조직 추스르기'

해외 고객사 우려도 없애야



대우조선해양의 신임 사장으로 추천된 정성립(사진) STX조선해양 사장의 최대 과제는 조직 추스르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추천한 정 사장은 5월 말 대우조선해양의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에 오르게 된다.

그는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하고 산업은행을 거쳐 1981년 대우조선해양의 전신인 대우조선공업에 입사했다. 정 사장은 이 곳에서 영업담당 이사와 상무 등을 거친 뒤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지냈다.

정 사장이 대표이사에 오르면 흐트러진 조직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그 동안 차기 사장 선임 과정이 지연되면서 대우조선해양 내부에서는 줄 서기와 경쟁 임원 비방과 같은 투서가 난무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한 관계자는 "인선이 늦어지면서 사업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사장은 취임 직후 인사와 조직개편을 실시하며 조직을 다잡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선사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도 정 사장의 과제다. 해외 주요 고객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 선임이 늦어지면서 선박 건조가 차질없이 진행되는 지 여부를 우려해 왔다. 이에 따라 정 사장은 취임 직후 해외 고객과의 소통 행보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정 사장이 대우조선해양 대표에 오르는 데 있어 노조 변수는 남아있다. 노조는 지난달 "정치권 인사는 물론 대우조선 출신 외부 인사도 반대한다"며 정 사장의 이름도 거론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정 사장을 신임 대표로 추천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2020년 매출 1조 달성"

CJ헬스케어, 창립 1주년

"월드 클래스 신약을 출시, 오는 2020년에는 매출 1조의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나겠다."

곽달원 CJ헬스케어 대표가 지난 3일 창립 1주년을 맞아 충청북도 오송에 위치한 오송공장에서 개최한 창립기념 행사인 'CJ헬스케어 화합의 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CJ그룹의 제약 전문 계열사로 출범한 CJ헬스케어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CJ헬스케어는 빠르게 변화하는 제약산업의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사업의 전문성 제고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그룹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4월1일 공동대표인 김철하·곽달원 대표 체제로 출범했다.

CJ헬스케어는 출범 이후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적인 R&D로 개발 중인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신약인 'CJ-12420'은 지난해까지 성공적으로 임상 1·2상을 마쳤고, 이달부터 임상 3상을 진행한다.

강인효 기자 kangih@

LG전자, 中 프리미엄 TV시장 공략



LG전자는 세 번째 '괌윈Ⅲ TV'(모델명 UF8580)를 중국 시장에 본격 출시하며 현지 프리미엄TV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괌윈 TV 시리즈'는 중국에서 번영, 평안, 순조로움을 상징하는 '배(Ship)' 모양의 스탠드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3년 중국 시장에 처음 선보인 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LG전자 모델이 '괌윈Ⅲ TV'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구글 갑질에 '속수무책' 당하는 네이버

구글플레이서 마켓 앱 설치 12단계… 네이버앱스토어 진입 사실상 차단

"등록 거절은 불공정거래 행위"
구글 '개발자 배포 계약' 내세워

글로벌 모바일 시장의 포식자로 등극한 구글의 갑질에 네이버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구글의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네이버앱스토어의 진입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7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마켓 앱인 구글플레이에 네이버 등 다른 마켓 앱의 설치를 최대 10단계 이상 거치도록 설정해 앱의 진입을 막고 있다. 설치단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접근성을 애초부터 차단하려는 의도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구글은 이와 관련해 애초부터 '개발자 배포 계약'에 독소 조항을 두고 있다. 이 계약에는 '마켓 외부에서 안드로이드 기기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게임의 배포를 촉진하기 위한 상품을 배포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마켓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네이버앱스토어를 이용하려는 사용자는 설치부터 실행까지 최대 12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구글플레이는 '디바이스 안전을 위해 구글플레이에서 받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차단하도록 디바이스를 설정한다'라는 제한을 둬 네이버앱스토어의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구글플레이에서 네이버앱스토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허용하도록 별도로 체크해야만 한다"며 "심지어 똑같은 앱을 받더라도 선탑재 되지 않은 앱 마켓을 이용하려면 사용자가 기본 설정을 일일이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구글 행태에 대해 법위반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치 때문인지 구글의 국내 앱 마켓 영향력은 50%를 넘기며 절대적인 위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양창균 기자 yangck@

기아차 멕시코공장 부지에 12개 협력사 동반 입주

기아자동차 멕시코 공장에 12개 계열·협력사가 동반 입주할 예정이다.

7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가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 인근 페스케리아에 건설 중인 현지 공장 499만㎡(151만평)에 6개 계열사를 비롯한 12개 협력사가 동반 입주한다. 이들 협력사에 할당된 부지는 전체의 3분의 1 규모인 162만㎡(50만평)다.

이 부지에는 기아차 주공장과 현대모비스, 하이스코, 위아, 다이모스, 글로비스, 파워텍 등 6개 계열사 외에 성우하이텍, 대한솔루션, 한일이화, 동원금속, 동희, 세종공업 등 6개 비계열 협력사가 입주한다.

기아차는 내년 5월부터 이 공장에서 K3(현지명 포르테) 등을 생산해 멕시코 현지 뿐 아니라 북미 등에도 수출하는 양산체제에 들어간다.

김범근 기자 nova@

인천-부산 환승전용 내항기 운항
대한항공 늘리고 아시아나는 줄여

대한항공이 이달부터 '환승전용 내항기' 운항 횟수를 늘린다. 이는 탑승률 급감으로 아예 운항을 중단한 아시아나항공과 달리 지속적으로 탑승률이 증가하자 내린 조치다.

환승전용 내항기는 부산 김해공항과 인천 국제공항을 거쳐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를 위한 '부산-인천' 노선 전용 항공기다. 내항기를 이용객들은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단 한번의 탑승 수속만 거치면 인천 공항에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국제선 항공기로 환승할 수 있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8일부터 1일 운항 횟수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인천 출발편은 오후 2시 25분(월·화·수·금), 2시 40분(토)과 부산 출발편 오후 1시 30분(월·화·수·금), 1시 35분(토) 등 각 1회씩 추가키로 한 것.

이는 내항기 탑승률이 증가하면서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증편 운항을 결정한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대한항공 내항기 탑승률은 노선 취항 첫 해인 2012년 70%대에서 지난해에는 80%대로 상승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2월부터 부산-인천 내항기 운항을 중단했다. 아시아나는 매일 오전 중 1회만 운항하다 보니 다양한 시간대의 스케줄을 원하는 이용객이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 2012년 평균 탑승률은 46%를 기록했지만 2013년 32%, 지난해에는 28%로 2년 만에 18%포인트 하락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소비심리 악화와 규제로 역신장을 거듭하고 있는 대형마트가 집객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명맛집 유치와 전문식당 론칭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이마트 계열사 신세계푸드의 한식뷔페 전문식당인 올반.

백화점 대용량 제품?

불황이 바꾼 유통가 풍경

대형마트에 웬 맛집?

백화점 작년 매출 10년 만에 역신장
용량 늘린 화장품 1~3월 8.2% 늘어
롯데 빅마켓 킨텍스점 '식객촌' 운영
이마트도 한식전문 '올반' 개장 예정

매출 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 백화점에서는 가격을 내리고 용량을 늘린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가 하면, 대형마트는 지역 유명 맛집을 유치해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유도하고 있다. 업태 성격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지만, 매출 확대를 위한 업체들 간 경쟁은 눈물겨울 정도로 치열하다.

백화점의 불황형 마케팅은 이미 2~3년 전부터 시작됐다. 국내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역신장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 3월 매출 성장률이 -1%로 역신장을 기록했다.

화장품 소비 트렌드만 봐도 지독한 불황이 백화점을 어떻게 바꿨는지 알 수 있다. 일례로 올해 일반 잡화 부문의 판매가 맥을 못추는 반면, 가격을 내리고 용량을 늘린 대용량 화장품은 불티나게 팔렸다.

6일 신세계백화점이 올해(1~3월) 화장품이 속해 있는 잡화 매출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잡화 장르 전체 실적은 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화장품 장르는 전년 대비 8.2%의 매출 신장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대용량 화장품이 눈에 띈다.

대용량 화장품은 기존에 판매하는 화장품보다 용량은 두 배가량 늘렸지만, 같은 제품을 두개 사는 것보다 평균 17%에서 최대 40%까지 저렴하다. 대용량 화장품은 2010년대 경기침체와 맞물려 주목받기 시작한 대표적인 '불황 마케팅 상품'이다. 실제로 백화점의 매출이 주춤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태희 신세계 화장품 바이어는 "기본 용량보다 저렴한 대용량을 구매해 가족끼리 나눠쓰거나 작은 용기에 덜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화장품을 찾는 알뜰족이 급증했다"며 "화장품 매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신음하는 대형마트는 때 아닌 맛집경쟁에 나섰다. 최저가를 내세우며 가격 전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집객효과를 높이기 위해 백화점에서 구사하던 유명 식당 유치 전략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점 '롯데 빅마켓'은 맛집에 대한 높은 고객 수요를 반영, 오는 9일부터 킨텍스점에서 유명 지역 맛집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푸드코트인 '식객촌(食客村)'을 운영한다.

이는 최근 수도권 점포를 중심으로 진행한 지역 유명 맛집 행사에서 조리식품 매출이 전년 대비 최대 3배(246%) 이상 증가한 결과를 즉시 반영한 것이다. 앞서 롯데마트는 '신갈점', '광복점', '거제점'에 시중 레스토랑 및 브런치 카페 등과 유사한 인테리어의 '프리미엄 푸드코트'를 출범시켰다.

최근 한식뷔페 열풍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이마트도 계열사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한식전문식당 '올반'을 이마트와 창고형 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개장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도 서울 월드컵점, 경기 북수원점 등 수도권 점포를 중심으로 '월드 델리' 코너를 마련하고 전 세계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

정선용 롯데마트 HMR(가정대체식)부문장은 "차별화된 먹거리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 대형마트 최초로 맛집 전문 푸드코트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한국인 입맛, 수입 소스·향신료에 푹~

세계 요리 직접 조리 매출 '쑥'
간장·고추장 등 감소와 대조적

대한민국 식탁이 수입 소스와 향신료에 푹 빠졌다.

7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올해 1~3월 수입 소스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7.5%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입 향신료 매출도 59.1% 뛰었다. 전통 조미료인 간장이 9.8%, 고추장이 10.2%, 된장이 6.5%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는 최근 '냉장고를 부탁해', '오늘 뭐 먹지' 등 세계 각국의 요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수입 조미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해외여행 증가와 외식으로 세계 음식에 대한 경험이 늘면서 가정에서도 직접 조리해 즐기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월부터 3월까지 롯데마트의 수입 소스 중 매출 1위를 차지한 제품은 '이금기 프리미엄 굴소스'로 전년 대비 102.5% 신장했다. 일본식 간장 소스인 '쯔유'가 91.2% 신장하며 2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미국의 'A1 스테이크 소스', 중국식 장류 '두반장' 등이 인기 상품에 올랐다. 요리의 맛과 시각을 더해주는 수입 향신료 매출 역시 크게 신장했다. 대표적인 수입 향신료인 바질(23.4%)과 월계수잎(10.7%)이 신장했고, 그간 잘 사용되지 않았던 피클링 스파이스(80.4%), 파슬리(97.8%) 등도 큰 폭의 신장세를 보였다.

롯데마트 수입 소스 인기 순위
(1~3월 누계 매출 기준)

2014년 순위	상품명(국가)	2015년 상품명(국가)
1	펀 나쵸치즈소스(미국)	이금기 프리미엄 굴소스(중국)
2	수리 월남쌈소스(태국)	기꼬만 혼쯔유(일본)
3	하인즈 토마토 케찹(미국)	이금기 굴소스(중국)
4	몬 스위트칠리소스(태국)	A1 스테이크소스(미국)
5	피넛 월남쌈소스(태국)	하인즈 토마토 케찹(미국)
6	A1 스테이크소스(미국)	패밀리팜스 메이플시럽(캐나다)
7	판타이 피넛 월남쌈소스(태국)	몬 스위트 칠리소스(태국)
8	Prego 스파게티 소스(미국)	이금기 중화 두반장(중국)
9	알프레도 갈릭 소스(캐나다)	미쯔칸 2배 농축쯔유(일본)
10	알프레도 바질 소스(캐나다)	하인즈 클래시코 파스타 소스(미국)

수입 이색 소스와 향신료가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이와 궁합이 맞는 관련 요리 재료 상품들도 덩달아 매출 상승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품목으로 파스타 면이 59.1%, 버터가 31.0%, 수입 치즈가 38.5% 신장했다. 또 발사믹 소스와 어울리는 수입 채소인 아스파라거스(211.5%), 샐러리(42.2%), 비트(121.6%), 케일(91.3%)도 매출이 늘었다.

임현섭 롯데마트 조미MD(상품기획자)는 "최근 가정에서도 세계 요리를 직접 조리해 즐기는 수요가 늘며 수입 조미료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소비트렌드에 맞춰 관련 상품을 적극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예 기자 sysy@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 "전통시장 스타상품을 세계 히트 상품으로"

오늘 코엑스서 '우수상품 페어' 개최
발굴~해외진출 '국산의 힘 프로젝트'

"전통시장과 신세계가 협력해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겠습니다."(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신세계그룹이 전통시장판 '국산의 힘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시장 스타상품 발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신세계는 그 첫걸음으로 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소상공인 진흥공단과 함께 '전통시장 우수상품 페어'를 개최한다.

전통시장판 '국산의 힘 프로젝트'는 이마트가 국산 농수축산물 육성을 위해 시작한 '국산의 힘 프로젝트'를 전통시장의 다양한 먹거리로 확대한 것이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은 물론 그룹 내 모든 유통 채널로 넓히는 것이 목적이다.

신세계그룹은 '국산의 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굴부터 상품화, 시장 확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해 전통시장 먹거리를 스타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7일 삼성동 코엑스 소상공인 진흥공단과 함께 '전통시장 우수상품 페어'를 열고 국내 전통시장 우수 상품 중 상품성이 있는 상품을 발굴해 이를 '신규 브랜드'로 개발한다. 이들 상품은 이마트, 백화점 등 신세계그룹 전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해 '스타 상품'으로 육성한다. 이어 이마트 해외 점포는 물론 주요 해외 식품 박람회 출품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 해외 진출을 적극 꾀할 계획이다.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신세계그룹이 지난해 전통시장 내 신선식품 철수에 이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판 국산의 힘 프로젝트는 침체에 빠져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은 "국내 전통시장은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상품성이 높은 숨어 있는 스타상품이 많다"며 "전통시장과 신세계가 협력해 이런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세계적인 상품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과 전국상인연합회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70개 점포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직접 나서 100여개의 상품을 소개하고, 맛을 시연할 계획이다. 심사는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맡는다. 유명 요리사, 식품영양학 교수 등 식품 전문가, 유통학과 교수 등 시장 전문가, 한국소비자원,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 단체는 물론,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바이어 등이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우수상품은 상품성(맛·위생), 시장성(가격·마케팅), 디자인(포장·시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윤철규 기자 yoonck@



현대백화점, 패션&아트 캠페인

현대백화점은 창사 첫 브랜드 슬로건인 '패션&아트'를 발표하고 영국 유명 사진작가인 팀워커를 비주얼 디렉터로 영입했다. 현대백화점은 정기세일 동안 팀워커와 함께하는 '패션&아트' 캠페인을 열고 'F&A' 스티커 무료 증정과 유럽 아트 투어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한다. 모델들이 'F&A' 스티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강남4구' 재건축 이주 본격화… 전세난 막아라

수급불안땐 '500가구 이상'도 시기 조정

서울시 '이주대비 특별대책'

올해 부족 물량 6500가구 전망

2017년 돼야 '공급 〉 수요' 안정

심의 대상 2천가구서 대폭 확대

공공임대 3750가구 집중공급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단지 이주에 대비해 단지별 이주 시기를 조정하고 인접 지역 주택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올해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남4구는 재건축이 잇따라 추진돼 내년까지 공급이 부족하고 2017년이 돼야 주택 수급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강남4구의 공급 물량은 1만2000가구, 멸실 물량은 1만9000가구로 6500가구가 부족해 주변 지역의 전세가가 오를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주택시장이 더 불안하고, 강남4구 중에선 공급량과 멸실량의 격차가 가장 큰 강동구가 시장 불안도 가장 심할 것으로 봤다. 특히 강동구는 상반기 40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2972가구가 멸실된다. 게다가 하반기에도 878가구가 공급되지만 두 배가 넘는 1911가구가 멸실될 예정이다. 즉, 공급과 멸실의 격차에 의해 상반기 2567가구, 하반기 1033가구가 부족하다. 이 자치구에는 올해 3600가구가 부족한 셈이다.

이에 시는 강남4구 재건축 이주집중 대비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주택수급 불안이 계속되면 재건축 인가 신청 심의 때 이주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주택 수가 500가구를 넘는 정비구역은 재건축 인가 신청 때 서울시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조례 개정 전에는 2000가구 이상의 단지만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달 초 심의를 받은 둔촌주공아파트는 사업시행 인가 때는 실제 이주가 발생하지 않고, 관리 처분 인가까지 약 2년이 걸려 당장은 이주 시기 조정을 하지 않았지만 수급 불안이 계속되면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전세난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국토교통부)의 협조 아래 경기도와 주택 공급 정보를 일괄적으로 공유,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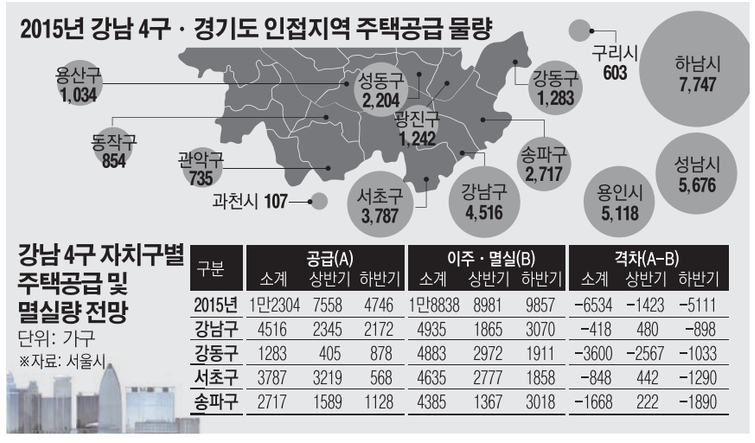
강남4구와 인접한 경기도 6개 도시의 주택 공급 물량은 약 2만8000가구로 예상돼 부족한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대표적 지역으로는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별내신도시가 꼽힌다.

시는 강남4구와 붙어 있는 광진·성동·용산·동작·관악구와 경기도 지역의 준공(예정) 주택 유형, 규모, 가구 수, 주소 등 정보를 분기별로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 공개한다.

아울러 대규모 이주가 임박한 단지에는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전·월세와 대출 정보를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3750가구 추가로 확보해 강남4구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중앙정부에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상반기부터 강동구 등 이주 수요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사업장별로 이주 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자치구 및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주 시기 조정은 주민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강남 4구 자치구별 주택공급 및 멸실량 전망

단위: 가구

※자료: 서울시

구분	공급(A)			이주 · 멸실(B)			격차(A-B)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2015년	1만2304	7558	4746	1만8838	8981	9857	-6534	-1423	-5111
강남구	4516	2345	2172	4935	1865	3070	-418	480	-898
강동구	1283	405	878	4883	2972	1911	-3600	-2567	-1033
서초구	3787	3219	568	4635	2777	1858	-848	442	-1290
송파구	2717	1589	1128	4385	1367	3018	-1668	222	-1890



이근포 한화건설 대표이사(앞줄 왼쪽)와 사미 알 아라지(Sami Al Araji) 이라크 NIC 의장(앞줄 오른쪽)이 한화건설 관계자와 이라크 정부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화건설의 21.2억 달러(약 2조3400억원) 규모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회기반시설공사 수주를 위한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건설

한화건설, 이라크서 수주 '잭팟'

비스마야 신도시 21억달러 추가

누적액 100억달러 돌파

한화그룹이 21억2000만 달러(약 2조3400만원) 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 소셜인프라(사회기반시설) 공사를 수주했다.

한화건설은 지난 5일 오후 4시(한국시간) 바그다드에 있는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별관에서 한화그룹 관계자와 이라크 현지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스마야 신도시 소셜인프라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식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금액 21억2000만 달러 중 10%인 2억1200만 달러를 선수금으로 수령(계약체결 이후 60일 이내)하게 되며, 공사진행 진척도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해, 공사대금 수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했다.

한화건설은 이번 수주를 통해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에서만 누적 공사 수주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의 선도자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이번 공사는 10만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와 연계된 추가 공사로, 신도시를 구성하는 필수 시설인 300여개 학교를 비롯한 병원, 경찰서, 소방서, 도로, 상하수도 등을 포함하는 사회기반시설 공사다.

약 60만명이 거주하게 될 비스마야 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이번 공사가 추진됐고, 공사 완료 시점인 2019년이 되면 내전 이후 현대화된 도시로 이라크의 발전된 위상을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한화건설은 기대했다.

이번 수주를 통해 한화건설은 향후 제2, 제3의 비스마야 수주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박태진 기자 tjpippo@

동탄2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차'

민간임대… 중소형 908가구

금강주택은 이달 중 동탄2신도시 A64 블록에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차'를 분양한다.

908가구로 조성되는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차는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로 전용면적 69㎡와 84㎡로 구성된다.

특히 이 단지는 동탄2신도시에서 드물었던 민간건설 임대아파트로도 관심이 높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주변 전세수요자 및 분양전환에 따른 시세차익과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이 눈여겨 볼 만 하다. 취득·재산세 걱정 없이 10년(최소 5년)간 임대로 살다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강주택은 이번 공급을 비롯해 올해 동탄2신도시 등 전국에 걸쳐 아파트 분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만 동탄2신도시에서 3개(A64·A19·A46)블록 등 전국적으로 70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차' 조감도.

금강주택 관계자는 "이번 공급물량은 단지주변에 교육 및 자연환경 등이 우수한 입지요건을 갖춘데다가 동탄2신도시 최초의 민간건설 임대아파트로서 기존 임대아파트와 차별화 된 마감재와 합리적인 분양가로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GS건설 "아파트 부지 직접 산다"

주택자체사업팀 신설 수익 강화

GS건설이 주택자체사업팀을 신설해 자체사업 역량 강화에 나선다.

GS건설은 지난 3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부문 주택영업담당 산하에 주택자체사업팀을 신설하고 민간택지 부지 매입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시행사가 별도로 있는 외주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을 주축으로 사업을 전개해 온 GS건설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자체사업팀을 신설해 직접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자체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신설된 주택자체사업팀은 전국적 조직망을 구축해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사업이 가능한 부지를 물색해 매입 업무를 하게 된다.



'미사강변 센트럴자이' 건설 현장.

GS건설은 향후 전국 각 지역의 토지주와 지역개발업자 및 관련업체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사업 추진모형을 개발, 회사의 수익성 확보는 물론 지역사회의 개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박태진 기자 tjpippo@

SK건설, 신탄금·신천횡단교 '올해의 토목구조물' 수상

SK건설이 신탄금대교와 국내 최초 모노레일 사장교인 신천횡단교가 대한토목학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토목구조물 은상과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신탄금대교는 SK건설이 지난해 5월 준공을 한 리플타입 아치교로 가금~칠금간 국지도(82호선) 내 총연장 580m, 폭 21.5m의 규모로 이뤄져 있다. 일반 아치교에 비해 강성이 크고 진동에 유리하며 가야금 선율을 형상화해 교각 아치를 곡선으로 설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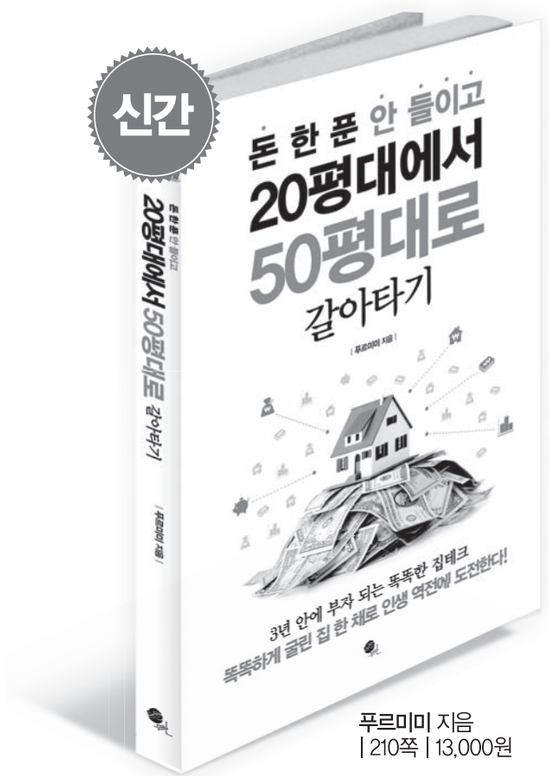
또 같은 해 12월 준공된 신천횡단교는 대구 중구 대봉동과 수성구 수성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04m, 주탑 높이 70.58m의 사장교다. 특허 기술이 적용된 모노레일 사장교로 디자인 뿐 아니라 모노레일 움직임에 따라 야간조명이 다양한 빛을 낸다.



신탄금대교의 야경.

SK건설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두 개 토목구조물이 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성과 편의성, 예술성을 두루 갖춘 친환경적 구조물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스마트폰에서 〈QR코드리더〉로 확인하세요.



푸르미미 지음
| 210쪽 | 13,000원

돈 한 푼 안 들이고
20평대에서 50평대로 갈아타기

3년 안에 부자 되는 똑똑한 집테크
똑똑하게 굴린 집 한 채로 인생 역전에 도전한다!

가계부를 쓰면서 문화생활비, 학원비
심지어 부모님 용돈을 줄이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절약'이 아닌 '투자'다!

당신이 속고 있었던 진짜 재테크 이야기

1.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2. 부도난 아파트가 돈이 된다
3. 부동산 상승기에는 다음에 살 아파트를 미리 사라
4. 투자의 승패는 사는 순간 결정 난다
5. 이사하는 횟수만큼 부도 증가한다
6. 돈은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불려나가는 것이다
7. 대출은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것이 좋다
8. 지금 당장 가계부를 찢어라
9. 분산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10. 같은 곳에 투자한다고 리스크가 같은 것은 아니다

무한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마크 필즈 CEO

"2020년 세계 판매 940만대" 다시 달리는 포드

필즈 CEO, 뉴욕국제오토쇼서 글로벌 전략 밝혀
中·印 등 인구대국 공략… 신형 링컨 콘티넨탈 공개

마크 필즈 포드자동차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2020년까지 글로벌 자동차 판매를 연간 940만대로 확대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발표했다. 이는 지금보다 45~55% 늘어난 수준이다.

필즈 CEO는 6일(현지시간) 뉴욕국제오토쇼 기간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목표를 밝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도 공개했다.

지난해 판매를 살펴보면 도요타가 1023만대로 1위, 폭스바겐이 1014만대로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제너럴모터스(GM)가 992만대로 3위에 올랐으며 르노닛산(847만대)과 현대·기아차(771만대)가 나란히 4·5위에 들었다. 포드는 632만대로 6위에 올랐다. 계획대로라면 포드는 세계 3위인 GM을 바짝 추격하게 된다.

필즈 CEO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시장으로 중국과 인도를 꼽았다. 인구대국이며 빠르게 발전하는 양대 신흥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을 얻겠다는 의도다. 회사는 지난주 아시아 럭셔리층을 공략하기 위한 신형 링컨 콘티넨탈을 공개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포드는 오는 2017년까지 현지 50개 도시에 60개 링컨 매장을 열 계획이다. 필즈 CEO는 "링컨같은 차를 구매하는 중국 소비자들은 주로 운전기사를 두고 뒷좌석에 앉는다"며 "이에 뒷좌석을 리무진같은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고 말했다.

포드는 인도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포드 인도법인은 지난달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33.62% 급증했다. 회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구자라트주 사난드에 있는 인도 제2공장에 10억 달러(약 1조850억원)를 투입해 생산시설을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인도 소비자들의 수요와 공략방법에 대한 조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즈 CEO는 "인도 소비자들은 차량 구매에 앞서 생산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면밀히 조사한다"며 "인도는 개발도상국이고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드는 인도 시장용 경차 모델인 '피고 어스파이어(Figo Aspire)'를 도입하기도 했다. 인도 시장에서 경차는 지난해 45% 비중을 차지했다. 회사는 현재 110만대인 인도 판매를 오는 2018년까지 160만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유럽도 포드에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필즈 CEO는 강조했다. 그는 "유럽시장이 지난 4~5년간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나 올해는 상황이 나아졌다"며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이에 우리도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비용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에서 포드는 미니밴에 주력한다. 지난주 유럽시장을 위한 4세대 갤럭시를 공개했다. 지난 1월 포드의 유럽 판매는 전년보다 9.8% 증가하고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야후파이낸스는 덧붙였다.

포드는 미국시장에서도 순풍이 예상된다. 회사는 올해 미국 내 승용차 판매가 170만~175만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회사는 미국시장에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美 애널리스트 직종 채용 "명문대 출신만 모십니다"

맥킨지 등 스펙 중시… 非아이비리그 출신 바늘구멍 인턴십



미국의 고소득 직종에서 이른바 '스펙' 위주의 채용이 중시되면서 일부 대학 졸업 예정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미국 대형금융기관과 경영 컨설팅 기업 같은 고소득 직종에서 스펙을 보고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특히 명문대학 출신자를 선호하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취업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올여름 금융기관과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선발하는 애널리스트직 인턴십 경쟁이 특히 치열하다. 이같은 일자리는 대학 졸업 후 정규직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가 실시하는 여름 투자은행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응시자의 2% 미만이다.

채용담당자들이 일반적으로 제외 대상 학교로 간주하는 페어필드와 라트거스, 노스이스턴 등 대학 학생들에겐 금융기관이나 경영 컨설팅 업체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다. 이 학교 학생들이 유명 금융기관에 들어가려면 간단한 전화 인터뷰와 추천을 받기 위해 수백 통의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뱅커들에게 전화하는 것도 필수다.

페어필드대학 3학년생인 매튜 에드가씨는 금융업계에서 여름 인턴 일자리를 얻기 위해 300통의 이메일을 보내고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다. 그는 코네티컷대학에서 개최하는 뉴욕 은행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몇 번이나 발품을 팔았다.

반면 프린스턴대학 3학년인 다윈 리씨는 온라인으로 응모해 대학에서 열린 취업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기업의 채용담당자들이 응시절차와 기업 문화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금융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의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대인 아이비리그 학교는 당연히 포함되며, 아이비리그는 아니어도 스탠퍼드대학 같은 명문대도 일부 포함된다. 명문대에서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기가 수월해 출신학교를 중시한다는 것이 채용담당자들의 입장이다.

맥킨지와 같은 컨설팅 회사에서는 채용담당자와 졸업생이 한 학기 동안 여러 차례 명문대학의 캠퍼스를 방문해 취업 설명회를 열고 학생들과 스킨십을 한다. 은행이나 컨설팅 기업의 채용담당자들은 여름 인턴직에 응모하는 학생 중 본채용 후보자 집단에 들어갈 학생을 공평하게 평가한다고 말한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발톱 드러낸 사우디… 亞 원유 수출값 인상

일부 산유지 지정학적 불안에 점유율 확보… 5월 인도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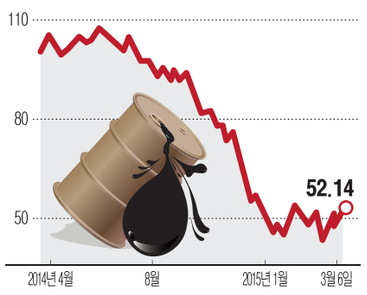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가 드디어 발톱을 드러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이자 석유수출국기구(OPEC) 수장국인 사우디가 아시아 지역 원유수출 가격을 인상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5일 사우디 국영석유업체인 아람코는 "아시아에 판매하는 아랍 경질유 5월 인도분 가격에 대한 할인폭을 배럴당 60센트로 결정했다"고 공식 성명에서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할인폭 축소 조치에 따라 경질유 가격은 4월보다 배럴당 30센트 상승하게 됐다. 앞서 지난 3월에 사우디는 아시아권 4월 인도분 판매 가격을 배럴당 1.40달러로 2012년 1월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한 바 있다.

반면 사우디는 중동산 원유 수요가 비교적 적은 북아메리카와 북서유럽 지역에서는 할인폭을 늘려 판매 가격을 각각 10센트와 20센트 인하했다.

사우디의 아시아권 수출 가격 인상 조치는 알리 알 나이미 사우디 석유장관이 최근 글로벌 원유 수급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 직후 시행됐다. 지난달 23일 사우디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 현장에서 알 나이미 석유장관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사우디는 사상 최고 수준인 하루 10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어 글로벌 원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WTI 가격 추이
단위: 배럴당 달러



올 들어 아람코를 비롯한 중동 석유업체들은 아시아에 판매하는 원유 가격을 일제히 인하한 바 있다. 이는 비OPEC 산유국의 원유 공급이 확대되자 사우디의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일부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원유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사우디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권에 대한 판매 가격을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에선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른 대(對)이란 경제제재 해제로 사우디의 원유 수출시장이 불안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유입되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당분간 원유 시장은 사우디가 지배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거래일 대비 3달러(6.11%) 급등한 배럴당 52.14달러로 마감하며 지난 2월 3일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애플워치, 스위스 출시 '브레이크'

시계업체 레오나르드, '애플' 명칭 특허 가져 상표권 분쟁

애플의 첫 웨어러블 기기인 애플워치가 스위스에서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출시 시기가 최소 연말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고 6일(현지시간) 미국 CNBC가 스위스 방송 RTS를 인용해 보도했다.

RTS에 따르면 애플은 스위스에서 애플워치를 출시할 때 애플 이미지나 단어를 쓸 수 없다. 스위스 고급 시계업체 '레오나르드(Leonard)'가 지난 1985년 스위스에서 '애플'이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 특허는 레오나르드를 보유한 윌리엄 론지가 갖고 있다. 해당 특허는 오는 12월 5일 만료된다.

애플워치는 팀 쿡 최고경영자(CEO) 체제 아래 애플이 처음으로 내놓는 신제품이다. 오는 24일 9개국에서 1차로 출시된다. 이에 앞서 오는 10일부터는 예약 접수가 시작된다. 애플워치 1차 출시국은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영국 홍콩 프랑스 독일 등으로 스위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스위스 시계업체 레오나르드가 지난 1985년 자국 특허청에 신청한 애플 상표권 도안.
출처 스위스 RTS

애플이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애플은 중국에서도 아이패드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지난 2012년 선전 프로뷰인터내셔널홀딩스에 6000만 달러(약 65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에어아시아, 이제 하와이도 간다

11월 쿠알라룸푸르-호놀룰루 노선… 美지역 첫 취항

말레이시아 항공사 에어아시아가 오는 11월 1일부터 하와이 노선을 개설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년 전 비용감축을 이유로 국제노선을 축소했으나 최근 유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다시 국제선을 확대한 것이다.

에어아시아의 하와이 쿠알라룸푸르와 호놀룰루 노선 취항은 말레이시아와 하와이 간의 첫 번째 직항 서비스라고 WJS는 설명했다. 가격은 미정이다. 에어아시아는 지난 2012년 유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으로 쿠알라룸푸르-런던·파리간 노선을 철회한 전례를 갖고 있다. 현재 아시아·호주·사우디 등 18개 도시의 노선만 보유하고 있다.

하와이는 미국 달러화 강세 속에서도 일본인을 비롯한 아시아 관광객들에게 여전히 인기있는 관광지로 꼽히고 있다. 이에 에어아시아가 아시아 지역에 기반을 둔 항공사인만큼 새로운 하와이 노선을 통해 이 같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에어아시아는 현재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를 근거지로 삼고 있다.

WSJ는 에어아시아가 하와이를 노선으로 택한 것은 저가비행사로서 흔하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저가비행사의 경우 꼭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하고, 단거리 비행을 통해 여객기 전환이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하와이 노선은 장거리 비행에 속해 이 같은 장점을 역행하기 때문이다.



한편, 장거리 비행에 대한 저가 항공사들의 행보는 엇갈리고 있다. 하와이안항공을 소유하고 있는 하와이안홀딩스는 최근 일본, 호주, 한국 등 해외 노선을 늘리고 있다. 전세기를 이용해 하와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지만 아시아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유럽 항공사 노르웨이항공은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에 걸쳐 있는 스칸디나비아에서 출발하는 미국, 아시아 노선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아일랜드의 라이언에어홀딩스는 아직 장거리노선을 재개할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투자를 유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벚꽃 만개한 도쿄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최근 벚꽃이 만개한 가로수길을 거닐며 벚꽃을 감상하고 있다. 한국보다 벚꽃이 일찍 피는 일본에서는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전국에서 각종 축제가 개최돼 많은 사람이 현지를 찾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sucks' '.porn'… 안티 도메인 쏟아진다

6월 1일 대중에 공개… 자극적 주소로 흥미 유발

애플, 야후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안티 도메인 등장에 긴장하고 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도메인 대행업체를 통해 생성된 '.sucks' 인터넷 주소가 오는 6월 1일부터 대중에 공개된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제는 이 도메인 주소에 애플, 야후 등 유명 기업은 물론, 할리우드 유명배우인 케빈 스페이시,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등 유명인의 이름도 등록됐다는 것이다. 'sucks'란 '엉망이다, 형편없다'라는 속어로 주로 상대방을 비하할 때 사용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자극적인 도메인 주소는 네티즌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치중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메인 주소에 'sucks'뿐만 아니라 '.porn(포르노)'과 같은 유해사이트 주소도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sucks' 도메인 주소로 'Apple.sucks', 'yahoo.sucks', 'Instagram.sucks', 'Wal-Mart.sucks', 'siri.sucks' 등이 등록됐다.

반면,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도메인 주소에서 벗어난 형식이 소외되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회구성원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CNBC는 "'cancer.sucks'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스타, 스타를 말하다 김우빈이 말하는 김우빈

"찌질한 '스물'… 진짜 우리 담았죠"

영화 '스물' 200만 관객 순항 중
신선한 재미, 배역 놓치기 싫었죠
동갑내기 출연배우들 모두 절친
장난치고 수다 떨며 즐겁게 촬영
영화·드라마 '운명적 만남' 기다려
관객·동료에 연기로 인정받고파

안녕하세요. 김우빈입니다. 영화 '스물'이 관객 200만 명을 돌파하며 승승장구 중이어서 감사해요. 매일 12시가 되면 관객 수를 확인해요. 다 같이 참여한 영화인 만큼 손해 보는 사람이 없으면 하죠. 그래서 제 지론은 '손익분기점만 넘자'인데 이번에 이뤄져서 다행이에요.

'스물'은 출연 결정하는 데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시나리오를 보면서 신선하기도 했고, 기존 청춘물과 달라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놓치면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에 대중이 기억하는 강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극중 치호의 모습이 약간 거부감도 들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지만 찌질한 치호로 봐주셔서 다행이에요. 이병헌 감독님도 선을 잘 지켜주셨어요. 15세 이상 관람 등급인 만큼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대사와 장면도 있었지만 귀엽고 유쾌하게 잘 풀어냈어요.

(이)준호, (강)하늘, (정)소민, (이)유비 모두 친구처럼 보이길 원했어요. 실제로도 다 동갑이었고 어느새 진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진짜 친구끼리 연기하니까 약속된 디렉션 안에서 즉흥적으로 연기해도 특별함이 있어 재밌었어요. 어떤 표현을 해도 다 받아주니까 더 좋은 그림이 나왔어요. 각자 서로의 스케줄을 소화하고 피곤한 상태인데도 같이 장난도 치고 수다도 떨면서 재밌게 촬영했어요.

실제로 제가 사람을 좋아해요. 선배님들 따르는 것도 좋아하죠. 장남이어서 형이 없었고, 초등학교 1~2학년 때 6학년 형들하고 놀곤 했어요. 부모님은 선배 대하는 법을 가르쳤고 하늘같이 모시라는 말도 했어요. 부모님께 가장 감사했던 것은 모델, 배우가 되겠다는 제 꿈을 반대하지 않고 응원해줬다는 점이에요. 지방에서 자랐고, 장남이었기 때문에 모델의 꿈을 말리고 싶었을 텐데도 반대 없이 응원해 주셨어요. 어렸을 때는 내성적이라서 사람들과 눈도 못 마주치고 인사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런 저에게 부모님의 응원은 대단한 힘이었어요.

'스물'은 '친구2' '기술자들'에 이어 세 번째 영화입니다. '상속자들'을 그리워하는 팬들이 드라마 출연을 물어봐 주세요. 저는 드라마, 영화 등 작품에 있어 선을 긋는 편도 아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드라마와 영화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드라마도 또 하고 싶어요. 운명적인 만남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의 스무 살은 정말 공부 열심히 했던 기억이에요. 중1 때부터 모델을 꿈꿨고, 모델학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했어요. 술자리도 1년에 4~5번밖에 안 갔어요. 밤마다 연습실을 빌려서 워킹 연습을 하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가 하면 잠도 안 자고 과제에 매진했어요. 패션모델 데뷔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컸기 때문에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흐르는 물길을 따라 지금 제 앞에 놓인 것에 최선을 다해야죠. 제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주셔서 조금 더 빨리 왔어요. 더 욕심 부리고 싶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공부해 관객과 동료 선배들에게 인정받는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글/최두선·사진/장세영 기자 sun@



누구와도 '호흡' 이 남자



김구라

거침없는 입담·강한 존재감
예능 공동MC로 최고 주가

김구라가 빼어난 시너지를 발휘해 조명받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 MC로서 그는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세바퀴', JTBC '썰전' 등에서 활동 중이다. 김구라는 신동엽, 유재석, 윤종신 등과 호흡 맞추는 매 프로그램마다 각기 다른 역량을 드러내고 있다.

김구라는 8년째 '라디오스타' MC를 맡아 김국진, 윤종신, 규현과 오랜 호흡을 자랑하고 있다. 때로는 냉정하고, 독하게 게스트를 압박하는 화법으로 존재감을 과시한 그다. 엉뚱한 개그를 하는 윤종신을 지적해 받아치는가 하면, 차분한 김국진을 자극해 웃음을 배가시키는 것도 그의 몫이다.

또, 김구라는 이성적인 매력을 앞세워 공동 MC로 활약하고 있다. 팝 등 대중음악에 마니아적 소양을 가진 그는 '라디오스타'에서 지식을 뽐낸다. '썰전'의 1, 2부를 모두 진행하는 김구라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논하는 강용석, 이철희 사이에서 균형감을 맞춘다. 박지윤, 이윤석, 허지웅 등과 연예계 사건, 사고와 트렌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는 2012년 위안부 관련한 과거 발언이 불거져 모든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복귀한 김구라는 시즌을 거듭하는 '세바퀴'에서 MC로서 입지를 굳혔다. 박미선 외에도 순발력 있고 재기 발랄한 신동엽, 묵직한 개성의 서장훈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파일럿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를 통해 유재석과 첫 호흡을 맞춰 안팎으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돋보인 유재석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루만졌다면, 김구라는 아들을 둔 부모로서 일반인 출연자의 입장을 헤아리거나 주관을 드러내 흥미 요소를 부각시켰다. SBS는 해당 방송을 정규 편성하는 것으로 확정 짓고 시간대를 조율 중이다.

이처럼 김구라는 공동 MC로서 대체하기 힘든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튜디오물이 한 축을 차지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흐름 속에서, 거침없는 입담과 강렬한 존재감으로 무장한 김구라의 역량은 남다르다. 각기 다른 캐릭터를 가진 신동엽, 유재석 등과도 어우러질 수 있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주관과 개성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모든이의 '힙합'

음악차트 상위권… 개그 프로와도 접목
'언프리티 랩스타' '쇼미더머니' 등 화제

올 들어 대중음악계는 힙합 바람이 거세다. 힙합을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이 등장하는가 하면 개그 프로그램도 힙합을 소재로 삼고 있다.

힙합 프로그램 Mnet '쇼미더머니'가 시즌4까지 제작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치타, 지민(AOA), 타이미, 릴샴, 키썸, 육지담, 제이스 등 여성 래퍼들이 출연해 경연을 펼친 '언프리티 랩스타'가 높은 관심 속에 지난 3월 26일 막을 내렸다. 매회 방송마다 화제와 논란이 일었다. 힙합을 소재로 한 패러디 개그 코너도 생겨났다. KBS '개그 콘서트'의 한 코너인 '힙합의 신'은 개그맨들이 프리 스타일 랩으로 개그와 음악을 접목해 웃음을 선사했다.

음반 차트에서도 힙합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3월 31일 멜론에서 지민-아이언이 부른 'Puss'는 2위, 치타-에일리가 노래한 '아무도 모르게'는 4위, 치타가 솔로로 부른 'Coma 07'은 7위, 아이언이 부른 'blu'는 8위, 키썸 산이 태완이 함께 부른 '슈퍼스타'는 18위, 지민-슬옹이 호흡 맞춘 '시작이 좋아 2015'는 19위를 차지했다. 엑소, 미쓰에이 가인 등 대형가수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힙합 음악은 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MC몽의 '사랑 범벅', 자이언티&크러쉬의 '그냥', 빈지노의 '어쩌라고', 매드클라운의 '화' 등도 음원 차트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강태규 대중음악평론가는 "힙합음악은 틀에 얽매이지 않은 특유의 직설적이고 솔직한 표현으로 젊은 세대에게 공감을 얻었다. 그들의 개성적인 삶을 힙합이 대변해 인기를 얻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성 래퍼들이 출연해 경연을 펼친 Mnet 힙합 프로그램 '언프리티 랩스타' 출연자들.

강승훈 기자 tarophine@

삼성그룹, 평창올림픽에 1000억 쏜다

현금 800억+IT·의류 지원키로
조양호 위원장 "천군만마 얻어"


조양호(왼쪽)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박성진(오른쪽) 삼성대외협력담당 사장이 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후원사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림픽 글로벌 파트너인 삼성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1000억원 규모를 후원키로 했다.

삼성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1000억원 규모의 공식 후원사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후원 금액은 현금 800억원과 현물 200억원어치다.

평창조직위는 2018년까지 프린터와 복합기 등 IT 제품을 현물로 후원받고 성화 봉송, 문화행사, 패럴림픽 등에서 현금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도 현금 후원에 참여하고 제일모직은 대회 운영에 필요한 의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글로벌 파트너(TOP)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부터 무선통신 분야 월드와이드 후원사로 참여했다. 지난해 8월에는 IOC와 재계약을 통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까지 톱 스폰서 후원 기간을 연장하면서 무선통신뿐 아니라 태블릿·노트북·데스크톱 등으로 후원 분야를 넓혔다.

이에 더해 한국 대표기업으로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자 로컬 후원사로서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삼성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도 3차례에 걸친 유치 과정에서 다각도로 지원했다.

박성진 삼성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힘을 보태게 됐다"며 "이 후원으로 모든 준비가 완벽하고 순조롭게 진행돼서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양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삼성이 평창 동계올림픽 로컬 후원사로 참여함에 따라 조직위는 천군만마를 얻게 됐다"며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사회적 기업의 소임을 다하고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삼성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삼성의 로컬 스폰서 참여로 평창조직위 후원 협약사는 삼성, 대한항공, KT, 영원아웃도어, 파고다어학원, 삼일회계법인 등 6곳으로 늘어났다. 평창조직위는 삼성에 앞서 이들 다섯 곳과 후원계약을 체결해 목표액인 8530억원의 41%를 달성했다.

평창조직위 측은 "삼성에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힘든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감사 드린다"면서 "금년까지 70%의 스폰서십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기업들에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청소년 희망보드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은 작품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청소년들의 미래 설계 고민 대학생 멘토와 함께 풀어요"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희망보드 프로젝트' 진행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충남 천안에 위치한 재능연수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70여명이 참가하는 '제9회 청소년 희망보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올해로 9회째 진행된 이 행사는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대학생 멘토와 함께 청소년들의 학업과 진로, 교우관계 등의 고민을 풀어보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참가자 모두가 각자의 비전을 직접 그려보는 '희망보드 제작', 야외활동으로 리더십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즈' 등이 있다. 각 프로그램은 토론을 통해 참가자 스스로가 고민하고 답을 찾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조현욱 미래에셋 사회공헌실 상무는 "2011년부터 약 500여명의 청소년들이 이 캠프에 참여해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공유하고 비전을 찾는 기회를 가졌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진취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

한화투자증권, 실버고객 위한 '시니어 패널' 운영

총 10명 모집… 6월까지 활동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수렴


위촉식 후 시니어 패널들이 권용관 부사장 외 Retail본부 임직원과 함께 밝은 얼굴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6일 노년층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니어 고객 패널'을 이달 중순부터 시범 운영한다. 지난 3일 여의도 한화투자증권 본사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의 '시니어 고객 패널' 제도는 노년층 투자자의 니즈를 해당 세대로부터 직접 듣고, 이를 적극 수렴해 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개인금융자산에서 노년층의 비중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선정된 '시니어 고객 패널'은 총 10명이며, 한화투자증권 내부 고객 5명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한 외부 참여자 5명으로 구성됐다. 만 60세 이상의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를 중심으로, 금융투자 및 사회생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선발됐다.

패널들은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활동하며, 팀을 구성해 TF 형태로 각기 다른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각 팀은 한화투자증권과 타사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한 뒤 장단점을 비교해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노년층을 위한 특화 상품 및 서비스 요구에 대한 지인들의 의견을 취합해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 리테일(Retail)본부 권용관 부사장은 "고령화로 인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실버 고객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해 나아갈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노년층 고객의 관점에서 한화투자증권의 서비스, 상품, 채널, 투자정보 등과 관련해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고 특화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실버 세대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시니어 고객 패널'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

신임 식약처장에 김승희씨
역대 2번째 여성 수장 올라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승희 전 식약처 차장이 발탁됐다. 이는 앞서 정승 전 처장의 4월 보궐선거 출마로 식약처장이 공석이 된 데 따른 후속 인사로,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청 시절까지 포함하면 역대 2번째로 여성이 식약처 수장에 올랐다.

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승희 전 식약처 차장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김승희 신임 처장은 1954년생 서울 출신으로 경기여고와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약학 석사 학위를, 미국 노틀댐대학교에서 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신임 처장은 1988년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독성부 일반독성과에서 보건연구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06년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한 이후 2009년에는 국립독성과학원장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지냈다. 이어 2011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을 역임했다.

강인효 기자 kangih@

호반건설, 건국대에 30억 '통큰 기부'



호반건설은 6일 교육 및 연구 지원에 써 달라며 건국대학교에 30억원 상당의 학교 용지와 건물,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이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클래식500에서 열린 인재양성과 대학교육발전을 위한 '호반건설-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기부약정 체결식'에서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가운데)과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왼쪽), 송희영 총장(오른쪽)이 기부 약정서에 서명했다.

김상열 회장은 "건국대학교가 이뤄낸 성과와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에 호반건설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며 "호반건설이 추구하는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을 바탕으로 두 기관이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9월에도 호반장학재단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해 건국대에 장학금 3억원을 전달했다. 3억원의 장학금은 건국대 건축, 토목, 부동산학과 장학생, 가계곤란 장학생, 대학원 연구지원 장학생 등 156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코트라 외투 옴부즈만에
김인철 이사장 위촉



코트라(KOTRA) 신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 김인철 한국금융투자자 보호재단 비상근 이사장(박사)이 위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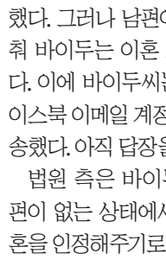
코트라는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김인철 박사를 제6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신임 옴부즈만은 2018년 4월까지 3년간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발굴과 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전임 옴부즈만이었던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퇴임한 후 지난해 8월부터 공석이었다.

그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재무부 장관 자문관, 인천발전연구원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직 등을 역임하는 등 국내외 경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김범근 기자 nova@

토요일 밤마다 파티하는 中 최고 스마트폰업체 '샤오미'

레이쥔의 성공비결은 '팬클럽' 관리?



샤오미의 레이쥔 최고경영자(CEO)가 톱스타 대접을 받고 있다.

레이쥔 CEO는 자사의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클럽파티를 주최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펼치는 등 팬클럽 키우기에 나섰다고 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샤오미 팬들은 레이쥔 CEO에게 앞다퉈 선물을 보내고 있으며, 그는 이들 선물을 베이징 본사에 전시하고 있다.

WSJ는 중국 남부 한 도시의 공장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오루이핑의 사례를 들어 팬들의 열기가 샤오미를 빠르게 중국 최고 스마트폰 업체로 부상시켰다고 분석했다.

WSJ 보도에 따르면 27세의 자오루이핑은 최근 토요일 저녁마다 도시 내 한 화려한 나이트클럽을 방문한다. 그는 "이전에는 클럽을 전혀 가본 적이 없다"며 "샤오미 VIP 손님 자격으로 클럽에서 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설립한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샤오미는 고객들을 파티에 초대해 특별한 느낌이 들게 하는 등 유효 적절한 마케팅으로 성공하고 있다고 WSJ는 풀이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행방불명 남편' 페북통해 이혼장 발송

美 법원, 궐석 재판으로 '이혼 인정'

남편이 행방불명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한 여성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혼 서류를 발송해 화제가 되고 있다.

아프리카 가나 출신인 간호사 엘라노라 바이두(26)씨는 최근 남편 빅토르 세나 블러드-즈라큐의 페이스북 이메일 계정으로 이혼서류를 보냈다고 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지난 2009년 뉴욕에서 혼인 신고를 한 바이두씨 커플은 결혼식을 가나 전통 혼례로 치르기로 했지만 남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남편이 결혼 직후 행방을 감춰 바이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이에 바이두씨는 고민 끝에 남편의 페이스북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이혼서류를 발송했다. 아직 답장을 받지는 못했다.

법원 측은 바이두씨의 사정을 듣고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인사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재정기획총괄과장 한경호

◆**국민권익위원회** 〈전보〉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권석원 △국방보훈민원과장 박민주

◆**통계청** 〈전보〉 ◇국장급 △경제통계국장 박성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보〉 (13일) ◇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강영태 △경제정책본부장 김경만 △회원지원본부장 이운형 △산업지원본부장 최윤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 박해철

◆**우리은행** 〈승진〉 ◇금융센터장 △판교벤처밸리 박기완 ◇지점장 △평촌스마트스퀘어 최근관 〈전보〉 ◇부장 △주택기금부 박완기 ◇부장대우 △주택기금부 정기식 △수신업무센터 박대용 △준법지원부 최도준 △준법지원부 곽명근 △준법지원부 민형식 △준법지원부 유근호 △준법지원부 이재옥 △준법지원부 문 석 △강북영업본부 권덕환 △서대문영업본부 이경희 △부산중부영업본부 고창규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종로 이성용 △미래(센터장) 권호동 △미래 안홍영 ◇금융센터 개인지점장 △본점영업부 김정천 △강남교보타워 구본희 △신사동 여기홍 △안양 정승규 △삼성타운 최우영 △여의도 권인박 △여의도중앙 정규찬 △한화 김한기 ◇지점장 △가든파이브 강석철 △금천구청 지한태 △삼풍 이진수 △상계역 김동현 △왕십리역 권기진 △의정부 김양진 △괴정동 조경우 △대연동 이상진 △범천동 신행진 △동울산 허종민

◆**KB투자증권** 〈승진〉 ◇이사 △ECM팀 김현준 ◇부장 △WM상품팀 유무상 △고객센터 이경태 △압구정PB센터 이환희 △Structured Finance2팀 김홍조 △투자금융팀 한민규 △HR팀 김광훈 △감사실 문윤환

◆**아이에이치큐** △iHQ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 권광호

◆**한국MSD** △항암사업부 영업·마케팅 총괄 상무 김지윤

부음

▲민영일(예비역 공군 준장)씨 별세, 민정식(다스플레이콤 부장)·일선(뉴헨델음악원 대표)·정선(강북삼성병원 임상병리실 과장)씨 부친상, 진용준(JM코퍼레이션 대표)·구윤모(셀트리온 이사)씨 장인상 = 6일, 강북삼성병원, 발인 8일 오전 11시, 02-2001-1092

▲이수영(사회복지법인 은광복지재단 이사장)씨 별세, 한순복(인천은광학교장)씨 남편상 = 6일, 인천은광학교, 발인 9일 오전 7시, 032-503-8932

▲조우섭(아주자산운용 대표이사)·권섭(신한생명 VM본부장)씨 모친상 = 6일, 경남 창녕 한성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055-532-1532

▲김관호(전 조흥은행 전무)씨 별세, 김영희(퍼시픽트랜스 뉴욕 사장)·영수(인하대 의과대학 교수)씨 부친상, 심상우(시노대표이사)·이원부(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씨 장인상 = 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8일 오전 6시, 02-2258-5940

▲한재호(에이쓰리시큐리티 대표)씨 모친상 = 6일, 나주시 영산포 제일병원 2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장지 나주시 선영, 061-334-1444

▲시정곤(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교수)·정민(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씨 부친상, 신태근(전 KT 지사장)씨 장인상, 이혜원(고려대 미디어문예창작학과 교수)씨 시부상 = 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8일 오전 5시 30분, 02-2227-7550

▲정기문(강원대 경제학과 교수)·기준(씨엘텍스 대표이사)씨 모친상, 김동원(고려대 교수)·김보기(제이원상사 대표)씨 장모상 = 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02-2258-5940

▲김호경(창원세아특수강 2제강 파트장)·호철(경남신문 정치부 차장)·현주(진주여중 교사)·혜숙(거창보건소)씨 모친상 = 6일,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신세계요양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055-232-0440

▲정의종(경인일보 서울정치팀 부장)씨 부친상 = 6일, 경상대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055-750-8651

CEO 칼럼

김 재 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블루오션' 중동을 다시 보자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권태균 전 아랍에미리트(UAE) 대사를 초청해 중동시장에 대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우리 농식품의 중동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중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잘 알다시피 이슬람교도들은 율법으로 인정된 것, 즉 할랄(halal) 식품만 먹는다.

중동, 이슬람, 아랍 등 다양한 단어가 중동으로 혼용된다. 중동(中東), 즉 Middle East는 지역 개념이다. 중동 지역은 원래 우리나라와 일본이 속한 극동지역(Far East),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등 유럽과 가까운 근동지역(Near East) 사이를 뜻한다. 아랍(Arab)은 민족적이고 종교적 개념이다. 아랍연맹 소속 22개 국가가 이에 속한다. 이슬람(Islam)은 종교적 개념이며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등 57개국이 이에 속한다. 최근에는 유럽의 시각에서 탈피해 객관적으로 중동을 재조명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중동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멀다. 문화나 종교, 정서적으로도 거리가 먼 곳이다. 식문화도 차이가 많다. 중동지역은 고온다습한 기후에 사막지대가 많아 농업이 발달하기 어렵다. 농산물은 밀, 올리브, 대추야자 등에 국한돼 소비되는 식품의 90% 정도를 유럽, 아프리카 등 해외에서 수입한다. 외식 식당은 대부분 서구화돼 있다.

이슬람권 식품시장 규모는 1조 달러 이상이며 세계 전체 식품시장의 약 18%를 차지한다. 무슬림은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인 17억명에 달하며 구매력도 커지고 있어 향후 이슬람권 식품시장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다.

지난해 알로에 음료, 어포 스낵, 홍삼, 담배, 녹차 등 우리 식품의 이슬람권 수출액은 약 7억 달러다. 무슬림은 할랄 인증식품만 먹지만, 외국인을 위해 일부 비할랄 음식도 허용된다. 할랄 인증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할랄 인증기관은 전 세계에 300여 개나 되고, 국가별로 인증요건도 다르다. 인증받기 위해서는 이슬람권 현지 기관의 실사도 거쳐야 한다. aT는 할랄 식품을 유망 시장으로 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 왔다. 한국이슬람중앙회(KMF)와 협력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3년 7월 말레이시아의 자킴(JAKIM)과 한국할랄이 동등성을 인정받았다. 국내에서 할랄 인증이 가능해짐으로써 중소 식품업체들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됐다. 앞으로도 우리 농식품의 중동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컨설팅, 전문가 초청 세미나, UAE 지사 설립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할랄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코셔(Kosher)' 인증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코셔는 유대교의 613가지 율법에 따라 가공·처리된 식품으로 할랄보다 더 복잡하고 엄격하다. 이슬람교도들은 코셔식품을 먹지만 유대교도들은 할랄 식품을 먹지 못한다. 영국에서는 유통되는 식품 중 40%가 코셔제품일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코셔 인증을 받은 식품이 많지 않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1970년대 '중동붐'을 재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대(對)중동 건설 수출로 우리 경제가 도약했듯이 식품 수출로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키자. 할랄, 코셔 등 중동 식품시장이 우리 농식품의 블루오션이다. 최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국, 유럽 등에서 종교를 떠나 할랄이나 코셔식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중동 식품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미국, 유럽시장 점유율도 높일 수 있다. '제2의 중동붐'으로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열자.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철순 칼럼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여기에서 거기로

지난해 이맘때 우리 사회에는 세월호가 없었다. 청명, 한식이었던 토, 일요일을 거치고 맞은 4월 7일 월요일은 신문의 날일 뿐이었다. 언론인들에게는 그랬다. 보건의료계 사람들에게는 보건의 날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9일이 지나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4월은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나는 빛나는 꿈의 계절'이 아니요, 접동새 울음 속에 4·19라는 미완의 혁명을 되새기는 달이 아니다. 이제는 그저 세월호의 달이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달라지고 나아진 것보다 더 나빠지거나 그대로인 게 많은 것 같다. 눈물과 원망이 커지고, 안전은 여전히 제자리이고, 벼슬을 구하고 맡기는 구조와 행태는 좀 더 음험하고 사악해졌다. 그리고 가라앉은 세월호는 여전히 거기에 그대로 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이다. 3월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독립성, 이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저버렸다. 특별조사위원들이 제안한 시행령안을 묵살한 채 위원회와 위원들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사무처 인력과 예산을 축소했다.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맡게 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거꾸로 특조위를 통제할 수 있게 했다. 더욱이 조사업무의 핵심인 조사1과장을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이 맡게 한 데다 조사 범위를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아니라 '정부 진상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한정했다. 꼬리(시행령)가 몸통(특별법)을 흔드는 격이라는 비판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입법예고기간도 문제다.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해수부가 그 기간을 10일로 줄임에 따라 4월 6일로 입법예고가 이미 끝났다.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입법인 경우 등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해 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시행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입법인가. 시행령안도, 입법예고기간도 납득하기 어렵다. 법제처장과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랬다면 법제처도 문제다.

언론인의 눈에는 특히 더 걸리는 게 있다. 진상규명국 산하 조사3과장의 임무 중 제1항은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에 대한 조사'다. 2항과 3항에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존'이 명시돼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제1항이다. 언론을 어떻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세월호 사건 이후 언론은 '전원 구조'라는 사고 당일의 어이없는 오보와 그 이후의 추정 보도·과열 경쟁, 선정적 기사로 인해 '기레기'라는 오명을 새로 얻게 됐다. 언론답지 않은 언론, 기자 같지 않은 기자들에 의해 언론은 신뢰 상실을 자초하면서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정부기구나 다름없는 조직이 언론의 행적을 조사하고 그 죄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주는 예수 고난주간과 부활절이었다. 부활미사에서 마지막으로 읽은 것은 마르코복음 16장 1~7절이었다.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세 여인은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놀랐다. 그때 흰 옷 입은 청년이 예수의 부활을 알리면서 예수가 갈릴리로 먼저 가니 거기서 만나자는 말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한다. 갈릴리는 예수가 주요 활동을 한 지역이며 제자들을 고른 곳이다. 33번의 이적 중 24번을 이곳에서 행했다. 갈릴리 거기로 가는 것은 세상을 밝히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활동하는 부활의 의미를 완성하는 일이다.

승객을 구하고 시신을 건지는 게 현안이었던 세월호 문제는 이제 선체 자체의 인양이 초점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적극 검토를 표명했지만, 배를 건져올리는 것에 국력과 지혜를 걸어야 한다. 그 배가 거기에서 여기로 오고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법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 진실이 인양돼야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다른 거기'로 가는 부활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활절을 지나고 맞은 신문의 날에 여기와 거기를 다시 생각한다.

fusedtree@

하루 한 생각 4월 7일

董狐直筆(동호직필) 죽음을 두려워 말고 사실대로 써라

춘추시대 진(晉)의 영공(靈公)은 폭군이었다. 대부(大夫) 조순(趙盾)이 자주 간하자 귀찮게 여긴 영공은 자객을 보내 그를 죽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순의 집에 잠입한 자객은 그의 인품에 반해 괴로워하다가 나무에 머리를 찧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영공이 조순을 술자리로 유인해 죽이려 했을 때에도 병사들이 미리 알고 달아나게 했다. 조순은 국경을 넘으려는 순간 영공이 살해당했다는 말을 듣고 되돌아왔다.

그런데 역사 기술을 담당한 태사(太史) 동호(董狐)가 '조순, 군주를 시해하다'라고 썼다. 조순이 항의하자 동호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직접 시해하지는 않았지만 대감은 대부로 국내에 있었고, 조정에 돌아와 범인을 처벌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감이 시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조순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이로부터 동호는 사관의 대명사가 됐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동호는 옛날의 훌륭한 사관이다. 법에 따라 굽힘없이 썼다. 조순은 옛날의 훌륭한 대부다. 법을 위해 부끄러운 이름을 뒤집어썼다. 아깝도다. 국경을 넘었더라면 악명을 면했을 텐데"[孔子曰 董狐古之良史也 書法不隱 趙宣子古之良大夫也 爲法受惡 惜也 越境乃免] 동호직필은 이처럼 권세에 아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을 가리킨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선공(宣公) 2년(BC 607년)조에 나온 이야기다.

4월 7일은 신문의 날. 올해 제59회 신문의 날 표어로는 '정보가 넘칠수록 신문은 더욱 돋보입니다'가 선정됐다. 지난해 8월 기자협회 50년 행사 때 서예가 하석 박원규씨는 '正言守中 直筆爲公'(정언수중 직필위공), 바른 말로 중심을 지키고 곧은 글로 공익을 위하라는 휘호를 주었다. 정직하고 깊이 있는 언론을 지향해야 한다.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온라인 와글와글



이케아 단기 계약직 시급 1만원…우리 기업도 배우세요~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의 경기 광명점 단기 계약직 시급이 1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매장 내 정규직 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모든 직원이 동등한 처우를 받는 것에 초점을 둔 이케아의 방침 때문이다.

네티즌은 "해외에서는 원래 계약직 고용보장이 약하니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은 게 정상이라더라", "이게 맞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규직을 깎는다는 논리는 한국에만 있는 것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는 국내 기업보다 외국 기업이 더 합리적인가요?", "이케아의 임금전략은 한국사회의 노동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세운 것 같네요" 등 대체로 응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은총 기자 kec@

오늘의 BAE 배국남 .com
www.baekn.com

13년 만에 새 앨범 내는 이문세



배국남닷컴은 6일 13년 만에 정규 15집 앨범 '뉴 디렉션'을 발매하는 이문세를 만났다. 이문세는 이날 기자들을 위한 음악감상회에서 '그대 내 사람이죠' '그녀가 온다' '무대' 등 신곡들을 들려줬다. 특히, 나얼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봄바람'은 밴드와 호흡을 맞춰, 200여명의 관객을 열광케 했다. 이문세는 "새 앨범을 발매하기 직전엔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한다. 앨범 발매를 앞두고 전문가인 여러분에게 곡을 들려 드리고 냉정한 평가를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뉴 디렉션'의 의미는 새로운 음악의 시작이다.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도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음악 작업을 계속했다. 나 역시 앞으로도 머무르지 않고 변화된 음악, 새로운 음악을 들려 드리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또 이문세는 '사랑 그렇게 보내네'라는 곡은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며 불렀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곡을 쓴 정미선 작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가사를 썼다고 했다. 난 노래를 부를 때 부모의 죽음, 친한 친구의 죽음을 떠올렸지만 세월호 참사도 생각했다"며 "세월호 참사를 염두에 두고 부른 노래는 아니지만, 전혀 연관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 디렉션' 수록곡은 7일 온라인 음악사이트에 공개됐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



최종찬 칼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전 건설교통부 장관

우리나라에서 골프란 무엇인가

골프는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여자 골프선수는 사실상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승할 때마다 수많은 국민이 환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골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골프는 사치와 부패, 로비(lobby)의 심벌로 여겨졌다. 역대 정부가 공직기강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직자 골프 금지이다. 김영삼 정부 이래 역대 정부에서 공직자들의 골프는 규제 대상이었다. 현 정부도 공직자들의 골프가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공직자들의 골프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우리나라에서는 뉴스가 되고 있다.

때로는 골프가 사치스러운 운동을 넘어 가무음곡(歌舞音曲) 정도로 취급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충일에는 공직자들이 골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수많은 공직자가 현충일에 골프를 하였다고 징계를 받았다.

현충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가무음곡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골프는 가무음곡인 셈이다. 현충일에 등산하고 테니스하였다고 징계받은 공직자는 없다. 골프가 가무음곡이라 하면 왜 현충일에 공직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현충일에 기업인, 언론인 등 공직자 이외 사람들은 제한 없이 골프를 즐기고 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충일에 골프는 공직자에게는 가무음곡이고 비공직자에게는 스포츠인 것이다. 단속하는 논리가 분명치 않지만 해마다 현충일 골프 단속은 지속되고 있다.

논리야 어떻든 역대 정부가 공직자들의 골프 규제를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과거에는 골프가 비용이 많이 드는 사치스러운 운동이었다. 골프채 구입이나 한 라운드 경비가 보통의 공직자 봉급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사실상 자기 돈으로 골프 치는 공직자는 없었던 셈이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골프를 공직기강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은 일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골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즉, 골프가 일부 계층의 특수한 스포츠가 아니라 대중 스포츠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선 골프가 과거에 비해 대중화되었다. 대기업의 과장급 이상만 되어도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직접 운동을 하는 스포츠로서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어느 구기운동보다 더 많은 사람이 골프를 즐기고 있다. 1년에 내장객 연인원이 3300만명에 이른다. 더구나 다른 물가는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수의 증가로 그린피는 과거에 비해 오히려 떨어졌다. 골프는 더 이상 부유층만 즐기는 사치적인 운동이 아니다.

불법적인 뇌물이나 향응의 제공은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처럼 골프가 대중화된 시대에 골프만을 부정한 접대행위로 인식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앞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는 모두가 단속 대상이 되므로 골프만을 특별히 단속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급속한 노령화와 세계 경제의 침체 등으로 저성장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국내 수요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데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소비 부진을 가중시키고 있다. 골프를 아직도 사치적인 소비로 인식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는 다른 부동산에 비해 5~20배 높고 내장객에 대해서는 2만4000원의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금 등이 국내 골프비용을 비싸게 만들어 매년 연인원 200만명이 해외로 골프 치러 나가 연간 4조원 정도를 해외에서 소비하고 있다. 그중 절반만 국내 소비로 전환되면 2조원의 내수가 증가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유 있는 계층이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골프를 가무음곡이나 부정적인 접대의 대상으로 보는 비정상적인 인식에서 모든 국민이 즐기는 대중스포츠로 보는 정상적인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객석

김 남 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산업분석팀 연구위원

핀테크 물결과 닷컴버블의 유령



최근 핀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매체들은 해외 핀테크 업체들의 사례를 선보이며 핀테크 혁명이 가져올 금융시장의 변화와 함께 전통 금융업의 붕괴가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필자에게 닷컴버블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은 왜일까? 과거 닷컴기업들은 구글, 아마존 같은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이용자들의 행태 변화에 커다란 갭이 존재했을 뿐 아니라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속적인 수익모델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향후 금융업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 관련 규제를 빠르게 완화하고 있다.

높은 제도적 장벽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환경의 차이를 감안한 활성화 및 관련 규제 정비 노력이 더 중요하다. 사실 해외에서 잘 알려진 핀테크 기업들은 낮은 수수료와 수일씩 걸리는 이체 및 송금시간을 실시간으로 줄임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호응을 얻는 측면이 크다.

은행 간 계좌이체시스템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실시간으로 자행 및 타행 간 이체가 가능하다. 이러한 지급결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영국, 일본 등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단순히 핀테크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 거래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핀테크의 성공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공공성이 강조되어 있는 금융서비스에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투자와 시장 참여 등의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사용자들의 공정한 보상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기자수첩

황 윤 주 자본시장부/hyj@

어느 증권사의 만우절 거짓말



"선배, A증권사에 기자실 생겼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A증권사를 담당하던 후배 기자가 지난 1일 새로운 기자실이 생겼다며 증권부 선배들에게 보고했다. 홍보 담당자가 기자실을 만들었다며 출입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돌렸다는 것이다. 한 선배는 후배 기자에게 "앞으로 거래소 출입하지 말고, 차장한테 보고하고 당분간 A증권사로 출근해"라는 조언까지 건넸다.

다른 매체에서는 A증권사가 기자실을 만든다고 기사를 쓰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증권사는 최근 사명을 바꿔 새출발을 했기에 꽤 설득력 있게 들렸다. 기자실 신설은 사명 변경과 함께 대외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에서 활동하는 증권부 기자들 역시 출입할 수 있는 증권사가 늘어나 반겼다. 적지 않은 기자들이 A증권사의 소식에 들떴지만 이 모든 것이 해프닝으로 끝났다. 홍보 담당자의 '만우절'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다.

기자실을 만들었다며 보낸 장문의 쪽지를 자세히 보면 각 줄의 앞 글자에 만우절 거짓말이라는 메시지를 숨겨놓았다. 가볍게 농을 치려던 의도와 달리 기자들은 그의 장난에 뿔이 났다.

프로정신이 있는 홍보 담당자라면 기자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이다. 증권사가 기자실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기자 방문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증권사가 주력하는 사업 소개, 임원 인사(특히 금융지주 계열의 증권사들), 실적 부진이나 상품 손실 등 안 좋은 소식부터 사회공헌 등 널리 알려야 할 이야기까지 언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반대로 기자 입장에서는 정보 채널이 확대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기자실과 관련해 장난을 쳤으니 기자들이 화를 낼 만하다.

기자들과 친해지는 것이 홍보 업무 중 하나라 장난을 치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자실을 만우절 장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홍보 담당자가 기자실의 목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껴져 씁쓸할 뿐이다.

오예린의 어퍼컷

문화부 기자

국가직무능력표준, 취준생의 복면?



학벌, 학점, 토익점수, 어학연수, 자격증, 봉사활동, 인턴, 수상경력은 취업준비생들이 이른바 '스펙 8종 세트'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남들이 모두 가진 스펙에 뒤지지 않기 위해 값비싼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바쁜 시간을 쪼개 억지로 봉사활동도 한다.

최근 이러한 스펙 중심 채용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기업에서 실무 능력이나 잠재력을 중시하는 이른바 '탈스펙' 바람이 일고 있다. 공개오디션, 자기PR, 소셜리쿠르팅 등 이름조차 생소한 전형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나이·성별·학력·장애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을 실시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취업준비생 중에서는 '탈스펙'을 반기는 이들은 드물다. 그동안 성적 중심의 스펙을 준비해왔던 취업준비생들에게 이러한 탈스펙은 또 하나의 스펙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독특한 경험과 직무 관련 인턴 등이 중요해지면서 또 다시 유리한 스펙을 쌓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일부 취업준비생들은 '탈스펙' 열풍에 절박한 심정으로 만만치 않은 비용을 내고 취업 전문 아카데미를 다니기도 한다. 취업난과 탈스펙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원가를 중심으로 취업 전문 학원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취업학원은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맞춤 프로그램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까지 코칭해주는 것은 물론 시사·교양 등 직무 적성검사와 관련한 수업도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에 맞는 옷차림과 말투, 표정까지 지도하는 이미지 메이킹 수업도 진행한다.

5일 첫 방송을 한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은 복면으로 철저히 모습을 가린 스타들이 나이, 신분, 직종 등 계급장을 떼고 오로지 가창력으로만 실력을 겨루는 음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연출을 맡은 민철기 감독은 "'풍부하고 다양한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이 편견이 없는 상태에서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다. 그래서 복면을 통해 아무 편견 없이 계급장을 떼고 오로지 가창력으로만 평가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복면가왕'은 복면으로 출연자들의 나이, 외모, 신분, 직종 등을 가리고 오로지 노래를 부를 때의 목소리와 가창력으로만 출연자를 평가할 수 있다. 탈스펙 채용의 기준들이 과연 다른 스펙을 배제하고 오로지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복면'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탈스펙 채용은 오로지 본질적인 직무 능력만을 보고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제대로 된 '복면'을 갖추지 않는다면 절대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 결국 탈스펙은 스펙의 상향 평준화만 초래하는 또 다른 스펙일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올해 130개 공기업 등에서 3000명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통해 채용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정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표준이다. NCS가 학력중심 사회에서 능력중심 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복면이 될 수 있을까. 부디 고스펙에 기반한 또 하나의 스펙 추가가 아니길 바란다.

yerin2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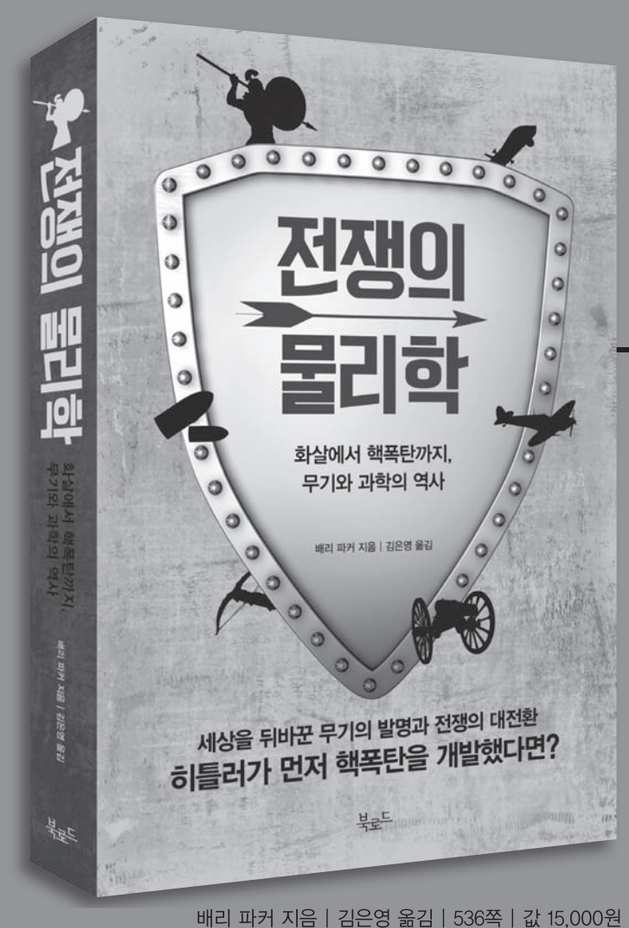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진팀 (02)799-2634
정치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사회팀 (02)799-2656 국제팀 (02)799-265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세상을 뒤바꾼 무기의 발명과 전쟁의 대전환
히틀러가 먼저 핵폭탄을 개발했다면?

세상을 뒤바꾼 신무기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
전쟁과 **무기**, **과학**과 **역사**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들을 위한 필독서!

이 책은 전쟁의 역사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조명한다. _벤저민 긴스버그(존스 홉킨스 대학 정치학과 교수, 《폭력의 가치》저자)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전쟁과 물리학의 다양한 원리들! _《워싱턴 타임스》
생기 넘치는 역사책. 저자 배리 파커의 능력이 복합적으로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_《미드웨스트 북 리뷰》
기초물리학 이론이 전쟁 무기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책 _《동아일보》
물리학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본 무기의 역사, 전쟁사 _《세계일보》

배리 파커 지음 | 김은영 옮김 | 536쪽 |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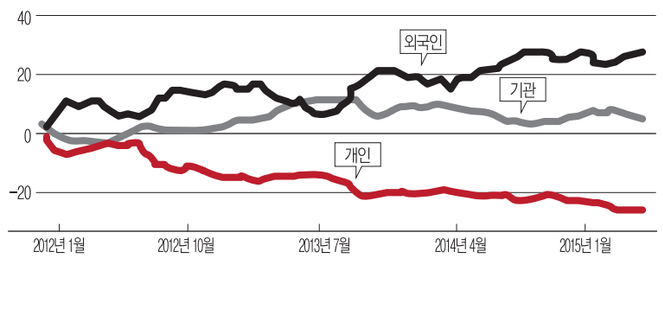
유가증권시장 1분기 결산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완연한 봄이다.
연초 한때 1800선을 오가며 투자자들을 불안감에 떨게 했던 코스피지수도 어느덧 2050선까지 회복하며 ‘박스피(박스권+코스피)’ 탈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분기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끈 것은 글로벌 유동성에 기댄 외국인들이었다.
유럽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 시행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주도의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 것이다.
종목별로는 중·소형주의 약진이 두드러진 모습이었다. 특히 내수부양 관련주와 의약품 등 테마주가 부각되는 모습이었다.
전문가들은 1분기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2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양호한 수급 상황이 펼쳐질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다 .
다만 1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치 벗은 코스피… 훨훨 날아 오르다

외국인 순매수 전환
(단위: 조원)
※ 출처: 금융투자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바이 코리아
유럽 양적완화로 자금유입 시총 1272조 사상 최대
외국인, 1분기 3조2000억원 순매수 2050선 견인

들뜨는 2분기
건설·의약 등 중·소형주 약진… 증권株 최대폭 상승
통신·운수·화학株 실적개선 전망… 2200선도 기대

◇“고맙다, 외국인”… 코스피, 연이은 신기록 행진 = 올해 초 국제유가 급락으로 장중 1870선까지 위협받으며 불안한 출발에 나섰던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에 힘입어 우상향의 흐름으로 1분기를 마무리했다.

특히 시가총액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거래대금과 분기별 상승폭 또한 2년여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신기록을 쏟아냈다.

7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코스피는 2041.03으로 장을 마치며 지난해 말 대비 125.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3년 3분기(133.6포인트) 이후 분기별 최대 상승폭이다.

지수 상승과 함께 삼성SDS, 제일모직 등 대형 우량주의 기업공개(IPO)가 잇따르면서 지난달 25일 유가증권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1272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거래도 활발해지는 모습이었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4조7000억원으로 2012년 1분기(5조9000억원)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

이처럼 코스피 시장이 활황세를 보인데는 외국인의 역할이 컸다. 지난해 9월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4000억원 가량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은 올해 2월 이후 순매수로 포지션을 전환하며 1분기 중 3조20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같은 기간 기관은 3조원, 개인이 1조4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선 것은 유럽중앙은행(ECB)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 시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월 유럽계 자금은 약 5100억원을 순매수하며 3개월만에 포지션 전환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외국인의 활약과 함께 1분기 유가증권시장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중형주와 소형주의 1분기 주가 상승률은 각각 15.7%, 20.7%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증시 활황에 힘입어 증권업종이 주목을 받았으며 건설·의약품·화학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권업종 지수가 3일 기준 2493.44를 기록해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1761.17) 대비 41.58% 뛰었다. 이는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지수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바이오주 열풍에 의약업종이 32.23% 이상 상승했으며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건설업도 27.7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화학(22.92%), 음식료품(22.21%), 기계(6.20%), 전기전자(5.92%), 유통업(4.68%), 전기가스업(4.61%), 금융업(0.89%)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에 오른다 vs 또 다시 박스피 회귀…“1분기 실적이 변수” = 1분기 따뜻한 봄을 맞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갖춰지면서 2분기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1분기 국내 상장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가 이어지면서 수급 측면에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유럽계 자금의 본격적인 이동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3월 중순 이후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관찰된 만큼 향후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조심스럽지만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이뤄지면서 코스피지수가 2011년 사상 최고치(2231.47) 근처까지 뛰어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 늘어날 전망”이라며 “코스피지수가 2200~2300선을 돌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지기호 LIG투자증권 센터장 또한 “2012~2014년에 코스피의 PBR(주가순자산비율) 평균이 1.10배인데 현재는 1.08배 수준”이라며 “올해 PBR가 1.10을 넘어선다고 가정할 때 코스피 상단 목표치로 2200선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이외 유로존까지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선진국 중심으로 국제유가 하락의 긍정적 영향이 반영될 향후 주식시장 전망은 낙관적”이라면서도 “달러 강세로 인해 수출주의 실적 악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2분기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1분기 실적이 무난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며 2분기 실적 개선 업종에 따른 업종별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늘어날 업종은 통신업(흑자전환), 운수창고(199.17%), 화학(65.00%), 전기가스(59.11%), 자동차 등 운수장비(51.80%)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식료품(34.63%), 의약품(26.06%), 증권(25.43%), 건설업(10.21%) 등 1분기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업종들의 실적 역시 호조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문선영 기자 moon@

시총순위 지각변동

갤S6 출격 ‘삼성전자우’ 4계단 껑충… 버핏 떠난 ‘포스코’ 4계단 미끌

〈9위→5위〉 〈5위→9위〉

올해 1분기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순위는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총 상위 20개 종목 중 15개 종목의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시총 상위 20개 종목 중 8개사는 올 초 대비 1분기 말 순위가 상승했다. 7개사는 하락했으며, 5개사만이 변동 없이 제 순위를 지켰다.

가장 시총 순위가 많이 오른 종목은 삼성전자우와 SK텔레콤이다. 이 종목은 각각 4계단씩 시총 순위가 상승했다.

삼성전자우는 1분기 초 9위에 불과했던 순위가 5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갤럭시S6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우상향하자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상향 곡선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우의 시총은 분기 초 23조1987억원에서 분기 말 25조2081억원으로 늘었다.

SK텔레콤 역시 12위였던 시총 순위가 8위로 오르며 시총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SK텔레콤의 시총 순위 상승에는 지난 1월 4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동시에 배당 확대 등의 주주친화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아모레퍼시픽의 시총 순위가 16위에서 13위로 3계단 뛰어올랐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화장품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며 사업적인 모멘텀과 함께 액면분할 결정에 따른 유동성 확대 기대감 등으로 주가가 오르며 시총 역시 증가했다.

이외에도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LG화학이 시총 순위가 상승했으며, LG생활건강과 KT&G는 1분기 상위 20위 내에 이름을 새로 올렸다.

반면 포스코와 삼성SDS는 시총 순위가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이다.

포스코는 업황 침체와 검찰 조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보유 주식 매도 등의 악재가 겹치며 순위가 5위에서 9위로 4계단 추락했다. 1분기 초 포스코의 시총은 24조7174억원이었으나 분기 말에는 21조3171억원으로 3조원이 넘게 빠졌다.

삼성SDS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애초 반영돼 있던 ‘경영권 승계 프리미엄’이 다소 희석되면서 순위가 6위에서 10위로 내려앉았다. 시총은 분기 초 24조6061억원에서 분기 말 20조6985억원으로 4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제일모직 역시 같은 이유로 순위가 10위에서 11위로 떨어졌다. 이외에도 삼성생명(11위→14위), 삼성화재(17위→19위) 또한 순위가 하락했다.

이 밖에도 기아자동차, KB금융, 현대글로비스, LG디스플레이가 시총이 줄어들었다.

올 1분기 시총 순위가 변동되지 않은 종목은 모두 5개사다. 삼성전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부동의 시총 1위 자리를 지켰다. 삼성전자의 시총은 1분기 초(1월 2일 기준) 195조9081억원이었으나 1분기 말(3월 31일 기준)에는 212조2583억원으로 증가했다. 시총이 200조원을 돌파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기존 16.35%에서 16.68%로 0.33%P 높아졌다.

현대자동차 역시 시총 2위 자리를 유지했다. 현대차는 1분기 초 37조2267억원의 시총을 기록했으나 분기 말에는 37조116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현대차는 한국전력 부지 매입으로 인한 부정적 요인이 지난해 4분기 주가에 반영된 이후 1분기에도 신차 모멘텀의 호재보다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발목을 잡으며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채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시총이 분기 초 34조7621억원에서 분기 말 33조1605억원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시총 상위 3위를 지켰다.

한국전력은 시총이 무려 2조1184억원이나 증가했으나 SK하이닉스에 밀려 시총 상위 5위를 그대로 기록했다. 반면 네이버는 시총이 1조9777억원 감소했지만 7위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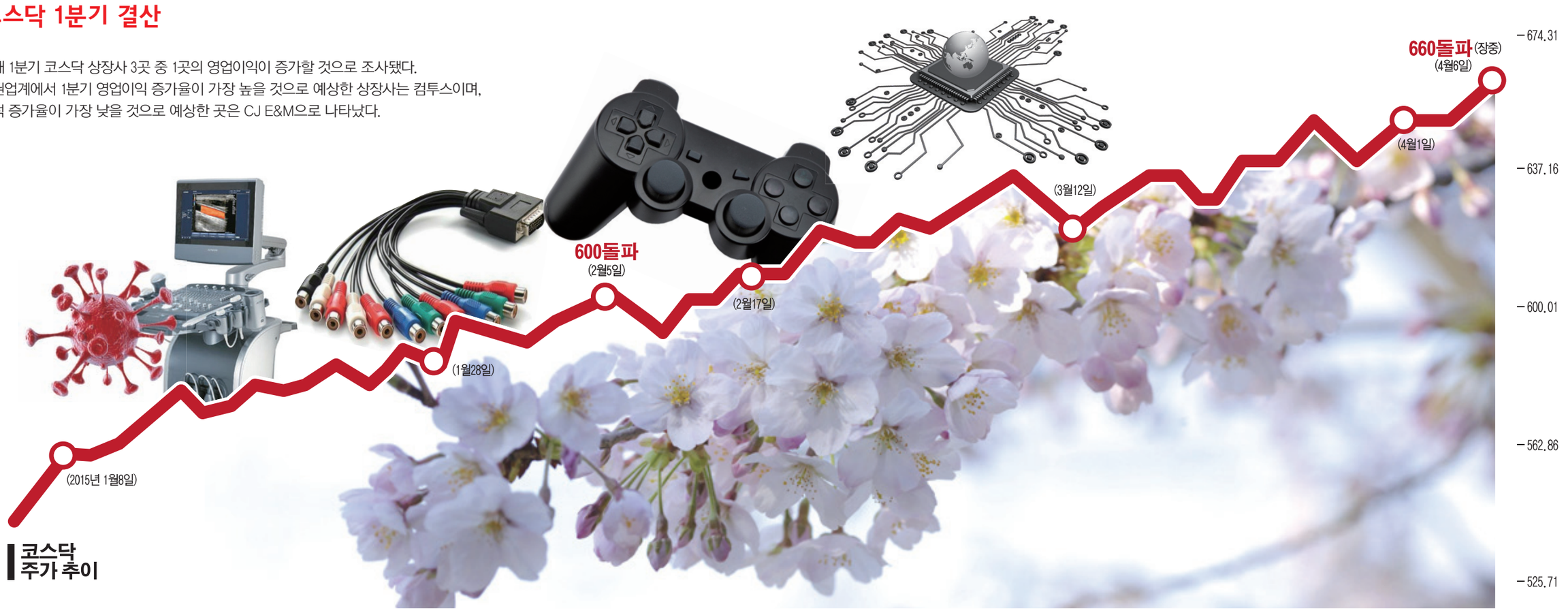
김유진 기자 eugene@

유가증권시장 2015년 1분기 시가총액 변동 추이
※ 출처: 한국거래소

1분기 초(1월 2일 기준)					1분기 말(3월 31일 기준)				
순위	종목명	현재가	시가총액(백만원)	시가총액 비중(%)	순위	종목명	현재가	시가총액(백만원)	시가총액 비중(%)
1	삼성전자	1,330,000	195,908,118	16.35	1	삼성전자	1,441,000	212,258,345	16.68
2	현대차	169,000	37,226,725	3.11	2	현대차	168,500	37,116,587	2.92
3	SK하이닉스	47,750	34,762,113	2.90	3	SK하이닉스	45,550	33,160,508	2.61
4	한국전력	42,700	27,411,866	2.29	4	한국전력	46,000	29,530,348	2.32
5	POSCO	283,500	24,717,468	2.06	5	삼성전자우	1,104,000	25,208,103	1.98
6	삼성에스디에스	318,000	24,606,140	2.05	6	현대모비스	246,500	23,995,262	1.89
7	NAVER	731,000	24,095,718	2.01	7	NAVER	671,000	22,117,958	1.74
8	현대모비스	239,500	23,313,855	1.95	8	SK텔레콤	272,500	22,003,206	1.73
9	삼성전자우	1,016,000	23,198,762	1.94	9	POSCO	244,500	21,317,181	1.68
10	제일모직	171,000	23,085,000	1.93	10	삼성에스디에스	267,500	20,698,562	1.63
11	삼성생명	115,000	23,000,000	1.92	11	제일모직	149,500	20,182,500	1.59
12	SK텔레콤	272,500	22,003,206	1.84	12	신한지주	41,950	19,892,673	1.56
13	기아차	52,300	21,200,503	1.77	13	아모레퍼시픽	3,355,000	19,612,823	1.54
14	신한지주	44,500	21,101,882	1.76	14	삼성생명	96,700	19,340,000	1.52
15	KB금융	36,000	13,908,661	1.16	15	기아차	45,200	18,322,423	1.44
16	아모레퍼시픽	2,330,000	13,620,828	1.14	16	KB금융	39,300	15,183,622	1.19
17	삼성화재	285,000	13,501,829	1.13	17	LG화학	226,000	14,977,269	1.18
18	LG화학	180,000	11,928,798	1.00	18	LG생활건강	841,000	13,134,904	1.03
19	현대글로비스	308,500	11,568,750	0.97	19	삼성화재	267,500	12,672,769	1.00
20	LG디스플레이	32,250	11,539,556	0.96	20	KT&G	88,700	12,177,844	0.96

코스닥 1분기 결산

올해 1분기 코스닥 상장사 3곳 중 1곳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업계에서 1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한 상장사는 컴투스이며,
실적 증가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한 곳은 CJ E&M으로 나타났다.



660 돌파 코스닥… 활짝 피어 오르다

상장사 3곳 중 1곳 영업익 증가 전망
컴투스 1932%… 실적개선 1위 예상
전자부품·SW·게임·의류 업종 '선전'
셀트리온 시총 1위 탈환… 다음 2위
OCI머티리얼즈·콜마비앤에이치 등 상위 20위권 안에 새롭게 이름 올려

◇올해 실적 개선 순위 변동… 컴투스 바닥에서 1위로 = 7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상장사 29곳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19개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은 증권사 3곳 이상으로부터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언급된 상장사를 기준으로 했다.

종목별로 보면 올해 1분기에는 컴투스(1932.50%), OCI머티리얼즈(1243.01%), 에스에프에이(304.98%), 다음카카오(286.22%), 모두투어(131.78%), KH바텍(125.34%), 덕산하이메탈(60.04%), 솔브레인(50.54%), 인터파크INT(46.74%), 하이록코리아(39.33%), 바텍(31.98%), 원익머트리얼즈(27.18%), 게임빌(26.69%), 원익IPS(22.46%), 실리콘웍스(18.10%), 오스템임플란트(16.29%), 메디톡스(15.97%), 기가레인(1.40%) 등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컴투스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32.50%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실적 개선 예상 종목 1위에 올랐다. 컴투스는 작년 1분기 영업이익 증가율 순위가 26위에 머물렀던 것과 대비된다. 컴투스의 실적 개선에는 신작 게임의 흥행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최찬석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서머너스워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1분기에도 미국, 한국 등의 TV 마케팅을 통해 지표와 매출액이 상승하는 추세"라며 "지난 2년간 모바일 게임 섹터는 과도한 성장 기대로 전 종목이 급등한 후 최근 소수 기업으로 압축되는 데, 대규모 마케팅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넷마블과 컴투스 같은 사업자가 더 유리해지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들은 크게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및 게임, 경기소비재, 의료 업종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올해 코스닥 랠리를 이끌었던 업종이다. 코스닥 지수 상승은 실적 개선이 뒷받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호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자부품은 삼성전자 갤럭시S6의 선전에 따라 부품 수혜 종목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의료 관련 종목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개방되면서 실적 가시화 전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CJ E&M(-71.65%), 서울반도체(-71.56%), 성광벤드(-43%), 오이솔루션(-41.64%), 파트론(-31.23%), 선데이토즈(26.50%), GS홈쇼핑(-8.12%), 네패스(-6.67%), 파라다이스(-1.15%)는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1분기 시총 지각변동… 셀트리온 1위 탈환 = 코스닥 상장사의 실적 기대감은 시가총액 순위 변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 1분기 셀트리온과 다음카카오는 시총 1위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OCI머티리얼즈, 콜마비앤에이치 등 상위 20위권에 새로 이름을 올린 종목도 생겨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총 상위 20개 종목 중 16개의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상위권에 이름을 새로 올린 종목과 순위가 상승한 종목은 각각 4개였다. 반면 순위가 하락한 종목은 8개로 조사됐다.

코스닥 시총 변화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1위 경쟁이다. 다음카카오와 셀트리온은 지난 3월 엎치락뒤치락하며 시총 다툼을 벌인 끝에 셀트리온이 1위를 재탈환했다.

순위가 오른 종목을 보면 내츄럴엔도텍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내츄럴엔도텍은 올초 18위에서 3월 말 9위에 오르며 9계단이나 뛰었다. 올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컴투스는 같은 기간 9위에서 6위로 3계단 상승했고, CJ E&M은 6위에서 4위로 2계단 올랐다. 반면 다음, 파라다이스, 메디톡스, CJ오쇼핑, 로엔, 서울반도체, 골프존, 한국토지신탁은 순위가 하락했다.

다음은 셀트리온과의 시총 경쟁에서 밀려 2위로 내려왔다. 파라다이스는 4위에서 5위로, 로엔은 13위에서 14위로, 골프존은 16위에서 17위로 한 계단씩 밀렸다. 메디톡스는 7위, 한국토지신탁은 19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서울반도체와 CJ오쇼핑은 4계단 떨어진 16위, CJ오쇼핑은 5계단 내려온 12위를 기록했다.

OCI머티리얼즈, 콜마비앤에이치, 바이로메드, 산성앨엔에스 4개 종목은 20위권에 새로 등장했다. 이들이 이름을 올리면서 원익IPS, 웹젠, 에스에프에이, 포스코켐텍 등은 순위 밖으로 밀렸다.

시총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난 와중에 동서(3위), 이오테크닉스(8위), GS홈쇼핑(10위), SK브로드밴드(11위)는 자리를 지켰다.

황윤주 기자 hyj@

코스닥 1분기 실적 전망 29곳

단위: 억원, %, 2015년 1분기 추정치(현재) ※종목 선정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1분기 실적을 전망한 상장사

종목명	매출액(증감률)	영업이익(증감률)	순이익(증감률)
심텍	1,728.67(19.06)	61.00(흑전)	22.00(흑전)
위메이드	411.54(3.46)	-47.00(적축)	-45.78(적축)
컴투스	908.88(331.21)	397.64(1932.50)	318.23(2904.82)
OCI머티리얼즈	634.63(44.89)	146.10(1243.01)	92.70(흑전)
에스에프에이	1,064.86(85.68)	112.32(304.98)	103.55(118.78)
다음카카오	2,480.59(95.22)	586.87(286.22)	476.50(471.24)
모두투어	491.54(21.78)	69.49(131.78)	56.70(471.24)
KH바텍	2,389.36(100.66)	196.69(125.34)	154.21(147.16)
덕산하이메탈	231.73(-4.57)	32.46(60.04)	36.20(105.14)
솔브레인	1,385.70(6.55)	154.28(50.54)	124.54(46.98)
인터파크INT	1,084.02(11.52)	61.58(46.74)	46.43(73.43)
하이록코리아	483.80(17.61)	115.86(39.33)	97.16(29.08)
바텍	482.67(16.52)	69.33(31.98)	51.50(8.37)
원익머트리얼즈	365.81(15.55)	68.05(27.18)	55.80(16.59)
게임빌	475.72(71.04)	47.70(26.69)	87.54(142.96)
원익IPS	1,806.12(27.16)	350.43(22.46)	270.93(19.12)
실리콘웍스	942.29(7.68)	83.00(18.10)	87.80(11.70)
오스템임플란트	577.03(4.54)	82.20(16.29)	52.83(-2.33)
메디톡스	155.41(16.79)	86.98(15.97)	76.32(16.20)
기가레인	256.75(10.72)	30.50(1.40)	25.00(-9.97)
파라다이스	1,792.50(5.10)	316.10(-1.15)	287.47(-43.62)
네패스	808.49(-12.84)	31.66(-6.67)	-3.99(적축)
GS홈쇼핑	2,832.60(11.04)	340.89(-8.12)	286.23(-6.31)
선데이토즈	309.58(-23.31)	128.62(-26.50)	106.54(-26.76)
파트론	2,114.83(-11.04)	194.00(-31.23)	161.95(-38.54)
오이솔루션	177.00(-11.24)	22.67(-41.64)	21.50(-42.35)
성광벤드	668.00(-16.85)	111.46(-43.00)	86.91(-44.96)
서울반도체	2,290.44(-7.65)	48.61(-71.56)	16.36(-86.36)
CJ E&M	3,007.06(-7.65)	32.74(-71.65)	39.83(흑전)

※출처: 에프앤가이드

'스탁프리미엄' 놓치지 마세요

"자회사 엔프라니, 中 화장품 시장 1위" 〈3월2일 보도〉

한국주철관, 87.29% 쑥…

"'천재 개발자' 민영환 부사장 퇴임 이유는?" 〈1월9일 보도〉

이스트소프트, 두달새 2배 훌쩍

지난 1분기(1월 2일~3월 31일) 본지 유료회원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스탁프리미엄(http://www.etoday.co.kr/stockpremium)은 코스닥과 중소형주의 상승세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스탁프리미엄(이하 SP)에 소개된 종목이 모두 상승세를 탄 것은 아니다.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경우도, 시큰둥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시장의 반응이 컸던 종목으로는 한국주철관, 이스트소프트, 근화제약, 에이블씨엔씨, GS건설, 옵트론텍, 부광약품, LG상사, 다음카카오, 씨그널정보통신, 한일진공, 트레이스, 솔라시아, 영인프론티어 등이 있다. 이들 종목은 SP 기사 게재 이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90% 가까이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코스닥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던 업종에 속한 종목들이 선전했다. 하지만 상승세에서 소외된 업종에서도 SP의 호재성 기사로 상승세를 기록한 종목도 다수 있었다.

특히 SP를 통해 상승세에 연료를 공급받은 종목은 한국주철관이다. 이투데이는 지난달 2일과 11일 '한국주철관 자회사 엔프라니, 알리바바서 압도적 1위… 흑자전환 성공'과 '한국주철관 자회사 엔프라니, 中 화장품 시장서 코팩 이어 비비크림도 1위' 기사를 연달아 게재했다. 첫 기사에는 투자자들이 반응하지 않았다. 주가가 오히려 힘을 잃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11일 두번째 기사가 나간 이후 앞선 기사와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며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8400원대였던 주가는 보도 당일 9600원까지 치솟았고, 12거래일째에는 장중 2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한국주철관은 스탁프리미엄 보도 이후 87.29%나 상승했다.

한국주철관의 경우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중국 소비주로 각광받으면서 탄력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스트소프트의 경우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세를 이끈 사례다. SP는 지난 1월 9일 '이스트소프트 전재 개발자 민영환 부사장 퇴임 이유는?' 이란 공시돋보기 기사를 통해 '알집' 개발자인 민영환 부사장을 북미 법인으로 보내며 해외 수출이나 퍼블리싱 관련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2만6000원대에서 시작한 주가는 보도 직후 상한가를 기록하며 2만9700원에 마감했다. 탄력을 받은 이스트소프트는 1월 30일 4만5500원을 기록했고 2월까지 조정을 거쳐 최근 5만5000원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달 사이 주가가 2배나 오른 것이다.

2월 10일 보도된 옵트론텍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E 시리즈의 이미지센서용 블루필터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주가가 36.75% 상승했다.

이밖에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근화제약이 자동차정비업 등 이종 사업을 털어내고 내실있는 사업 구조로 재편한다는 기사도 반응이 뜨거웠다. 보도 당일 1만4650원이었던 주가는 지난달 31일 2만3600원을 기록하며 6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파르나스호텔 매각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던 GS건설이 지난 1월 12일 매각을 재추진한다는 SP 기사 이후 40% 넘게 상승하기도 했다.

주가 상승률은 높지 않았지만 SP 보도 후 화제를 모은 기사도 있었다. 2월 27일 보도된 '신세계건설 고급 사우나업 진출… 복합쇼핑몰 속도 내나?' 기사 게재 후 신세계 레저사업 부문 기대감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지난 2월 17일 이후 상승세를 보였던 신세계건설 주가는 27일 SP 보도 이후 8거래일 상승세를 이어갔다. 3월 3일에는 장초반 7만4500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같은 날 작성된 '영인프런티어, 국내 유일 줄기세포 근간 '항체' 삼성 등 공급'이라는 기사도 보도 후 해당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SP 기사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해당 종목이 안고 있는 악재나 불안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스탁프리미엄은 1분기 동안 총 189건의 기사를 게재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SP 1분기 결산

기사 분류	기사 작성일	기사 제목	출고 당일 종가(원)	3월 31일 종가(원)	상승률
종목	3월2일	[SP]한국주철관 자회사 엔프라니, 알리바바서 압도적 1위.. 흑자전환 성공	9050	16950	87.29%
공시	1월9일	[SP]이스트소프트'천재 개발자'민영환 부사장 퇴임 이유는?	29700	52800	77.77%
종목	3월11일	[SP]한국주철관 자회사 엔프라니, 中 화장품 시장서 코팩 이어 비비크림도 1위	9600	16950	76.56%
공시	3월4일	[SP]실적 부진 근화제약, 자동차정비업 등 이종 사업 털어낸다	14650	23600	61.09%
공시	1월27일	[SP]아일랜드계 큰손, 에이블씨엔씨 다시 물타기 매수 시작하나	21850	31600	44.62%
m&a	1월12일	[SP]GS건설, 파르나스호텔 매각 재추진…CXC 등 2~3곳과 접촉	21200	30200	42.45%
종목	2월10일	[SP]옵트론텍, 삼성전자 갤럭시E모델 초박형 블루필터 독점 공급	5850	8000	36.75%
공시	2월11일	[SP]템플턴운용,이번엔 부광약품 '찜'	20300	26400	30.04%
공시	1월14일	[SP]LG상사, 범한판토스 물류 부문만 인수한다	30250	37650	24.46%
종목	2월2일	[SP]다음카카오, '지하철 네비게이션'앱 인수…O2O본격 시동	148900	115400	22.49%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 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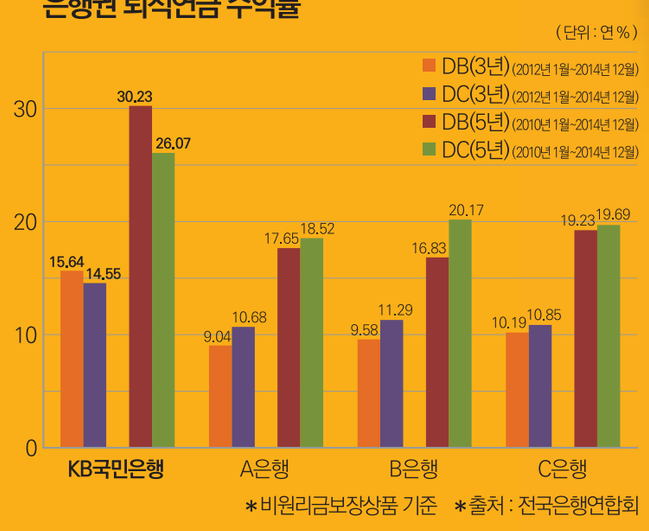
"대한민국 3천만 고객이 KB국민은행을 선택한 이유"

퇴직연금 수익률 은행권 1위
주식형 펀드 3년 수익률 20.2%* • 판매고 1위

고객님이 주신 믿음, 수익률로 보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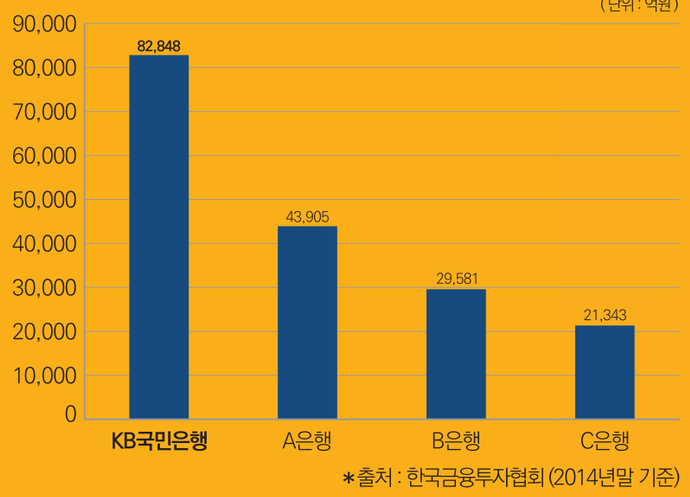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금융의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1등 수익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은행권 퇴직연금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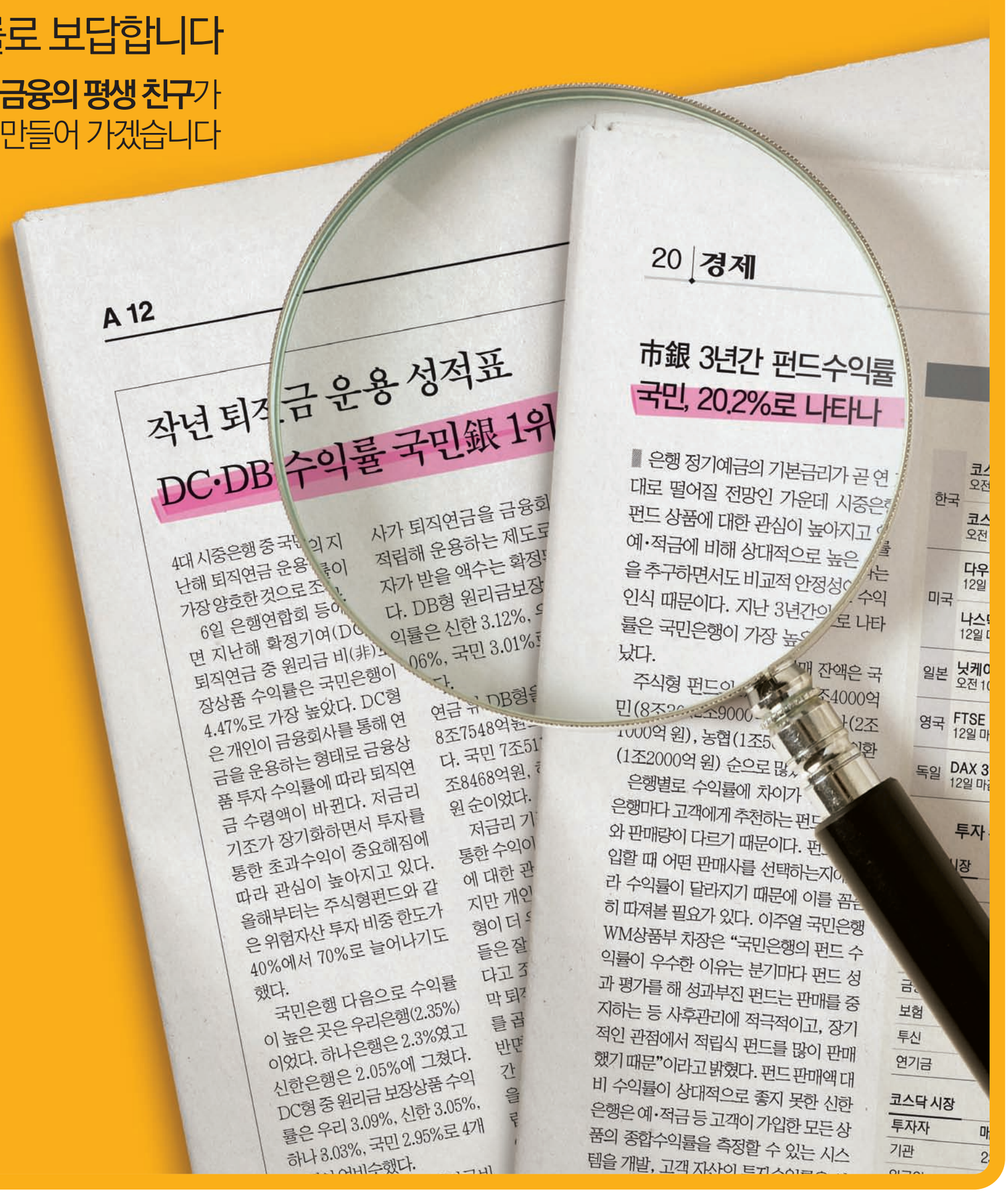
*비원리금보장상품 기준 *출처 :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 펀드 판매잔고



*출처 : 한국금융투자협회 (2014년말 기준)

* 동 수익률은 당행에서 판매하는 모든 주식형 펀드를 3년간 보유한 경우의 판매 잔고 가중 평균 수익률로서 개별고객의 수익률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2014년 한국금융투자협회 기준)



※ 퇴직연금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펀드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투자위험,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과거 운용 성과가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99-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191호 (2015.03.26)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 15-02084호 (2015.03.27~2016.03.26)

KB 국민은행

중소형사 기막힌 종목선정, 대형사 콧대 꺾었다

1분기 펀드 성적표

올 1분기 펀드시장 성과의 특징은 국내주식형은 '중소형 운용사들의 약진'해외주식형은 양적 완화에 힘입은 '유럽 펀드의 뒷심'후강퉁, 선강퉁 시대 수혜가 본격화된 '중국본토펀드의 강세'로 요약된다. 국내 펀드 자금 유출입 측면에서 기준금리 1% 시대가 진입함에 금리 이상의 안정적 수익률을 기록하는 국공채를 비롯해 국내주식 비중 40%에 달하는 중위험, 중수익 유형으로 자금이 집중됐다.

성과 돋보인 중소형사

수익률 최상위권에 피닉스·마이애셋·대신 등 포진
"성장주·소비재·바이오헬스케어 등 편입 전략 주효"
금리 영향… 'KB퇴직연금배당40자C' 3245억 유입

고공행진 유로·中펀드

선강퉁 개막 전… 선전주식 50% 담은 펀드 '선전'
삼성중국본토FOCUS자UH[주식]A 수익률 30.95%
ECB 양적완화 정책 훈풍 타고 유럽증시 상승세

◇ 국내주식형 성과, 대형사의 굴욕…중소형사 성과 독보적=국내 주식형펀드의 1분기 성과를 살펴보면 '대형사의 굴욕'과 '차별화된 운용능력을 지닌 중소형 운용사들의 재발견'이라고 부를 만하다.

7일 본지가 KG제로인에 의뢰해 올 1분기 국내주식형 펀드 수익률을 집계해 본 결과, 최상위 성과 TOP10에 진입한 운용사는 피닉스, 마이애셋, 대신, 현대인베스트먼트, 마이다스에셋, 한화, IBK자산운용 등 중소형사의 주식형펀드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성과 우수 유형 펀드별로는 중소형주 유형 펀드들과 바이오헬스케어펀드 등이 꼽힌다. 피닉스중소형액티브1[주식]ClassS(27.06%), 마이스타셀렉션[주식]__ClassA (26.65%), 대신성장중소형주[주식](Class A)(25.44%), 현대인베스트먼트로우프라이스장기소득공제자 1[주식](22.16%) 등이 동기간 국내주식형 유형 평균(6.65%)을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기준일:2015.1.2~3.31, 제로인).

이처럼 호실적을 이룬 배경에는 중소형 운용사들의 종목 선정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대신자산운용 관계자는 "기존 성장중소형주 펀드와 달리 대신중소형주펀드는 높은 재무 안정성과 대형주 대비 높은 이익성 등 달라진 중소형주의 위상에 주목해 향후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성장주에 투자한다"면서 "성장 측면에서 내수시장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중소기업, 글로벌 성장기업, 국내산업 구조와 다른 글로벌 산업 구조 변화에 집중하는 기업에 투자하는지 등을 주요 리서치 사항으로 봤고, 소비재와 헬스케어 포트폴리오를 편입한 점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현대인베스트먼트운용 관계자는 "로우 프라이스(Low Price)펀드라는 이름처럼 주가가 2만5000원 미만으로 저렴하나 저가주 특유의 초과 수익 창출의 용이성, 대형주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중소형주 효과에 주목한 것이 좋은 성과를 유지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자금 유출입 측면에서는 1% 금리시대로 인해 풍부해진 시중 유동성 효과에 힘입어 안정적 국공채 유형 펀드로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1분기 자금 순유입 펀드는 KB퇴직연금배당40자(채혼)C(3245억원), KB가치배당40자(채혼)C클래스(1684억원), KTB공모주분리과세하이일드[채혼]종류A(1607억원), NH-CA Allset모아모아30[채혼]ClassA(1595억원), 한화단기국공채(채권)종류C(1507억원), NH-CA Allset모아모아15[채혼]ClassA(1154억원), 미래에셋단기국공채공모주(채혼)종류A(1142억원) 순으로 1000억원 이상의 뭉칫돈을 흡수했다.

이 중 가장 큰 자금이 유입된 KB퇴직연금배당40자(채혼)C(3245억원)는 지난해 퇴직연금펀드 중 최상위 성과를 거뒀고 2006년 출시 이후 매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점이 어필했다는 설명이다.

이상진 한화자산운용 채널컨설팅팀장은 "1분기 당사의 '한화단기국공채펀드'를 비롯해 국공채 펀드들로 대거 자금이 유입된 것은 지난해 말부터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채권 투자 매력이 높아졌고, 단기 유동성 자금이 풍부해진 탓"이라며 "한화단기국공채 펀드는 듀레이션이 6개월로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줄인 데다, 연평균 3%의 성과를 기록해 예금 금리보다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 해외주식형은 中펀드, 유로펀드 고공질주=지난 1분기 대박 해외펀드는 중국펀드와 양적 완화 효과에 힘입은 유로펀드가 손꼽힌다.

특히 후강퉁(중국 상하이-홍콩 증시 간 교차거래)에 이어 올 하반기 선강퉁(선전-홍콩 증시 간 교차거래) 개막을 앞두고 선전 주식을 50% 이상 편입한 중국펀드의 선전이 돋보였다.

1분기 우수 해외펀드를 성과별로 살펴보면, 삼성중국본토중소형FOCUS자UH[주식]A(30.95%), 동부차이나본토자(H)[주식]ClassC-F(24.04%), 키움퓨처에너지1[주식]A1(22.19%), 알파에셋투모로우에너지자 1[주식]A(21.97%), 하나UBS중국내수성장[주식-재간접]ClassA(20.35%), 산은S&P글로벌클린에너지자[주식]C1(19.18%), KB스타유로인덱스자(주식-파생)A(19.16%) 등이다.

이동준 동부운용 글로벌운용팀장은 "중국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과거 저효율, 자본집약형, 인프라 중심 산업에서 환경, IT, 헬스케어 위주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변화 중이고 이 같은 섹터들이 중소형주가 선전A주에 많이 있다"며 "당사의 동부차이나본토펀드는 선강퉁 비중이 50%를 넘어 최근 혜택을 많이 입었다"고 말했다.

문경석 KB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상무는 "3월부터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유럽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 전망에 유럽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KB유로스타인덱스펀드는 유럽을 대표하는 우량주를 중심으로 국가 및 산업별로 분산투자해 안정성을 높여 성과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유로펀드와 중국펀드 독주 속에 1분기 에너지펀드의 선전도 눈에 띈다.

키움퓨처에너지펀드는 수년간의 공급 과잉 해소가 작년 말부터 나타난 급격한 중국 태양광 업체 호조가 성과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키움운용 관계자는 "특히 중국 Hanergy 박막발전 기업이 실적 호조 및 M&A 발표를 연달아 하면서 150%에 육박하는 주가 상승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자금유입 측면에선 유럽펀드와 중국펀드, 컨슈머펀드가 두드러졌다.

1분기 해외펀드 유입 순으로는 슈로더유로자A(주식)종류A(3010억원), 삼성중국본토중소형FOCUS자H[주식]__A(1623억원), 교보악사파워글로벌인덱스자(H)[주혼-파생]ClassA(1151억원), JP모간유럽대표자(H)(주식-재간접)C1(911억원), 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자 1(주식-재간접)종류A(658억원) 순이다.

슈로더유로펀드는 경기회복 수혜가 기대되는 임의소비재, 산업재 및 헬스케어 업종 비중을 지속적으로 초과 비중을 유지해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고 자금 유입도 긍정적 흐름을 보인다는 얘기다.

임덕진 미래에셋 PM본부장은 "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펀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아시아 소비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투자한다"며 "장기적 트렌드인 아시아 컨슈머섹터에 투자하는 펀드로 우수한 성과까지 입증되자 자금이 꾸준히 증가세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국내 주식형 펀드 1분기 성과 상위 펀드 ※ 출처: KG제로인
단위: %(기준일: 2015.4.1)

펀드명	연초 이후	1개월	6개월
피닉스중소형액티브 1[주식](Class S)	**27.06**	7.76	27.06
마이스타셀렉션[주식]Class A	**26.65**	8.39	13.43
대신성장중소형주[주식](Class A)	**25.44**	7.31	18.62
현대인베스트먼트로우프라이스장기소득공제자 1	**22.16**	4.54	14.70
마이다스미소중소형주(주식)A	**22.07**	7.13	24.09
한화하든챔피언자(주식)종류A	**21.71**	4.66	16.87
IBK중소형주코리아자[주식]C1	**21.47**	6.02	14.62
동부바이오헬스케어 1[주식]ClassA	**20.90**	4.55	18.75
NH-CA대한민국No.1중소형주[주식]Class A1	**19.49**	6.35	15.63
KB배당포커스자(주식)A Class	**18.30**	5.75	14.16

해외 주식형 펀드 1분기 성과 상위펀드 ※ 출처: KG제로인
단위: %(기준일: 2015.4.1)

펀드명	연초 이후	1개월	6개월
삼성중국본토중소형FOCUS자UH[주식]_C1	**30.95**	18.34	36.59
동부차이나본토자(H)[주식]ClassC-F	**24.04**	10.98	32.02
키움퓨처에너지 1[주식]A1	**22.19**	9.16	12.52
알파에셋투모로우에너지자 1[주식]A	**21.97**	8.15	5.08
도이치독일(주식-재간접) Cls A	**20.52**	5.36	28.51
하나UBS중국내수성장[주식-재간접]ClassA	**20.35**	12.53	47.48
산은S&P글로벌클린에너지자[주식]C 1	**19.18**	7.92	9.53
KB스타유로인덱스자(주식-파생)A	**19.16**	4.52	17.68
KB중국본토A주자(주식)A	**18.70**	13.87	39.82
슈로더유로자A(주식)종류A	**18.42**	3.74	21.62



2분기에도 해외펀드 뜬다

'모디노믹스' 인도·'저평가' 러시아 시장 노려볼 만

EPI, 인도 우량종목 추종… 유동성·수익성↑
예·적금 이탈 자금, 전략 배분상품 투자 추천

국내시장의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해외펀드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권사 상품개발팀은 중국과 유럽시장에 집중됐던 1분기 해외투자 전략에서 살짝 옆길로 눈을 돌려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노릴 것을 권한다.

◇중국보다 인도, 유럽보다 러시아…'샛길 투자' 노려보자=6일 심정한 이베스트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과장은 "중국과 유럽시장 성장은 2분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다만 해당 시장에 이미 많은 돈이 쏠려 있는 상황인 만큼 인도와 러시아 등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심 과장은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후강퉁, 선강퉁 등 자본시장 개방이 진행되면서 투자 매력이 높지만 시장 과열 우려도 나온다"며 "2분기에는 중국 다음으로 주목받는 신흥국인 인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양적완화 기조에서 신흥국으로 돈이 쏠리는 경향과 함께 지난해 당선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친기업적 성향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기는 요소라는 분석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위스덤트리 인도 어닝스 상장지수펀드(EPI)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안정적이면서도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다며 2분기 유망 펀드로 추천했다.

2분기 유망 상품별 전략

분류	상품명	전략
중국	동부차이나본토RQFII주식형펀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정책 수혜주와 성장 관련주에 집중 투자
	TIGER합성-차이나A레버리지 ETF	중국본토 상장종목 가운데 우량한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300 지수 추종
	삼성중국본토중소형FOCUS	중국 CSI500 지수에 편입된 유망 중소형주 집중 투자
이머징	웰스파고 이머징마켓 에쿼티 인컴 펀드	전 세계 신흥국의 고배당주식에 투자
	위스덤트리 인도 어닝스 ETF(EPI)	인도 주요 기업 편입된 위스덤트리 인도 어닝스 지수 기반
	JP모간글로벌이머징	아시아(55%), 동유럽(14%), 남미(12%), 아프리카(10%) 등 이머징 국가 투자
안정성 추구	글로벌 두루두루 Wrap	글로벌 자산배분 투자
	피델리티유럽자(주식-재간접)A	미국(약60%),유럽(약25%), 일본 등 선진국 위주로 투자
	KB미국S&P500	미국 S&P500 주가지수 선물과 추종 ETF에 투자

EPI는 위스덤트리 인도 어닝스 지수(WisdomTree India Earnings Index)를 따르는 상장지수펀드다. 위스덤트리 지수는 인도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큰 자산으로 구성돼 인도의 대표적 IT기업인 인포시스 등도 포함돼 있다. EPI의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거래량은 424만주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 중 유동성이 높은 축에 속한다.

심 과장은 "조금 더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면 러시아 시장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원유가 상승이 제한된 상황과 양적완화 등으로 유럽 시장이 1분기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2분기에는 가격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지리적으로 유럽과 가까우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러시아 시장을 노려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관련 상품으로는 러시아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편입한 마켓 벡터 러시아 상장지수펀드(RSX)를 추천했다. RSX 역시 최근 일평균 거래량이 641만주로 유동성이 높은 편이다.

◇저금리에 은행 탈출한 예금족…'안전' 해외투자 도전하세요=저금리에 은행 예·적금 상품에서 탈출한 예비 투자자들을 위해 안정성이 높은 상품이 각광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한석 KDB대우증권 상품개발실 과장은 "기존에 안정적 성향이 강하던 예·적금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에 은행을 박차고 나왔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안정성이 높은 글로벌 자산 및 전략 배분 상품 등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과장은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규모 대비 2% 수준으로 매우 낮다"며 "한국 내 자산 배분만으로는 한국 고유의 극단적 위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전략별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상품으로는 '글로벌 두루두루 Wrap'을 추천했다. 글로벌 두루두루는 위험성이 높은 자산의 투자 비중은 낮추고 성장성 있는 쪽은 높이는 형태의 배분 투자 상품으로 연 6~7% 수익을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채권 혼합형 상품 등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강화된 전략배분형 상품이 초보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유형으로 제시됐다.

김 과장은 "펀드가 아닌 직접 투자를 원하는 초보 투자자 중 중국 시장을 눈여겨본 경우라면 이미 많이 오른 상하이와 선전 증시가 아닌 홍콩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현재 3개 증시에 동시에 상장된 기업이라도 후강퉁과 선강퉁의 영향으로 홍콩 증시의 가격만 비교적 낮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그는 "2분기에는 홍콩 시장도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3개 시장이 비슷한 수준을 맞출 것으로 보여 투자 매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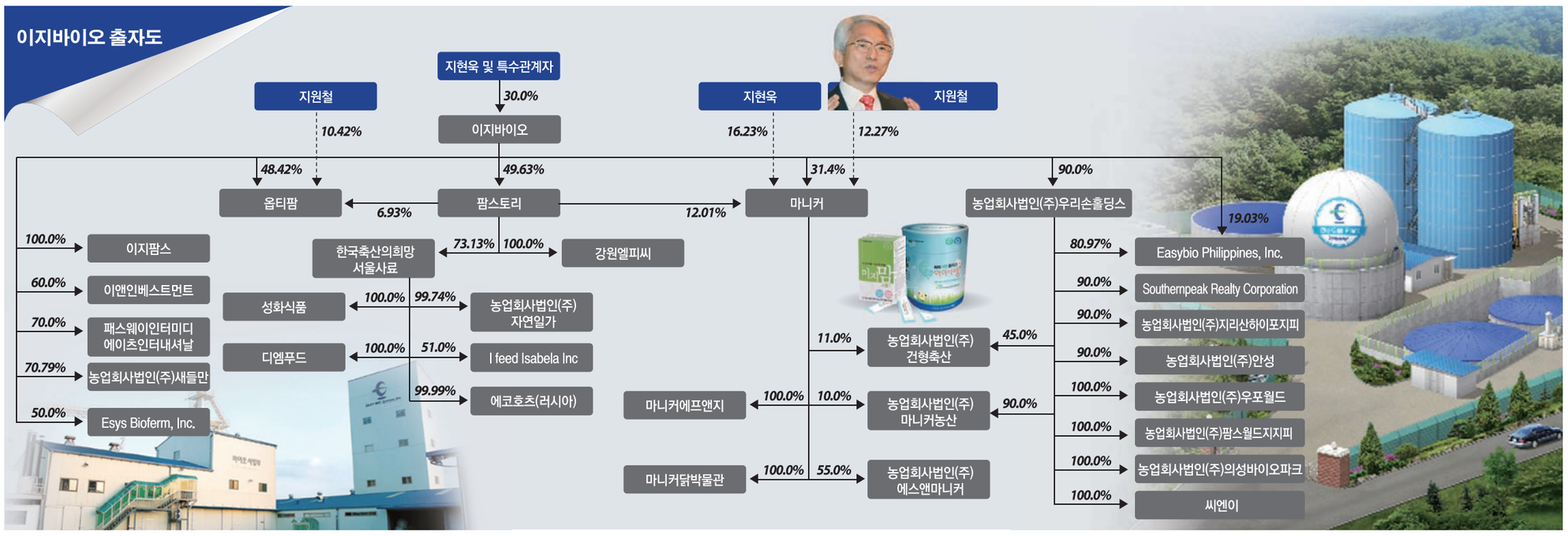
‘이지바이오’ 정점 수직계열…지현욱 외 특수관계인 30%

〈16.23%·최대주주〉



104 이지바이오그룹

이지바이오그룹은 1988년 설립된 사료첨가제 회사 이지시스템을 모태로 한다. 1999년 이지바이오시스템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그룹 형성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활발한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축산업의 사업을 넓히게 된다. 현재 곡물 경작부터 사료, 사료첨가제, 가축, 가금, 가축 진단 및 백신 등을 수직계열화한 국내 유일의 종합 농축산 기업이다.



창업주 지원철 회장은 ‘옵티팜’ 10.42%· ‘마니커’ 12.27% 보유
2000년대 M&A로 축산업 확장…주력사업 사료·육가공·가금
지 회장 父子, 상장사 투자 높은 수익… 증권가 큰손으로 부상

◇지원철 회장의 2세경영 시동… 최대주주 오른 아들 지현욱 이사 = 이지바이오그룹의 창업주는 지원철 이지바이오 대표이사 회장이다. 지원철 회장은 서울대 축산학과를 졸업한 후, 송암목장 대표로 3여년간 농장일을 익혔다. 이후 농사 사료업체인 퓨리나코리아에 입사해 기획과 신규 사업개발 등을 맡다가 창업했다. 특히 그는 발효사료, 사료첨가용 미생물제재 등 바이오 사업에 힘을 실으면서 바이오 벤처기업가로 주목받는다. 현재 이지바이오와 함께 S&마니커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이지바이오의 오너일가 지배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철 회장을 비롯해 부인 성순희 여사와 아들 지현욱 이사가 계열사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다. 지현욱 이사가 이지바이오의 최대주주로 16.23%를 갖고 있으며, 그를 비롯해 특수관계자가 30%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지주회사 이지바이오가 각 계열사들을 수직계열화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주요 계열사의 경우 오너가 지분을 갖고 있다. 지원철 회장은 옵티팜 10.42%, 마니커 12.27%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현욱 이사가 마니커 지분을 16.23% 갖고 있다.

이지바이오그룹은 몇 년간 M&A를 통한 몸집 키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3년 팜스토리, 서울사료를 인수해 사료사업(FB)에 진출했고, 2006년 강원LPC, 한국냉장을 인수해 육가공사업(LB)에도 발을 넓힌다. 2011년 마니커, 성화식품 등을 인수해 가금육사업(PB)으로 확장했다. 2007년 러시아 연해주 등에서 해외농업 개발을 시작했고, 최근 삼양사의 사료부문 사업(현 이지팜스)을 인수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다. 또한 축산 진단 및 백신 분야에서 1위 동물 바이오업체 옵티팜솔루션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지바이오의 자회사 옵티팜은 축산 진단 및 백신 분야 1위 동물바이오 기업이다. 2006년 7월 옵티팜솔루션센터로 시작해 9월 동물병원 개설 신고를 마쳤으며, 2008년 1월 줄기세포 연구기관인 ‘아비코아생명공학연구소’와 ‘메디피크코리아’ 등의 회사와 통합했다. 2008년 4월 동물약품 회사인 팜스케어를 흡수했다. 사업 영역은 크게 진단, R&D, SPF, 동물약품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지바이오그룹의 사업별 매출 비중은 사료사업 47%, 육가공사업 31%, 가금사업 2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료사업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육가공사업부와 가금사업부는 돈육시세와 육계시세에 따라 이익이 변동되는 구조다.

한편, 지원철 회장과 지현욱 이사 두 사람은 증권가에서 ‘큰손’으로 불려질 만큼 상장사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지바이오·팜스토리, 부채비율 높아 재무 위험 = 이지바이오그룹의 자산 규모는 2014년(39개 계열사) 기준 1조2419억원이며, 이지바이오·팜스토리·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등 3개 계열사의 자산 규모가 전체 39개 계열사의 87% 가량을 차지한다.

문제는 이들 주요 회사의 재무구조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자산 규모가 가장 큰 팜스토리는 부채비율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2013년 410%에서 지난해 636%로 증가했으며, 이지바이오도 지난 3년간 부채비율이 330%, 308%, 307%로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

이지바이오그룹의 계열사별 영업 실적은 양호한 수준이다. 주력 회사인 이지바이오는 지난해 매출 1조4803억원을, 영업이익 781억원을, 순이익 174억원을 기록했다. 흑자전환한 계열사들도 11개에 이른다. 대부분 농업회사 법인들로 ㈜새들만, ㈜우리손홀딩스, ㈜안성, ㈜팜스월드지지피, 문경양돈영농조합법인, 창진영농조합법인 등이 있다.

반면 손실 규모를 키우거나 적자로 돌아선 회사들도 있다. 매출액이 가장 큰 팜스토리는 지난해 적자전환했다. 지난해 매출 1조244억원, 영업이익 210억원, 순손실 33억원을 각각 나타냈다. 특히 그룹 내 유가증권 상장사 마니커는 인수 이래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영업손실까지 보이면서 성적표가 좋지 못하다. 지난해 매출 3399억원, 영업손실 90억원, 순손실 18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작년 단기차입금 3983억, 자기자본 대비 384%…
‘팜스토리’ 한해 벌어 이자내기도 빠듯

이지바이오그룹의 사료사업부문(FB) 계열사인 팜스토리가 차입금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무구조에 경고등이 드리워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팜스토리는 지난해 부채비율이 635.9%(연결재무제표 기준)로 적정 수준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같은 높은 부채총액에서 60%가량이 단기차입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팜스토리의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단기차입금 규모는 3983억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384.0%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단기차입금은 1년 이내에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성격을 지닌다. 즉, 단기 채무 변제가 필요한 빚이 팜스토리가 보유한 자본보다 300% 이상 많다는 것이다. 현재 이지바이오, 마니커 등 그룹 내 계열사들이 팜스토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고 있다.

문제는 팜스토리가 채무에 따른 이자 비용을 지급하기에도 빠듯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팜스토리의 이자보상배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1.19배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에는 0.90배를 보였다.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부채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 이 수치가 낮으면 기업의 이자지급 능력이 낮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1배 미만으로 나타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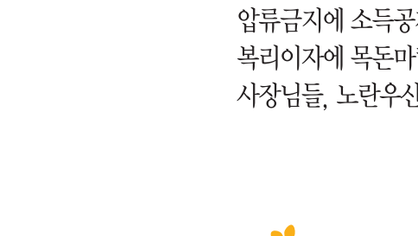
즉, 팜스토리는 지난해 겨우 1배를 넘어서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2013년도에는 이익을 내도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실정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팜스토리가 지난해 순손실 33억1100만원을 나타내면서 적자전환했다. 재무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 위험까지 겹친다면 계열사들끼리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그룹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양돈과 식육부문의 마진이 높아지며 큰 폭의 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나, 급격한 외형 성장에 따른 순차입금과 순이자비용이 높은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노란우산공제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공제

압류금지에 소득공제도 되고,
복리이자에 목돈마련 저축까지!
사장님들, 노란우산 챙기세요~

홍보대사 이보영

▶노란우산공제는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 혜택
· 납입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연 300만원 소득공제로 최고 125만원까지 절세가 됩니다.
·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 시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가입 후 2년간)

▶가입안내
· 가입자격 : 모든 소기업 소상공인
· 납입부금 :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 구비서류 : 청약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가입문의 1666-9988 / www.8899.or.kr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체국,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대구 · 부산 · 광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 노령 ·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유·무선 갠트리로봇 FA 선두주자

〈공장자동화〉

(주)맥스로텍

맥스로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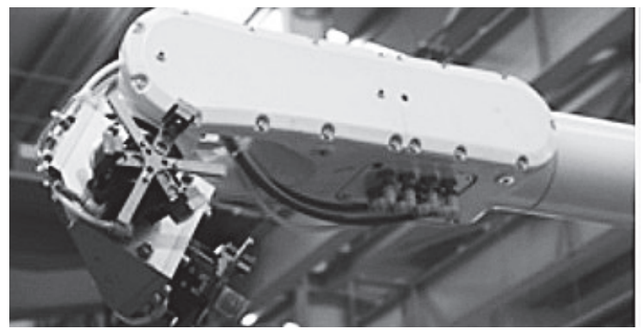
정부가 제조업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공장자동화(FA) 시스템 생산 업체 맥스로텍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 1995년 설립된 맥스로텍은 공장자동화 시스템의 핵심인 유·무선 갠트리 로봇을 비롯한 자동화 주변기기, 공작기계 산업자동화용 첨단기계 및 로봇 전문기업이다. 또 자동차 핵심 부품 부품인 엔진실린더블록과 실린더헤드 임가공 사업을 아울러 영위하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맥스로텍이 미국 메이저 자동차 회사에 공장 자동화시스템의 핵심인 갠트리로봇을 조만간 공급하는 등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래 왼쪽 사진은 김인환 대표이사, 오른쪽은 갠트리로봇.





최소 1kg부터 최대 1톤무게 소재 이송

제조공장 생산성 향상·비용절감 효과

무선용 로봇생산 기업 세계 2곳중 하나

가장 큰 매출비중을 차지하는 공장 자동화 시스템 사업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융합된 고정밀 하이테크 기술이다. 제조 공정에서의 고정밀·고속 물류이송 시스템을 공급하면서 고객사에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맥스로텍에서 생산하는 공장 자동화 시스템은 갠트리로봇과 자동화 주변기기로 구성된다. 갠트리로봇 시스템을 주축으로 컨베이어, 자동적재유닛, 세척유닛, 외형측정 유닛, Vision유닛을 포함하는 전 공장 자동화 세트가 턴키(Turn-Key)로 갖춰져 있다.

맥스로텍 관계자는 "특히 무선 갠트리로봇(Cable-less gantry robot)을 생산하는 기업은 맥스로텍을 포함해 전 세계 2개사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무선 갠트리로봇은 소재 이송을 담당하는 캐리어에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인 케이블의 파손 및 케이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제약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장비다.

현재 맥스로텍의 주요 고객사는 국내외 유명 자동차 회사 및 1·2차 협력사, 기계장비 회사 등이다. 특히 맥스로텍의 갠트리로봇은 다양한 산업의 다양한 소재에 적용 가능하며, 최소 1kg부터 최대 1t 무게의 이송물을 분당 300M까지 이송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높은 기술력에 힘입어 기존 고객사 외에 북미지역 메이저 자동차 회사에도 갠트리로봇의 납품이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회사는 2009년부터 자동차 엔진 부품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왔다. 설립 초기 주요 사업이던 공작기계 사업으로부터 축적된 기계기술과 현재 주요 사업인 공장자동화 시스템 영위 과정에서 다년간 축적한 정밀가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차 엔진부품 기술 공정을 확보하고 있다. 또 생산라인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 완성차 업체를 제외한 외주업체 중에는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엔진실린더블록과 헤드는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극히 한정적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도 엔진실린더블록 등 핵심 부품의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다. 엔진부품의 경우 높은 기술력과 레퍼런스로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 해당 사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특히 회사는 최근 유명 메이저 자동차 회사에 새롭게 엔진실린더블록을 납품하는 등 고객사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PKM, 4스핀들 머신, 엔진 Remanufacturing사업 등을 통한 차세대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맥스로텍은 PKM의 경우 3D프린터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주물부터 절삭까지 전 공정 수행이 가능한 새로운 융·복합 기계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맥스로텍은 해외 진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로봇연합(IFR)에 따르면 올해 중국 산업용 로봇시장 수요는 약 3만5000대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중국 내 임금은 급격한 인상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최근 자동화 설비 추진을 검토 중이다. 맥스로텍은 2012년 설립된 아이마트자동화장비유한공사를 통한 수주 외에 중국 현지업체와의 직접 접촉을 통한 수주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지속적 임금 인상에 따라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자동화 제품 생산회사인 해리 메이저 머신(Harry Major Machine)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공작기계 전시회인 'IMTS(International Manufacturing Technology Show)'에 참가했고, 지난 3월에도 시카고에서 열린 자동화장비 박람회에 참여해 호평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의 메이저 자동차 회사에 조만간 회사의 갠트리로봇을 납품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맥스로텍의 작년 실적은 매출 370억4000만원, 영업이익 31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64%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한 수치다.

회사 측은 "자동화 설비시설 시장의 확장과 자동차 엔진 핵심부품 매출의 지속적 상승으로 올해도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Winners Club 한화그룹 Hanwha

방산·화학 '선택과 집중' 전략 국내 최고 넘어 '글로벌' 발판

핵심역량 강화 차원 건자재·제약사 매각

삼성 4개 계열사 올 상반기 인수 마무리

화학·방위사업 매출 국내 최대규모 격상

독일 車부품사 인수로 유럽 시장 진출도

한화그룹이 내실과 집중을 통한 재도약을 목표로 리스크에 대해 철저한 파악 및 사전 대응과 더불어 2014년부터 이어왔던 선택과 집중으로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계속 진행하면서 지난해 말 확정한 삼성 계열사 인수로 업계 리더로서 위상이 더욱 강화된 방산과 화학부문을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하반기 경쟁력이 없거나 시너지가 부족한 사업 부문은 과감히 매각하고 석유화학 및 태양광사업 부문의 수직계열화를 완성·강화함으로써 관련 사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삼성그룹의 방산, 화학 4개 계열사를 인수하는 민간 주도의 자율형 빅딜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핵심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태양광사업 부문은 한화큐셀과 한화솔라원을 합병하면서 기술과 생산규모 부문 모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한화그룹은 지난 2014년 하반기 한화L&C의 건자재 사업 부문과 제약 계열사인 드림파마를 매각했으며, 8월에는 KPX화인케미칼을 인수하면서 석유화학과 태양광, 소재를 중심으로 한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포장재 회사인 한화폴리드리머의 일부 사업부를 희성그룹에 매각하기로 했다.

선택과 집중의 또 다른 한 부문인 소재 분야에서는 한화첨단소재가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 하이코스틱스사를 인수하면서 독일 및 유럽 자동차 경량화 부품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 한화그룹은 건설 및 유화사업의 회복, 생명보험 업황 개선, 태양광산업 등의 실적 개선으로 48조원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삼성 4개 계열사 인수를 위한 지분 매입을 포함해 2015년 투자는 약 2조4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삼성 계열사 지분 매입에 투자될 2015년 금액은 약 8000억원이다.

한화그룹은 2015년 삼성테크윈과 삼성종합화학 등 삼성 계열사 인수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방위사업과 석유화학사업 부문에서 국내 1위로 도약한다.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인수를 통해 2013년 기준 방위사업 부문 매출이 1조원 규모에서 약 2조6000억원으로 증가해 국내 방위사업 분야 1위로 도약하게 된다.

또한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 인수를 통해 석유화학사업 부문 매출 규모가 18조원에 이르러, 석유화학산업에서도 국내 1위로 등극하게 된다.

한화그룹은 이번 M&A(인수합병)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60여년 한화그룹의 역사에 줄곧 그룹 성장의 모태가 돼 온 방위사업과 석유화학사업의 위상을 국내 최대규모로 격상시켰다.

방위사업과 유화사업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한화그룹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딜이 성사됨으로써 한화그룹은 '선택과 집중' 전략에 기반한 중장기 사업구조 재편작업을 일단락했고, 주요 사업부문에서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한화그룹은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인수를 계기로 방위사업 자체의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의 탄약, 정밀유도무기 중심에서 자주포, 항공기·함정용 엔진 및 레이더 등의 방산전자 사업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차세대 방위사업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확충하게 됐다.

설경진 기자 skj78@



한화그룹이 내실과 집중을 통한 재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리스크에 대해 철저한 파악 및 사전 대응과 더불어 삼성 계열사를 인수해 방산과 화학부문을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사진은 한화케미칼 사우디 IPC 공장 전경.

사진제공 한화그룹

고객과 기술에 대한 성숙한 이해는
성장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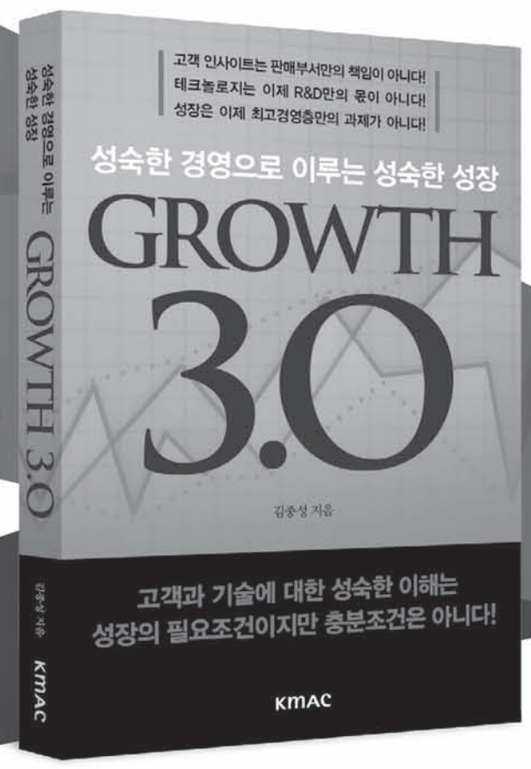
성숙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4대 역량!

1 **혁신력** :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 성장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각 기업의 전통과 사업 무대, 전략 등과 연계되어 갖추어져 있다.

2 **예측력** : 시장에 대한 예측력은 성장 기업이 가지는 공통적인 역량이다. 마켓 인사이트에 기반한 예측력과 추진력은 핵심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미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3 **활용력** : 성장에 능한 기업들은 성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때 자신들이 가진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브랜드, 유통망, 고객 관계, 기술, 네트워크 조절점 등 모든 자산을 성장에 활용한다.

4 **적응력** : 성장에 능통한 기업들은 서로 다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결합, 연결, 혹은 분리시킴으로써 성장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GROWTH 3.0
김종성 지음 | 값 15,000원

●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 절찬리 판매중! 다부수 구매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문의 : Tel 02-3786-0184 / Fax 02-3786-0107 / njh@kmac.co.kr

KMAC

상쇄배출권 상장 어제부터 거래 시작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될까



외부 감축분 191만톤 판매

첫날 1500톤…1만100원 마감

기업 제출한도 15.6% 그쳐

수요 비해 공급량 부족 지적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6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KRX 배출권시장에 상장된 상쇄배출권(KCU15)은 1500톤(1490만원) 거래됐다. 상쇄배출권 가격은 9600원에 시가가 형성됐다. 종가는 1만100원으로 500원(+5.2%) 상승했다. 상쇄배출권 가격은 할당비출권(KAU15)의 현재 가격(1만100원)과 같은 가격으로 형성됐다.

상쇄배출권이란 배출권할당 대상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을 조절하거나 다른 공장과 거래해 전체 배출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제2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어 '휴켐스 질산공장 아산화질소 감축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약 191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됐다고 심의해 해당 기업에 인증실적을 발급했다. 이번 감축량은 국내에 등록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서 2010년 4월 14일 이후 발생한 것이다.

거래소는 상쇄배출권 가격이 일반 배출권과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할당업체가 정부에 제출하는 배출권의 10%까지만 상쇄배출권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상쇄배출권 거래를 통해 지난 1월 12일 개장 이후 거래가 뜸했던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실현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4일과 25일 열린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현재 기업이 제출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 한도는 15.6% 수준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RPS)의 추가 감축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온실가스시장 출범 당시 업계의 배출권 신청량은 20억2100만톤 수준이었지만 현재 정부의 할당 총량은 15억9800만톤이다. 이번 상쇄배출권을 통해 추가되는 191만톤이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다운 기자 gamja@

유진투자증권 "CF 공유하면 커피 한 잔"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5월 15일까지 신규 CF 론칭을 기념해 SNS 공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CF는 드라마 tvN 드라마 '미생'에서 박 과장으로 열연한 배우 김희원이 출연, '뻔뻔한 김희원 편' '순진한 김희원 편' '이중인격 김희원 편' 3가지 버전으로 제작됐다. 이벤트 페이지(http://eugenefn-event.hexafactory.com/sns/index.html)에서 3가지 영상을 감상한 후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을 투표하고 SNS에 공유한 고객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또한 영상을 가장 많이 공유한 상위 36명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NH투자증권, 업계 최초 '해외주식 담보대출' 출시

NH투자증권은 해외주식을 담보로 평가금액의 최대 50%까지 대출해주는 '해외주식 담보대출 서비스'를 증권업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매도한 주식을 담보로 결제일까지 자금을 대출해 주는 '해외주식매도담보대출' 서비스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해외주식담보대출에 대한 고객의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주식 담보대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NH투자증권 측은 설명했다.

해외주식 담보대출 서비스는 우선 미국에 상장된 주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향후 중국 주식까지 담보대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비율은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 평가금액의 최대 50%이며 종목별로 다르다.

대출기간은 최대 90일이고 종목별로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담보유지비율은 170%이며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주식 담보대출 서비스는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우량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보유한 고객 중 대출약정 가능 등급 이상 고객일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김재준 NH투자증권 영업지원본부장은 "업계 최초 해외주식 담보대출 시행은 글로벌 시장 구축을 선도하는 NH투자증권 글로벌 서비스의 일환"이라며 "미국 주식 담보대출 시행 후 점차 담보 가능 국가 주식을 늘려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NH-CA운용 'Allset 펀드' 5000억 돌파

'스마트베타' 연초후 13.42% 수익

'차세대리더'도 10.98% 성과 기록

NH-CA자산운용의 대표투자상품인 'Allset 펀드'가 설정액 5000억원을 돌파하며 인기 순항세를 이어가고 있다.

7일 NH-CA운용은 올 초 출시한 'Allset 펀드' 설정액이 5365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초, 3000억원을 돌파한 이후 매달 1000억원 넘게 판매된 셈이다.

'Allset 펀드'는 NH-CA자산운용이 농협은행, NH투자증권과 공동으로 개발한 대표 상품 브랜드로, 국내주식형 2종, 국내혼합형 3종, 국내채권형 1종과 해외주식형 1종 등 총 7종의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Allset 펀드'가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독보적인 성과 때문이다.

국내주식형 상품인 'NH-CA Allset 차세대리더 펀드'는 연초 이후 10.98%의 성과를, 'NH-CA Allset 스마트베타+ 펀드'에 투자한 고객은 13.42%의 수익을 얻었다. 각각 464억원씩 판매됐다.

또 주식혼합형 상품인 'NH-CA Allset 스마트 인베스터 5.0 분할매수 펀드'는 연초 이후 3.98% 수익을 냈고 442억원어치 판매됐다.

한동주 NH-CA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운용의 핵심은 좋은 운용 성과를 내는 데 있고, 운용 성과는 회사의 운용철학을 바탕에 두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과정을 거쳐 그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Allset 펀드의 단기 성과를 위해 서두르거나 욕심 내기보다는 원칙과 제대로 된 투자 과정을 지켜나가는 데 집중할 것이며,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

황영기 "규제 완화만큼 투자자 보호도 중요"

〈금융투자협회장〉

고객 수익률 우선시하는 관행 필요

수수료 의존말고 영업모델 강화를



"금투업계의 규제 완화 못지않게 투자자들에 대한 업계 신뢰도도 높여야 하고 금투업계도 이를 위한 노력에 기울여야 합니다."

황영기〈사진〉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6일 금투협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황 회장은 취임 이후 두 달간 계속 업계가 요구한 규제 완화나 검사 관행 변화를 금융당국과 정부와 만나 논의를 지속해 왔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도 최근 혼연일체의 모습으로 규제 타파를 위해 노력하는데, 업계도 규제완화를 강조하기 이전에 업계 스스로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영업 관행 노력을 기울여야 명분이 설 것"이라면서 "일례로 증권사들이 매도 의견 리포트를 내고 직원들 평가시 에도 수익률, 고객보호 측면에서 합리화되도록 영업관행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증권사들이 천수답식으로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의 니즈에 맞는 자산관리형 모델을 도입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해 수익원을 창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증권거래 수수료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이노베이션'이 이뤄짐에 따라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흐름을 거슬러 무조건 인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향후 주식 거래보다는 고객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중위험 중수익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자산관리형 영업 모델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연내 자본시장 관련 세재 개편 등에도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다만 해외 펀드 등 세재 혜택 확대가 담보 되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시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논리적 연구도 기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올해 국회와 정부 등과 협의해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율 등 과세 부분을 합리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쉽지만은 않다"며 "정부에선 세수가 적은 것을 우려하지만, 세금을 낮춰줘 투자자들이 주식과 펀드시장으로 몰려들면 오히려 정부 입장에선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그는 최근 잇단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한국 철수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전했다.

황 회장은 "글로벌 영업 기관에 익숙한 굴지의 외국계IB나 운용사들 입장에선 한국만의 특화된 영업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아시아 금융선진국처럼 한국 현지에서도 영업환경이 비슷해 질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파생상품 세일즈' 해외로 나간 거래소

13일간 아시아 핵심투자자 방문

한국거래소는 8일부터 13일간(영업일 기준) 아시아 지역 핵심 기관투자자 및 투자자협회 등을 직접 방문해 세일즈 활동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일즈는 1996년 국내 파생상품시장 개장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아시아 금융허브 3곳에 위치한 50개 핵심 투자기관(시드니 11개, 싱가포르 19개, 홍콩 20개)을 대상으로 현장상담 등이 실시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호주, 싱가포르, 홍콩 국적 투자자의 총 거래대금이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전체 해외투자자 거래대금의 41%를 차지해 핵심 지역으로 분류됐다.

거래소는 투자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일대일 세일즈' 활동을 통해 3개 지역 투자자들의 거래 특성 등을 파악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정다운 기자 gamja@

신가치투자로 돈 번 사람들을 확인하시려면 〈 www.segerotv.com 〉 스마트폰 청취가능!

"주식 투자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세계로TV의
신가치투자로
돈 번 사람들

25개월만에 8억 3천만원 벌다 – 필명: 금융강국
수익금으로 집을 사다 – 필명: 집사자

◉ 2015년 국가 소비자중심 대상 수상! – 동아일보 선정!
◉ 서적 구매 독자를 위한 ₩65,000 〈세계로 TV〉 1일 무료 이용권
◉ 무료 주식 강연회

강의 : 김원기 대표
주제 : 바이오 & 신기술주에 투자하라!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12~3시
장소 : 5, 6호선 공덕역 6번출구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혜택 : 무료회원 가입시 도장지갑 증정

※ 선착순 입장 / 전화예약안됨

문의 : 02-336-2226



김원기 지음 I 248쪽
글로벌북스 I 값 14,000원

지식이 하나로 연결되는 카타르시스!

내가 사는 복잡한 세상과 소통하는 힘을 주는 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어김없이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어제 본 드라마부터 시작되는 대화는 늘 같은 패턴이지만, 오늘따라 왜인지 시시한 기분이 든다. 곧 색다른 주제의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만 금방 지식에 한계가 오는 듯하다. 문득 자신의 부족한 지식 수준을 채우기 위해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절감하지만, 금세 막막해져온다. 대체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알아야 하는 걸까?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편(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과 현실 너머 편(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은 방대한 지식 분야를 마치 천일야화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다. 지식이 하나로 연결되고 단순하게 구조화되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이다.

채사장 지음 I 376쪽
한빛비즈 I 값 16,000원

종합 베스트셀러

현실너머편 절찬리 출간

문의 : 02-2128-8775

◉ 출판사 참여문의 ☏ 070-4333-0098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이그잭스 '친환경 저가 RFID 태그' 조기개발

1년 앞당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우수과제 선정
바코드보다 비싼 문제 해결… 관공서 등 도입 전망

이그잭스는 국책과제인 '친환경 저가 RFID 태그 기술개발'을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로부터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RFID태그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주관한 '2011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2011년 2월부터 2016년 2월에 완료예정인 과제이다.

이그잭스는 40년간 축적된 정밀화학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전도성 잉크 소재를 인쇄전자 공정기술에 적용 △고속 롤투롤(Roll to Roll) 인쇄공정 기술 △분리형 RFID 태그 제조기술 △고속 어셈블리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 저가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리형 RFID 태그기술은 루프(Loop)부와 다이폴(Dipole) 부를 분리해서 종이, 옷감,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필름 등에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다. 2012년 국내 특허등록이 완료됐으며 미국 등 해외특허 출원이 진행중이다.

저가형 RFID태그 개발은 RFID태그 가격이 바코드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를 해결, 기존 가격 때문에 RFID 적용을 보류하던 기업체, 관공서 등에 RIFD 도입확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에 RFID를 의무 부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활성화에 따라 기존 RFID적용 산업 외에도 기업의 생산, 재고관리, 헬스케어, 교통, 보안등 다양한 분야로 RFID 태그, NFC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세계 사물인터넷(IoT) 관련 RFID 시장은 2009년 약 398억 달러(한화 약43조원)에서 2018년에는 약 7233억 달러(한화 약794조)까지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맥스로텍, 북미 자동차 회사에 갠트리로봇 납품 예정

지난달 자동화장비박람회서 호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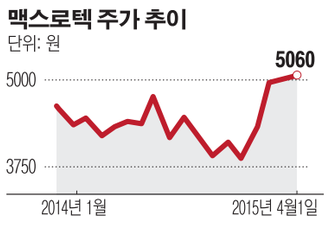
맥스로텍이 북미 메이저 자동차 회사에 공장 자동화 시스템 '갠트리로봇'을 조만간 납품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맥스로텍 관계자는 "지난달 시카고에서 열린 자동화장비 박람회에 참여해 호평을 받았다"며 "미국의 메이저 자동차 회사에 조만간 갠트리로봇을 납품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맥스로텍은 미국 자동화 제품 생산회사인 해리 메이저 머신(Harry Major Machine)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 공들여 왔다. 이번 납품이 이뤄진다면 북미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995년 설립된 맥스로텍은 공장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인 유·무선 갠트리 로봇을 비롯한 자동화 주변기기, 공작기계 산업 자동화용 첨단기계 및 로봇 전문기업이다.

맥스로텍 관계자는 "무선 갠트리로봇(Cable-less gantry robot)을 생산하는 기업은 맥스로텍을 포함해 전 세계 2개사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맥스로텍의 주요 고객사는 국내외 유명 자동차 회사 및 1·2차 협력사, 기계장비 회사 등이다. 회사 측은 기존 고객사 외에 북미 및 중국 시장 등으로 거래선 다변화에 힘을 쏟고 있다.



국제로봇연합(IFR)에 따르면 올해 중국 산업용 로봇시장 수요는 약 3만5000대로 전망된다. 더불어 중국 내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다수의 기업이 최근 자동화 설비 추진을 검토 중이다. 맥스로텍은 2012년 설립된 아이마트자동화장비유한공사를 통한 수주와 중국 현지업체와의 직접 접촉을 통한 수주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정부가 스마트공장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맥스로텍의 수혜가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화 설비시설 시장의 확장과 자동차 엔진 핵심부품 매출의 지속적 상승으로 올해도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IMM, 자동차부품업체 캐프 코스닥 상장 추진

신한금융투자 주관사 선정
조달 자금으로 M&A 전망

국내 대표 사모펀드(PEF)인 IMM그룹이 직접경영에 나선지 3년 만에 자동차용 와이퍼 생산업체 캐프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캐프는 대주주가 PE임에도 불구 지난 2013년 책임 경영 이후 핵심사업 위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경영 정상화에 성공, 최근 1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캐프는 최근 신한금융투자를 IPO(기업공개) 주관사로 선정하고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하는 신규자금은 △브랜드 강화 △유통망 구축 △생산설비 증설 △연구개발투자 △종업원복지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IB업계에서는 캐프가 상장으로 조달 된 자금으로 동종업계 M&A를 통해 산업통합을 통한 성장 기회도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캐프는 지난 2007년 수출확대에 따른 환율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파생금융상품계약(키코) 체결 후 곧이어 발생한 금융위기로 8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해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이후 2010년 5월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 주요 연기금 및 금융기관이 출자자로 참여한 IMM으로부터 600억원의 자금을 투자받아 위기를 극복했다. 2013년엔 김영호 당시 IMM 부사장이 캐프 대표로 직접 취임해 대주주가 직접 참여하는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했다.

IMM그룹이 경영 참여 이후 우선, 주력 사업인 자동차 와이퍼 제조와는 직접적인 시너지가 없는 △의료기기사업 △전장사업 △무역사업 등 비핵심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한편 직원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켰다.

김영호 캐프 대표는 "이번 임금체계 개편으로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기본급을 상향조정시켜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란의 여지가 원천적으로 사라졌다"며 "임금체계 변경 결과로 통상적인 초과 근무시간을 고려할 경우 이번 기본급 인상금액의 1.5배 이상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가 있어 근로자들 역시 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희림, '수직증축' 평촌 목련3단지 리모델링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이 1기 신도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장으로 관심을 모았던 안양 평촌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설계자로 선정됐다.

희림은 평촌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 리모델링조합과 약 19억원의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는 전용면적 41~56㎡, 규모 902세대의 대단지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률 293%, 세대수 1037세대로 증가하게 된다.

이번 설계자 선정은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 이후 처음으로 리모델링 설계자 선정에 성공한 단지로 의미가 크다. 재건축 연한이 10년 단축되면서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사이에 두고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

수직증축은 기존 골조를 보존한 상태에서 증축에 따른 안전 보강이 기본으로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설계 기술력과 노하우가 요구된다. 이에 희림은 업계 최고 수준의 리모델링 설계 기술력과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 압구정동 현대 사원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수주를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이후 별도의 컨설팅, 설계, 영업, 친환경, 구조, 기계, 전기 등 업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송영록 기자 syr@

지주사 실질적 지배력 유지 위해?

동아쏘시오, 메지온 지분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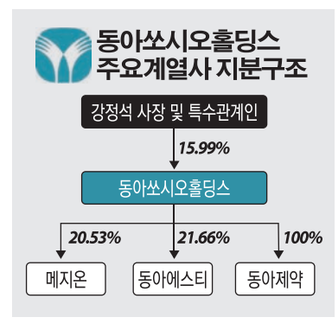
37만주 매도해 108억 현금화
추가 장내 매도 가능성도
메지온은 자사주 10만주 취득

동아쏘시오그룹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메지온의 지분을 팔아 100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화했다. 대규모 지분 처분으로 홀딩스는 지주사로서 행위제한 요건을 가까스로 유지했지만 추가로 장내 매도가 이뤄질 경우 지주사 기틀이 흔들릴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메지온은 3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을 해, 지주사의 실질적 지배력를 유지하기 위해 자사주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달 30일부터 보유 중이던 메지온 지분 37만 3824주(4.76%)를 장내 매도했다. 이로써 동아쏘시오홀딩스가 보유한 메지온 지분은 25.29%에서 20.53%로 줄었으며 동아쏘시오홀딩스는 108억 3819만원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같은 시기에 메지온은 대규모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 메지온은 10만 6007주, 30억원 규모의 자사주취득을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취득 예상 기간은 4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로, 회사 측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 재 메지온이 보유한 자사주는 50만 1627주(6.18%)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메지온의 지분 160여만주(20.5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지난해 12월, 출범 1년 9개월만에 지주회사로 전환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상장 자회사 지분 20%, 비상장 자회사 지분 4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즉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이번 지분거래를 통해 20%로 규정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을 가까스로 맞추는 선에서 지분을 처분했다.



특히 최근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시간외 매매를 통해 한미약품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동아에스티 보유 지분 전량을 취득하는데 240억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한 만큼 이번 메지온 보유 지분 처분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의 신약 개발 전문기업 메지온은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손실 49억1639만원을 기록해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메지온 보유 지분 장내 매도는) 그룹 차원에서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 선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으로 장내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대주주인 동아쏘시오홀딩스가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메지온의 지분을 처분한 후 실질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메지온이 자사주 취득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나온다. 자사주를 확보하면 의결권 없는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최대주주 측의 낮은 지분율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김희진 기자 heejin@

유통주식 늘려 주가부양 위해…

코위버, 자사주 매도 나선다

공시돋보기

50만주·31억7500만원 규모
지난달 주총서 결산배당금 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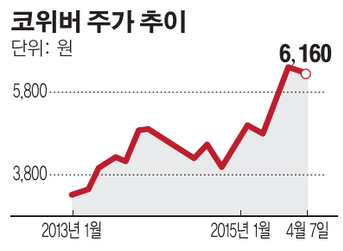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코위버가 자사주 매도를 통해 주가 부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7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위버는 전일 자기주식 50만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은 1주당 6350원으로 총 31억7500만원 규모이며 이날 시간외 대량매매로 처분될 예정이다.

이번 주식 처분으로 코위버가 보유한 자기주식 수(2014년 12월 기준)는 45만주 가량으로 줄게된다.

회사 측 관계자는 "과거 주가가 급락했을 당시 사들였던 자사주를 파는 것"이라며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한 목적 보다는 유통주식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기관(전문투자자)대상으로 매도할 것"이라며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위버의 올해 일평균 거래량은 10만주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위버의 실적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71억6396만원으로 전년대비 48.1% 증가한 것. 매출액은 586억5508만원으로 4.5% 줄었으나 당기순이익은 81억2629만원으로 29.0% 늘었다.

또한 코위버는 지난달 있었던 정기주주총회에서 코위버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당 결산배당금을 기존 100원에서 130원으로 확대해 승인하기도 했다.

이에 주가 역시 올들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 4900원이었던 주가가 6000원대까지 상승한 것이다. 연초대비 코위버의 주가상승률은 25.71%에 달하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녹십자, 영업강화 워크숍

'2015 프로페셔널 트레이닝' 개최

녹십자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솔 오크밸리에서 영업부문의 경쟁력과 소통 강화를 위한 '2015 Professional Training'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녹십자를 비롯해 중국녹십자·미국 현지법인인 GCAM·녹십자엠에스·녹십자랩셀·녹십자지놈 등 녹십자 가족사 영업부문 임직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녹십자 임직원들은 1박 2일 간의 일정에 따라 마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편, 회사의 혁신 추진 현황과 영업전략, 연구개발(R&D) 비전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MR들의 의욕고취 및 동기부여를 위해 MVP와 상위 5%의 우수 MR 및 상위 6~10%의 우수 MR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MVP 시상식에서는 △강명수 PD 본부 과장 △송인명 Vx본부 차장 △문재호 WB사업부 대리 △박재종 OTC본부 대리 △이병림 Overseas본부 차장 △김주만 녹십자엠에스 차장 △채원기 녹십자랩셀 과장 △짱옌핑 중국녹십자 부경리 등 총 8명이 부문별 MVP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MVP 수상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강인효 기자 kangih@

JW중외신약 피부과 시장 공략

건선 치료제 '자리오겔' 출시



JW중외신약이 건선 치료제를 통해 피부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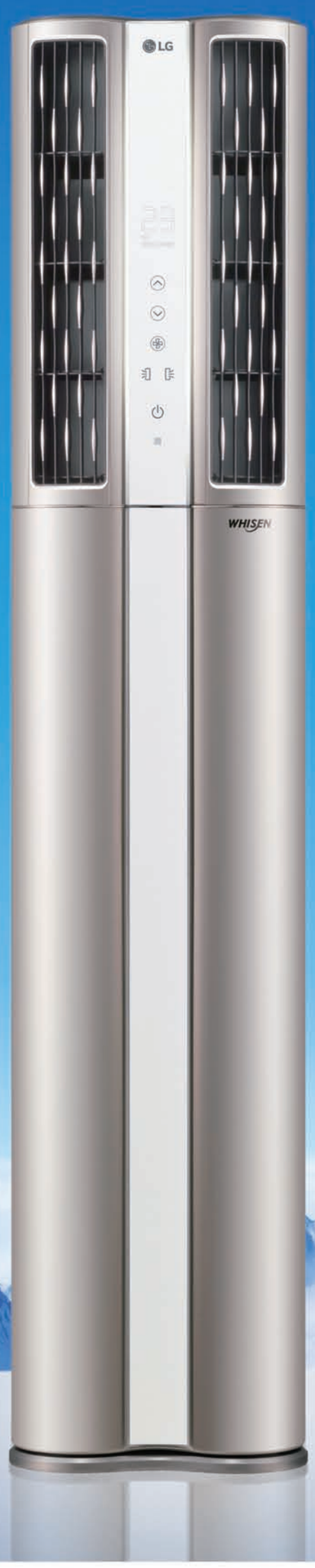
JW홀딩스의 자회사인 JW중외신약은 겔타입 건선 치료제 '자리오겔'(사진)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자리오겔은 두피건선과 체부건선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로, 비타민D 유도체인 칼시포트리올과 베타메타손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다.

자리오겔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50g 단위로 구성됐으며, 보험약가의 경우 기존제품보다 저렴하게 책정돼 환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이 독점하고 있던 건선 치료제 시장에서 국내 제약사가 겔 타입 복합 건선치료제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 출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강인효 기자 kangih@

LG전자

2015년은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에어컨
이제는 듀얼에어컨 시대



두 개의 에어컨으로 강하게



강력함을 원할 땐 두 개의 에어컨으로
| 듀얼 파워 냉방 |

하나의 에어컨으로 절전



절전이 필요할 땐 하나의 에어컨으로
| 듀얼 절전 냉방 |

두 개의 에어컨을 따로 따로



원하는 바람이 다를 땐 두 개의 에어컨을 따로 따로
| 듀얼 맞춤 냉방 |

한 개의 에어컨이 가진 한계를 넘기 위해 휘센이 시작합니다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에어컨, 마침내 듀얼에어컨 시대를 열었습니다

LG WHISEN 듀얼에어컨